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28호 HYUNBULNEWS.COM 2025년 4월 23일(음력 3월 26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전통사찰 화마에 지켜라” 화재보험 지원 입법 추진

영남 산불 피해 사찰 6곳 중
청송 보광사만 화재보험 가입
국유 유산만 보험 가입 의무
전통사찰 화재보험 사각지대
이헌승 의원, 法 개정 발의
소방청, 전통사찰 안전 점검



동해소방서가 4월 3일 동해 삼화사 일원에서 산불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동해소방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처님오신날을 한 달여 앞두고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사찰 화재 예방에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전통사찰의 화재보험 가입 예산 지원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봉축 행사가 열리고 있는 전국 사찰에서 소방 안전 점검도 시행된다.

국회 정각회장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을)은 최근 ‘전통사찰의 보존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통사찰 주지스님이 화재 및 도난, 재난에 대비해 방재시설과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영남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전통사찰 6곳 중 청송 보광사만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화재로 인한 전통사찰 피해 발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2건 △2023년 2건 △2024년 2건 △2025년 1건으로 총 1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곳은 용주사(경기 화성시), 내장사(전북 정읍시), 칠장사(경기 안성시), 증심사(광주 동구) 4곳에 불과했다.

이처럼 사찰의 화재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화재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국가유산청 ‘2024년 목조 문화유산 화재보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사찰 목조 문화유산 총 129곳 중 화재보험에 가입된 곳은 45곳으로 미가입률이 65.1%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지정 문화유산을 보유하지 않는 사찰까지 확대하면 화재보험 가입률은 더욱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사찰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까닭은 비용이 가장 큰 원인이다. 현행 ‘국유재산법’ 상 국·공유 문화유산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대다수 전통사찰과 소장 목조 문화유산은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불교 사찰 특성상 대부분의 전각이 목조 건축물이어서 화재의 위험이 크고, 문화유산적 가치까지 반영되면 보험료가 높게 책정돼 사찰 재정만으로 비용 감당이 어렵고, 보험사에서도 취급을 꺼린다는 게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전통사찰의 화재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취급을 꺼려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전통사찰은 역사적 의의를 지닌 민족문화 유산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특수건물 보험 공동 인수’ 제도를 활용해 보험사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화재보험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화재 예방으로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를 안전하게 치르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오는 5월 5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4월 30일까지 전국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소방청은 국보·보물로 지정된 목조 문화유산 보유 사찰 90곳을 포함해 전국 983개 전통사찰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사찰 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사항은 △연등 관련 설비 및 화기 취급 시설 등 안전관리에 대한 화재 예방 교육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옥외소화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관련 작동 여부 확인 △사찰 주변 화재위험 요인 제거 등이다.

또 전국의 각 소방서는 관내 주요 사찰을 직접 방문해 현장 안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및 방수총 작동 훈련을 통해 관계자들에게 초기 화재 대응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전통사찰은 대부분 목조 건축물로 화재 발생 시 급격히 연소·확산할 우려가 크며, 산림과 인접한 경우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사찰 관계자는 물론, 방문하는 국민들도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미래본부와 서울 조계사, 선원수좌회가 4월 14~20일 서울 조계사서 진행한 ‘국난극복과 마음치유를 위한 담선대법회’가 성료했다. ‘간화선’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한 이번 법석에는 7일 동안 1만명 이상의 불자들이 함께하며 선지식 일곱 스님의 감로수 같은 청량한 법문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들 상처난 마음, 간화선으로 어루만지다

미래본부 · 조계사 · 선원수좌회
4월 14~20일 담선대법회 봉행
7명 선지식 〈육조단경〉 교재로
국민화합 · 국운융창 함께 발원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간화선의 지혜로 국민화합과 국운융창을 발원하기 위해 마련된 담선대법회가 성료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선명상 대중화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선명상의 본질인 ‘간화선’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한 이번 법석에는 7일 동안 1만명 이상의 불자들이 함께하며 선지식 일곱 스님의 감로수 같은 청량한 법문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서울 조계사, 선원수좌회와 함께 4월 14~20일 조계사에서 ‘국난극복과 마음치유를 위한 담선대법회’를 개최했다.

담선대법회는 고려시대 국가에서 3년마다 개최한 법회로 선(禪)의 지혜로 국난극복과 국운융성을 발원하는 법석이다. 이번 대법회는 선불교의 핵심 사상이 담긴 〈육조단경〉을 교재로 조계종을 대표하는 7명의 선지식이 법사로 나섰다.

첫 법석은 백담사 기본선원장 영진 스님이 장식했다. 4월 14일 대웅전에서 열린 열린 담선대법회 릴레이 법문 첫 주자로 법석에 오른 영진 스님은 육조 혜능의 발심부터 수법(受法) 과정을 알기 쉽게 대중들에게 설법했다. 달마 대사의 안심법문 화두를 들려준 영진 스님은 국정논란과 산불 피해 등 국가적 혼란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했다.

이틀째인 4월 15일에는 석종사 조실 혜국 대종사가 법문을 이었다.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운집한 이날 법회에서 혜국 스님은 〈육조단경〉의 ‘정혜품’과 ‘무념품’을 주제로 법문을 설했다. 혜국 스님은 “21세기 세계는 소리 없는 전쟁 중”이라며 “조상들이 국난극복을 위해 팔만대장경을 판각하며 국론을 통일했던 지혜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4월 16일에는 송광사 방장 현묵 대종사가 세번째 법상에 올라 법문했다. 대통령 탄핵과 대형 산불 등으로 혼란 한 상황을 우려하며 법문을 시작한 현묵 스님은 뒤늦게 깨달음을 얻은 아난존자에서부터 대낮 닭 울음소리를 듣고 깨달은 서산대사와 금강산 신계사에서 치열하게 정진했던 조계종 초대 종정 효봉 스님의 일대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4월 17일에는 백양사 수좌 일수 스님, 18일에는 축서사 조실 무여 스님, 19일에는 상원사 선원장 의정 스님, 20일에는 해인사 방장 대원 대종사가 법상에 올랐다. 법회 기간 매일 1000여 명 이상의 사부대중이 조계사에 운집해 선지식의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조계종은 올 가을에도 담선대법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14일, 첫 담선대법회를 앞두고 전국선원수좌회 스님들을 만나 “조계종의 종지종풍인 간화선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법석을 계기로 수행 종단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진우 스님은 “역사적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교가 큰 역할을 해온 만큼, 마음의 치유와 평안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법석을 봄가을로 열어 국민 마음 안정에 한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국선원수좌회 상임대표 불산 스님은 한국전통 간화선의 수행법이 삶과 정신을 풍요롭고 건강하며 행복하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간화선 화두에 몰입해 본래 마음을 홀연히 봐 중생 마음을 정화해 혼탁한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거듭 정진해 나가자”면서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간화선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국가와 사회가 더욱 안정되고 평화로워지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법보종찰 해인사

팔만대장경
복각을 위한
전통각법 교육

접수 기간 2025년 03월 17일(월) 부터
교육 내용 팔만대장경 복각을 위한 전통 각법 교육
교육 장소 해인사 판각학교 (구 해인초등학교)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3길 8
교육 일정 토요일, 일요일 中 택1 (13:00 ~ 17:00)
교육 대상 스님, 일반인, 남녀, 연령 제한 없음

신청서는 작성 후 아래 항목 중 선택하여 접수
(신청서는 아래 QR 코드나 해인사 홈페이지에서 다운)

- 해인사 홈페이지 : haeinsa.or.kr
- 이메일 : 12haeinsa@naver.com
- 신청문의 : 055-934-3000
- FAX : 055-934-3010
- 우편 : (50200)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해인사 종무소
- 직접방문 :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해인사 종무소

해인총림 제10대 방장 대원 대종사 승좌

4월 17일, 해인사 법계탑 마당서
"중생에 등불 보이는 사표 자리"
"만유중생 깨달음 이끄는 초석"
산불희생자 추모…2천만원 전달

합천 해인사=하성미 기자


해인총림 해인사에서 개최된 '제10대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승좌법회'에서 대원 대종사가 주장자를 들어보이고 있다.

수행과 교화의 중심에 서는 자리, 해인총림의 새 방장이 법좌에 올랐다.

법보종찰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4월 17일 해인사 법계탑 마당에서 '제10대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승좌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해인사는 최근 영남 지역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는 뜻에서 행사 규모를 축소해 법회를 봉행했다. 또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2000만원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전달하며 위로의 뜻을 더했다.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은 추대사를 통해 "방장스님은 평생 수행과 정진에 헌신하시며 한결같은 청정심과 불퇴전의 서원으로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 교화에 큰 힘을 기울여오셨다"며 "방장스님의 숭고한 가르침은 해인총림의 법등을 더욱 찬란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법가가 울려 퍼진 뒤, 승가대학 학인들의 인도로 대원 대종사가 법좌에 올랐다. 이어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이 법장을, 해인총림 유나 효담 스님이 불자를 각각 봉정했다.

대원 대종사는 법어에서 "오늘 산승이 법상에 오르기 전에 즉시 그르쳤고, 법상에 오른 이후에도 허물이 적지 않으니, 입을 열고 말을 한 즉, 죽은 송장이 산처럼 쌓였도다. 금일 대중 가운데 이 산승의 생명을 구제해 주실 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 말씀 일구를 부탁한다"고 법문했다. 이어 "한입으로 해인의 봉우리를 마셔 다하니 산호 가지마다 달꽃이 억년의 봄이로다. 금사자가 굴에서 나와 크게 우니 가야산 수많은 계곡이 만겁토록 빛남이라"고 설하며 가르침을 전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대원 대종사께서 이 자리에 오르심은 천년 해인총림의 법등을 삼천세계에 선양하는 뜻이며 일불승 대장정에 있어 큰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오늘의 승좌 법석은 법통의 계승을 넘어 천만 생령에게 평화의 숨결을 불어넣고 만유중생을 깨달음의 언덕으로 이끄는 불국정토의 초석이 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원로의장 자광 스님과 원로의원 스님들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상진 스님, 보육원에 짜장면 자비나눔

태고종 · 한국미래복지재단
상록보육원 자비나눔 봉사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보육원 원아들에게 자비가 담긴 짜장면을 전했다.〈사진〉

태고종 사회복지재단은 한국미래복지재단과 공동으로 4월 11일 서울 상록보육원을 찾아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담은 동행'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태고종 사회복지재단과 한국미래복지재단 관계자들은 짜장면을 직접 만들었고,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짜장면을 시설 아동들에게 나누며 부처님 자비를 전했다. 배식에 앞서 상진 스님은 상록보육원 시설을 라운딩하며 도서 기부 등 지속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상진 스님은 시설 아동들에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 육바라밀의 실천을 강조하며 "화가 나도 참고, 친구에게 베풀며, 바르게 노력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긍정의 마음을 더 많이 가질 때 더욱 성장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태고종단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만들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축원하겠다"고 격려했다.

부청하 상록보육원장은 "현재 보육원에는 베이비박스로 온 아이들이 29명, 학대 받아 온 아이들이 19명, 부모 이혼 혹은 사망으로 인해 온 아이들이 7명, 총 53명이 살고 있다"며 "일회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태고종의 자비나눔이 감사하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

4월 16일 재난 지원금 전달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사진〉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우석 스님은 지난 3월 20일 열린 화엄사 산중종회에서 차기 주지 후보로 만장일치로 선출된 바 있다.

진우 스님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 교구발전과 포교에 큰 역할을 해달라"며 "선임 주지스님의 자문을 잘 받들어 교구 운영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우석 스님은 "현대인들이 문화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화엄사 내에 많이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우석 스님은 '천년을 세우다' 기금 3000만원과 산불재난 및 문화유산 복구지원금 1870만원을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다.

신중일 기자

불교계 산불 복구 염원 기부 행렬 잇따라

전국비구니회, 4월 16일 3000만원
19일까지 고운사, 운람사 등 전달



전국비구니회가 4월 16일 '산불 재난 및 문화유산 복구 지원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영남 대형 산불로 피해입은 사찰 복구와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발원하며 불자들의 따뜻한 정성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을 비롯한 집행부 스님들은 4월 16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산불 재난 및 문화유산 복구 지원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조계종은 4월 초 산불 피해 사찰에 긴급 지원금을 전달했고, 수일 내로 사찰은 물론 인근 피해 주민들을 위한 2차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라며 "성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스님과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줬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에 광용 스님은 "올해는 무안공항 참사부터 국가적 혼란과 산불까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이번 화재 소식에 황망하고 안타까웠다. 산불이 온 국민 가슴을 다 태웠을 정도"라며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응에 애써 주신 총무원장 스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비구니회도 산불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광용 스님은 산불 피해 현장 방문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국비구니회는 4월 18일 세종 소방청을 찾아 위로금을 지원하고 19일까지 고운사, 운람사, 석불사, 만장사, 용담사, 보광사 차례로 방문해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같은 날 인천불교회관 주지 일지 스님도 신도들과 함께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산불 피해 복구금 1142만원을 전달하며 힘을 보탰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피해 사찰이나 이재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꾸준히 포교하는 인천불교회관 덕분에 도심 포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인천불교회관 주지 일지 스님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조계종 직할교구신도회는 4월 15일 십시일반 모은 1500만원을 전달했다. 김학규 회장은 "산불 피해 사찰과 이재민들에게 힘을 보태고자 기금을 모았다"며 "신도회 차원에서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봉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 김내영 기자

"종회 결정 거부하는 동화사 엄중 대응"

중앙종회, 4월 15일 공식입장 발표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림 해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동화사의 총림 지위 해제가 법적 다툼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가 "종헌종법 절차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4월 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기2569(2025)년도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종책모임 회장단 제10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중앙종회는 3월 26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제9교구 동화사 팔공총림 지정 해제를 결의하고 다음날인 3월 27일 결의사항을 동화사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동화사는 4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림 해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동화사는 이어 조계종에 '제233회 임시 중앙종회 팔공총림 해제 재의 요구의 건' '팔공총림 동화사 해제 결의사항 법적 대응의 건'을 접수했다. 조계종 법규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에도 4월 7일 '팔공총림 동화사 해제 결의사항 사회법 소송의 건'을 접수하고 다음날 '소청 확인 요청의 건'을 문서 발송했다.

중앙종회는 이날 비공개 회의 후 공식 자료를 통해 "종헌종법 절차에 따라 엄중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이들은 "팔공총림은 제233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총림 지정 해제가 결의되어 제9교구 본사 동화사 그 본래의 역할로 돌아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중앙종회는 "하지만 이후 동화사의 행태는 종단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의 결정사항을 거부하고, 해제된 총림의 직위와 조직명을 계속 사용하며 종단 대의기구에 대한 대중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문건을 유포하며 중앙종회 및 종회의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중앙종회의 결의와 종헌종법의 문란을 야기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중앙종회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연석회의에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종헌종법 절차에 따라서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지혜·자비의 등, 국회에 불 밝히다

국회 정각회, 4월 16일 봉축 점등식 봉행

진우 스님 등 종단 지도자 참석
이헌승 회장 "삶의 변화 이루자"
국보 충주 중앙탑 재현해 제작
산불 피해 지원금 300만원 전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국회 정각회는 4월 16일 국회 중앙광장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점등식 직후 기념촬영 모습.

국회의사당에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지혜와 자비의 등이 불을 밝혔다.

국회 정각회(회장 이헌승)는 4월 16일 국회 중앙광장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등식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덕수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차석부회장 능원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부회장 상진 스님(태고종 총무원장)·주경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록경 정사(총지종 통리원장)·만청 스님(대각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진호 스님(원융종 총무원장) 등 종단협 소속 종단 주요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정각회에서는 이헌승 정각회장과 주호영 명예회장, 서영교 고문, 김영배 수석부회장, 김병주 부회장, 이수진 수석 간사, 김석기·이용성·김재원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날 국회 중앙광장을 밝힌 봉축탑은 국보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을 재현해 제작됐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신라 제38대 원성왕 때 통일신라 전 국토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사람이 동시에 출발해 같은 보폭으로 걸어 만난 국토의 중앙지점에 세운 것이라고 한다. 조성 설화처럼 국회 봉축탑에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중심을 잡아 세상을 평안하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점등식에서 불교 종단을 대표하는 스님과 국회의원들은 봉축탑에 불을 밝히며 올해 봉축표어인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을 힘차게 외쳤다.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대립과 갈등이 깊어지고, 국회 역시 정쟁으로 점철된 현실 속에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고 있다"며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서로를 이해하고 한 걸음씩 양보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고 조화를 이루며,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고 설하고 있다"면서 "이 가르침처럼 우리 국회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더욱 애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식 치사 이후 진우 스님은 소참법문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선명상 수행으로 탐·진·치 삼독심을 내려놓고 정무에 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헌승 정각회장은 점등사를 통해 "오백년을 이어온 연등의 전통은, 서로의 마음을 밝히며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실천의 상징"이라며 "여러 정치적 혼란 속에서 오늘 함께 밝히는 이 연등 불빛이, 대한민국을 다시 밝히고, 우리 모두의 삶에 따뜻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서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을 축하하고 화합의 정치를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정각회 회원들은 진우 스님에게 산불 피해 복구 기금 300만원을 전달하며, 피해 사찰과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기원했다.

"연잎 꼬고 붙이며 연등 함께 밝히자"

조계종종무원조합 '1인 1연등 만들기' 현장

기금 모연해 산불 피해 사찰 지원
4월 25일 총무원 로비서 점등법회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자 조계종 총무원 사무실 한켠이 유난히 분주해졌다. 종무원 몇몇이 모여 앉아 연잎을 꼬고, 골조에 연꽃을 붙이는 손길이 바쁘게 오간다. 조용했던 사무실이 어느새 작은 연등 작업장으로 변했다.

부처님오신날을 열흘 앞둔 4월 16일, 조계종종무원조합(조합장 김추연·기획실 공보팀장)이 연등 만들기에 한창이다. 조합에 소속된 300여 종무원은 각자 소속된 부서별로 점심시간을 활용해 '1인 1연등 만들기'에 참여하고 있다.

매년 연등을 만들어 온 종무원들은 능숙하게 작업을 이어갔고, 올해 처음 참여한 신입 종무원들은 옆자리 동료들을 따라 열심이다. "옛날에는 연잎 끝을 실로 감기도 했는데…" "풀은 적당히 발라야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등 소소한 대화는 덤이다.

정성껏 만든 연등에는 저마다의 간절한 발원을 적은 꼬리표도 달린다. 교육부는 '출가자 등록 200명 돌파'를, 기획실은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기원했다. '가족 건강' '좋은 인연 만나기' '올해 안에 결혼하기'처럼 개인적 바람도 함께 담았다.

종무원조합은 매년 연등 만들기를 통해 자비나눔 기금도 조성한다. 특히 올해 기금은 대형 산불로 피해 입은 영남 지역 사찰 복구 지원에 사용된다. 조합은 완성된 연등을 조계종 총무원 1층 로비에 설치하고, 4월 25일 점등법회를 통해 불을 밝힐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종무원들이 4월 16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연꽃등을 만들고 있다.

경찰 불자들 "국민 신뢰 받고 평화로운 세상" 염원

서울경찰청, 4월 15일 봉축법회
포돌이 · 포순이 장엄등 불 밝혀


서울경찰청 봉축대법회 참석대중이 포돌이 포순이 장엄등에 점등을 하고 있다.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기본과 원칙을 척도 삼아 법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되도록 부처님의 큰 뜻이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발원문 中)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경찰 불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와 국민 화합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서울경찰청 경승실과 불교회는 4월 15일 서울 청사 대강당에서 '불기 2569(2025)년 부처님오신날 나라와 국민을 위한 봉축대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성화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시민들의 가까운 이웃으로 늘 든든한 의지처가 되는 경찰 불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진우 스님은 "시민들의 평안한 일상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는 경찰 여러분은 마치 어두운 밤을 밝히는 연등처럼 소중한 존재"라며 "어려운 국가적 혼란 속에서 흔들림 없이 법과 질서를 지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경찰 여러분의 노고를 깊이 느끼고 있다"고 치하했다.

서울경찰청 경승실장 원명 스님은 "경찰 불자들이 제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줬기에 대한민국이 지금의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 지난 몇 달간 사회가 위기를 겪는 동안 경찰이 아니었다면 국민도 마음 편히 지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최일선에서 가족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경찰 불자들이야말로 자비를 실천하는 보살행자"라고 격려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이라는 올해 봉축 표어처럼 국민의 마음에 자비와 평안히 가득하길 기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경찰 포교에 진력한 스님과 경찰 불자들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이 수여됐다.

법회가 끝난 뒤 참석대중은 1층 로비로 자리를 옮겨 포돌이·포순이 장엄등에 불을 밝히며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널리 퍼지길 염원했다.

김내영 기자

진흥원, 봉축 지원금·도서 보시 잇달아

연등회에 5000만원 전달해
학교 등 도서 1500권 기부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연등회 지원금과 도서를 잇달아 보시했다.

진흥원은 4월 10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연등회보존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에 봉축행사 지원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한구 이사장은 "계속되는 혼란스러운 국내외 상황에서 불교의 동체대비(同體大悲) 정신을 함께 나눠야 할 때임을 절감한다"며 "온 국민이 수행과 명상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찾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워 세상에 평안을 가져오기를 기원한다"고 봉축 메시지를 전했다.

이와 함께 진흥원은 4월 14일 '젊은 불교 활성화 및 불교계 출판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학원 불교 동아리와 전국 병원법당에 불교계 출판사에서 발간한 우수 불서 1500여 권을 전달했다. 130여 곳에 전한 불서들은 도서출판 민족사, 불광출판사, 설법연구원(솔바람), 운주사, 조계종출판사에서 발행한 10종의 불서(만화, 단행본)들이다.

한편, 진흥원이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지원한 불서는 총 2만 4100여 권이며, 불교 출판사 지원 금액은 2억 2000만여 원에 이른다.

신중일 기자



“화마로 희생된 뭇생명 극락왕생 발원”

태고종 · 불교환경연대 등
4월 15일, 서울 무상사서
산불피해 동식물 천도재
18개 녹색사찰 동시 진행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천도재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증명하고, 영산재보존회가 집전했다.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희생됐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뭇생명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가 거행됐다.

태고종·불교환경연대·대한불교청년회·BTN불교TV는 4월 15일 서울 BTN불교TV 1층 무상사에서 ‘산불피해 동식물 천도재’를 봉행했다. 이번 천도재는 화마로 생명을 잃은 모든 존재들을 위로하는 동시에 탐진치 삼독으로 저지른 인간의 과오를 참회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필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증명하고, 영산재보존회가 집전한 이번 천도재는 △영가를 도량으로 맞이하는 ‘대령’ △도량을 찾은 영가의 번뇌를 청정케 하는 ‘관욕’ △불·보살에 공양을 베푸는 상단권공(천수바라·도량게·거불·헌좌진언) △중단권공 △하단시식 등 전통 방식으로 이뤄졌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 대중은 영단에 향과 차를 올리며 희생된 동식물의 안식을 기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인사말에서 “4월이라는 계절이 무색할 만큼 거센 바람과 변덕스러운 날씨 속 영남 지역을 휩쓸었던 화마의 아픔이 다시금 되새겨진다”며 “자연의 재앙 앞에 무참히 스러져간 생명을 떠올리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다.

상진 스님은 천도재의 의미도 짚었다. 스님은 “불교에서는 모든 생명이 불성을 지닌 존재로, 이 땅 위에 숨 쉬는 하나하나의 생명, 생령들이 똑같이 존귀하다”며 “이번 천도재가 고통 속에서 희생된 동식물의 해탈을 발원하고, 인간의 지은 업보를 참회하며 생명을 향한 자비 정신을 일깨우는 성찰과 실천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TN불교TV 회장 성우 대종사는 법문을 통해 “화마에 희생된 영가들이 마음의 그늘을 걷고 맑고 고요한 본래의 청정한 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이어 한국불교 선지식들이 남긴 열반송을 읊은 성우 대종사는 “오늘 지은 인연으로 더 이상 업의 세계에 머물지 말고 이고득락하길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끝으로 참석 대중은 발원문을 낭독하며 생태공동체 일원으로서 생명존중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저희는 그동안 자연의 질서를 어지럽혔던 어리석음을 부처님 전에 온 마음으로 참회하오니,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과 열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모든 생명의 존엄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생명평화의 길을 걷길 발원합니다.”

한편, 산불피해 동식물 천도재는 고양 법문사, 울산 벽선암, 고창 미소사, 광주 문빈정사, 울산 성담사, 광주 원효사, 양산 미타정사, 김제 귀신사, 안양 행복선원, 울산 황룡사, 하남 상불사, 서울 심곡암, 화순 시적암, 안성 법계사, 부산 대원각사, 울산 오봉사, 강릉 현덕사, 고창 참당암 등 전국 18개 녹색사찰에서도 동시 진행됐다.

고양 금륜사, 대웅전 준공…지역 사회 열린 도량 ‘우뚝’

4월 13일, 대웅전 준공법회 봉행
2010년 식당 매입 후 15년 불사
본각 스님 “자비 실천 공동체”
진우 스님 “지역 자비 도량 기대”


회주 본각 스님은 금륜사가 지역 사회와 호흡하는 참다운 수행도량으로 거듭나길 서원했다.

고양 금륜사가 대웅전을 조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회주 본각 스님은 금륜사가 지역 사회와 호흡하는 도량이자 참다운 수행도량으로 거듭나길 서원했다.

고양 금륜사는 4월 13일 경내에서 ‘대웅전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금륜사 회주 본각 스님은 2010년, 도심 수행공동체 조성을 발원하며 고양시 서오릉 인근의 식당 건물을 매입해 불사를 시작했다. 어린이와 장애인, 노약자 포교에 앞장서 온 서울 서대문 금장사와 은평구 금화사를 통합 이전하면서 2013년, 2000여 평 부지를 추가로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소방 검열 등으로 불사가 지연되다 2023년 12월 대웅전 불사의 첫 삽을 떴다.

이날 준공법회가 열린 대웅전은 연면적 459.7㎡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지난해 6월 상량식에 이어 11월 만불전과 어린이법당, 지상 1층 법당이 완공됐다. 지난 2월 모든 불사가 마무리되면서 이날 낙성식을 봉행할 수 있었다.

본각 스님은 고불문에서 지난 15년간을 떠올리며 부처님 전에 환희의 마음을 표했다. “수많은 수행자와 불자의 간절한 발원과 정성이 모여 대웅전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한 스님은 “험난한 세상에 모두가 자비를 실천하는 참다운 수행도량, 부처님 가르침 속에 평온을 얻는 성스러운 기도처가 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귀한 불사”라고 치하했다. 진우 스님은 “흙 한 줌, 기왓장 하나, 그리고 법을 짓는 땀방울 이 모든 것이 귀하다”면서 “금륜사가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자비의 장으로서 더욱 빛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금륜사 청정도량에서 많은 사람이 가피를 입고 인생의 참된 가치와 용기, 희망을 얻고 세상을 밝게하는 이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대웅전 설립에 힘을 보탠 건축가와 불자 10여 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하동규 경기북부지사장

아가방앤컴퍼니·로터스월드, 미얀마 지원

5000만원 상당 아동복 3800벌
5월 초 · 중순 미얀마 도착 예정



국제개발협력단체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와 국내 대표 유아동복 전문기업 아가방앤컴퍼니(대표이사 신상국)가 규모 7.7 강진으로 피해 입은 미얀마 영유아들을 위해 의류 3800벌을 긴급 지원한다.〈사진〉

지원 물품은 5000만원 상당의 각종 아동복과 유아복(상하의, 점퍼 등), 내의류 등으로 지진의 가장 큰 피해 지역인 미얀마 중부 지역에 우선 지원된다.

로터스월드는 현지의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물품을 신속히 이송할 계획이다. 4월 10일 아가방앤컴퍼니 물류센터에서 출고된 물품은 오는 23일까지 선적을 완료하고, 5월 초·중순까지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물품은 로터스월드 미얀마 지부가 현지에서 수령해 직접 지원한다.

아가방앤컴퍼니는 “앞으로도 지진 피해 지역 아이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후원계좌 : 농협 301-0058-7941-81, 로터스월드

법보선원, 동국대에 10억원 쾌척

불교 · 이공계 인재 장학생 10명
‘송담 스님 장학’ 증서 전달해



(재)법보선원(이사장 상봉 스님)이 송담 스님의 인재 불사 원력을 받들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10억원을 동국대에 쾌척했다.〈사진〉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4월 14일 교내 로터스홀에서 법보선원 ‘송담 스님 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법보선원 이사장 상봉 스님은 ‘송담 스님 장학기금’ 10억 원을 동국대에 기부했으며, 1차 장학생으로 선발된 10명의 장학생에게 각 50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사장 상봉 스님은 “장학생들이 송담 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나라 발전과 불교계에 큰 역할을 해주는 인재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오늘 자리한 학생들은 ‘송담 스님 장학’의 장학생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학업과 불교 신행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중일 기자

반갑다연우야, 마하위하라서 한방진료

60명에 침 치료…아동복 선물도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정원주·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산하 반갑다연우야 봉사단(단장 이민아)이 4월 13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스리랑카 법당 마하위하라 사원에서 한방진료 봉사를 진행했다.〈사진〉

스리랑카 대표 명절 ‘아룻 아우룻따’를 맞아 열린 이번 봉사는 한의사 불자연합회 소속 의료진 5명을 포함해 20여 명의 봉사자가 함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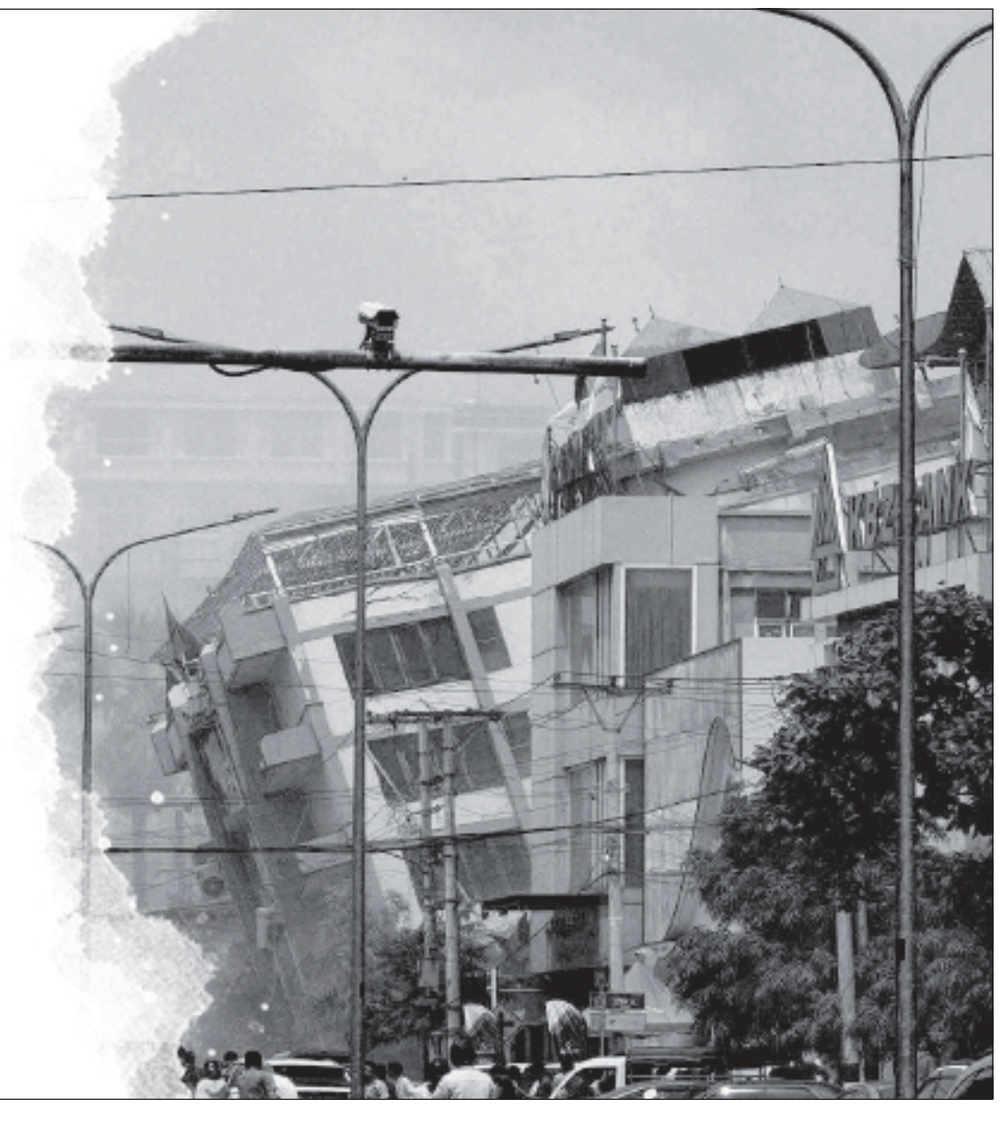
봉사단은 마하위하라 사원을 찾은 스리랑카 이주민 60여 명에게 건강상담과 침·뜸 등 한방 치료를 펼쳤고, 어린이들에게는 아동복을 선물했다.

김내영 기자

미얀마 강진 피해,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생필품이 절실합니다

지난 2025년 3월 28일,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치명적인 대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려 당장 생명에 위협을 받는
지역주민들에게 생필품(식수, 라면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로터스월드
미얀마 강진 피해 주민 긴급구호 캠페인
후원계좌 : 농협은행 301-0058-7941-81 (사)로터스월드
홈페이지 : www.lotusworld.or.kr 후원문의 : 02-725-4277



대형 산불, 사찰림이 위험하다

불교환경연대 '쟁점 토론회' 현장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방대한 영역의 산림이 불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천년 고찰 의성 고운사와 운람사 등 6곳의 사찰과 문화유산도 피해를 입은 가운데,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 산하 녹색불교연구소(소장 유정길)가 4월 11일 사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인 사찰림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장에서 논의된 쟁점과 전문가 제언을 소개한다.



홍석환 부산대 교수



윤여창 서울대 명예교수



불교환경연대 산하 녹색불교연구소는 4월 11일 사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인 사찰림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석환 부산대 교수(조계종 환경위원)는 활엽수를 베어내고 화재에 취약한 소나무만 남기는 현재의 사찰림 관리 방식이 화재 피해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사진(왼쪽 · 오른쪽)은 송광사 사찰림의 모습. **사진 제공=홍석환**

여수령 기자 · 박수현 수습기자

이번 영남 지역 산불로 사찰과 사찰림이 산불에 매우 취약한 구조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녹색불교연구소가 4월 11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대형산불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기후위기 쟁점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 사찰림 관리의 문제점을 짚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가 산림 정책과 사찰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적인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찰림 정책, 전면 재고해야"

이날 '숲과 산불, 사찰숲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 홍석환 부산대 교수는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활엽수 제거와 소나무 위주의 조림 정책, 화재 시 불길로 이어지는 임도 등 주요 쟁점을 다시 한번 짚었다.

홍 교수는 "산불에 가장 많은 대책을 마련하는 곳이 사찰이다. 그런데 고운사와 운람사가 전소되다시피 했다. 그렇다면 그간의 사찰 산불 전략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나무 위주로 조성되는 사찰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교수는 "이번 산불에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본 지역의 96%가 소나무림이다. 문제는 소나무 밑의 활엽수를 전부 제거하는 사업이 매년 사찰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햇빛이 바닥까지 들어 건조해지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해인사 홍제암, 숭림사, 신륵사 등의 사찰림 현황을 사진으로 제시했다. 그는 "불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종교인데, 오히려 사찰에서 자연의 흐름을 막는 조림 사업이 이뤄지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임도가 산불 피해를 키운다고도 주장했다. 홍 교수는 "그간 '숲가꾸기 사업'으로 설치된 임도를 타고 산불이 번져나갔다. 이번 산불 피해 현장은 임도가 필요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산림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사찰림 관리 방식을 전면 재수정하지 않는 한 이런 산불 사태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사찰림 관리권, 정부서 사찰로 이관"

주제발표를 맡은 윤여창 서울대 명예교수 역시 현재의 사찰림이 화재에 취약한 구조라는 것에 동의하며 "사찰림의 관리권을 정부에서 사찰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건강한 숲이 산불에 잘 견딘다. 그런데 사찰림 대부분은 화재에 취약한 소나무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숲으로 가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 예방을 위해 △건조기 입산 금지 △입산 신고 △주민산림보호계약제 도입을 제안하고 "사찰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사찰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숲을 지키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찰림 관리권 이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교수는 "1967년에 국립공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주요 사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고, 국가가 국립공원 정책을 주관하면서 사찰의 자율권이 사라졌다"고 지적하고 "한 사찰 주지스님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허가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그는 "단위 사찰과 교구본사, 종단 차원에서 사찰림을 관리하는 조직이 부재하다. 조계종단 차원에서 사찰림 관리권 이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침엽수-임도가 피해 키워" VS "임도는 숲의 혈관"

전문가들 "조계종, 사찰림 정책 논의 시작해야"

"침엽수-임도 논쟁 검토 필요"

침엽수 위주의 조림과 임도가 산불 피해를 키운다는 주장에 대한 다른 의견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나선 장영환 조계종 사찰림연구소 사무국장은 "소나무가 산불에 취약한 것은 맞지만, 이번 산불 피해 사찰림을 분석해 본 결과 소나무가 식재된 면적은 예상보다 넓지 않았다. 소나무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도 논란에 대해서는 "사찰림은 대개 외진 곳에 있어 산불 발생 시 진입과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친환경적·목적형 임도는 산불 초동 대응, 병충해 방제, 진화 후 재발화 점검 등을 위해서 필요한 '숲의 혈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찰에서 문화재와 인접한 구역에는 최대한 나무를 심지 않고, 산림청에서는 '대형 산불 타워'를 설치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도 "산불에 취약한 사찰림 소나무숲을 혼효림 또는 활엽수림으로 전환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소나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과 송이 채취 등 실질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또 숲 생태 전환을 위한 방법과 적용 범위, 관리 수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합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윤호 백두대간숲연구소장은 "침엽수림의 조성 과정과 원인을 따지기보다 현재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집중되어야 한다"며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사찰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지역을 선정하고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공론화 테이블 절실"

일부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찰림 보호를 위한 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전문가들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은 "이번 대형 산불을 통해 드러난 재난 대응 시스템과 산림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론화 테이블 마련이 절실하다"며 "조계종 차원에서 정부에 공론장 마련을 제안하고, 국회가 이를 수용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길 녹색불교연구소장은 "사찰림과 산림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피해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사찰은 산림청이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사찰림을 보호하고 산불로부터 사찰을 지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불교계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사찰림 정책에 대한 협의와 공감대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불교환경연대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2025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5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을 공고합니다.

신청 자격

1.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2.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 단, 종단 미등록 사찰 · 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신청 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모바일앱(Play스토어) <내곁에 국민연금> 설치 ▶ 로그인(간편인증) ▶ 우측상단 증명발급 선택 ▶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 선택 ▶ 화면 맨 하단 팩스발급 선택 ▶ 팩스번호 입력 후 확인 선택 ▶ 요청하신 팩스번호로 발급 완료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발급
   3)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방문 발급
   4)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전화신청(팩스로 받을 수 있음)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3. 지원절차 :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 → 지원금 입금(상반기 7월, 하반기 12월 지원 예정)

보험료 지원중지 대상자

1.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미제출된 스님

※ 신규 지원신청하신 분들은 차기년도부터 해당되며, 기지원자 스님은 보험료 납부종료 시까지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지원 혜택이 가능함

2.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된 스님
3. 분한신고미필 및 결계 미등재 스님
4.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 스님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종료된 스님
6. 보험료 미납하신 스님
7. 군 복무 중인 스님
8. 기타

※ 위 항목에 해당되시는 스님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중도에 변동사항 발생 시 꼭 승려복지회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 1인당 월 36,000원(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문의처

1. 문의처 : 02-2011-1980~1, 1726~7
2. 기 타 :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게재

불기2569(2025)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덕 림

“계율 공덕, 어떤 수행보다 수승”

범어사, 4월 11~12일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1300명 참석
120년 넘게 청정계단 법맥 계승
정여 대종사 “함께하는 보살되길”
동산 율맥 계승, 한국 불교 뿌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금정총림 범어사는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보제루 금강계단에서 제125회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120년 넘는 세월 동안 청정계단의 맥을 이어온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림이 올해 125회를 맞아 전국 불자들의 서원과 수행의 장으로 장엄하게 봉행됐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4월 11~12일 경내 보제루 금강계단에서 ‘제125회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수계산림에는 7000여 명의 불자가 접수했고, 현장에는 안국선원과 범어사 말사 소속 불자 13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번 산림에서는 금정총림 율주 범석 수불 대종사가 전계대화상을 맡아 법석을 증명했으며, 갈마아사리는 금곡 화봉 스님, 교수아사리는 삼현 원창 스님이 각각 담당했다. 존증아사리는 산해 정오, 대해 일광, 이산 법안, 취암 공마, 법해 용학, 지금 목종, 고담 도경 스님이 각각 맡아 계단의 위의를 갖췄다.

수계산림은 첫째 날 오전 천수다라니와 노사나불 정근으로 시작됐다. 이어 주지스님 인사말과 전계사 스님의 심지법문, 사시마지 축원이 진행됐다. 오후에는 갈마아사리 스님이 십중대계를 설하는 보살계 법문을 통해 계율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둘째 날은 교수아사리 스님이 ‘사십팔경구계’로 보살계의 정신을 일깨웠으며, 수계식과 계첩 수여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공덕보다도 이번 보살계에서 얻은 공덕이 더 수승하다”고 찬탄하고 “이 공덕은 나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사회, 모든 존재들에게 회향되는 보살의 서원”이라고 강조했다.

주지 정오 스님은 “이처럼 청정하고 장엄한 계단을 원만히 회향하게 된 것은 수계자 모두의 간절한 발심과 수행정진, 그리고 여러 인연의 정성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 “ 수계산림을 통해 많은 이들이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고, 보살의 서원을 세우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세운 서원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올해로 125회를 맞은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림은 한국불교 역사상 가장 오래도록 유지·전수된 계단으로 꼽힌다. 그 시작은 1901년, 중국 법원사 만하 스님의 계맥을 이은 성월 스님이 금강계단에서 수계의식을 봉행하면서 비롯됐다. 계맥은 일봉, 운봉, 영명 스님을 거쳐 동산 스님에게로 이어졌다.

특히 동산 스님은 1826년 지리산 칠불선원에서 대은 율사로부터 서상수계를 받고, 금담·초의·범해·선곡·용성 스님에게로 전해진 ‘칠불맥’을 함께 전수해 일봉 계맥과 칠불맥 두 전통을 함께 이은 율사다.

범어사에 따르면 두 계맥을 계승한 동산 스님의 법맥은 석암·고산·수불 스님으로 이어져 오늘날까지 범어사 수계산림의 전통으로 계승되고 있다.

동산 대종사 열반 60주기…추모행사 잇따라

범어사, 학술세미나 · 추모재 등
6월 29일까지 ‘감인대도’ 전시도

동산 혜일 대종사〈사진〉의 수행 정신과 불교 정화의 뜻을 계승하기 위한 열반 60주기 추모행사가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에서 거행됐다. 추모행사는 학술세미나, 추모재, 특별기획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첫 행사인 학술세미나는 4월 18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근현대 불교에서의 범어사 위상’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의 기조강연에 이어 △동산 스님의 법맥과 전법 △일제강점기 선학원 설립과 범어사의 역할 △정화운동과 유묵의 가치 등 다양한 주제가 발표됐다. 특히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동산 스님의 유묵을 중심으로 한 특별발표를 통해 예술과 함께한 수행자의 삶을 풀어냈다.

동산 스님의 열반일인 4월 20일에는 범어사 보제루에서 추모재를 봉행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4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관내 2층 기획전시관에서 동산 스님 열반 60주 기념 특별기획전 ‘인내로 열린 길, 감인대도(堪忍待道)’를 개최한다. 전시는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가운데 마침내 길이 열린다’는 의미를 담은 ‘감인대도’를 주제로 스님의 삶을 세 갈래의 여정으로 나눠 조명한다.



무엇보다 이번 전시는 성보박물관 신축 후 처음으로 실감영상관을 통해 스님의 유묵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아트를 선보이며 관람객의 감각적 몰입을 유도한다. 디지털 연등에 편지를 띄우는 관람객 참여형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정오 스님은 “이번 추모행사는 동산 스님의 정신을 오늘의 삶 속에서 되새기고, 수행자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찰하는 시간이 됐다”며 “범어사는 앞으로도 스님의 뜻을 이어 수행과 교화, 문화의 장으로서 그 사명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곳곳에 ‘자비의 등불’ 밝히다

삼광사 · 남구 등 점등식 봉행
“국가와 국민의 안녕 기원”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부산 전역에서 봉축 점등식이 장엄하게 봉행됐다. 삼광사를 비롯해 부산 진구·남구·사상구·해운대구 등에서 자비광명의 등불을 밝히며 사회 곳곳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길 기원했다.

부산 삼광사(주지 용암 스님)는 4월 12일 경내 지관전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점등식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해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염원했다. 덕수 스님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뜻을 바로 깨달아 모든 생명이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는 발원으로 오늘 등불을 밝힌다”고 설했다. 주지 용암 스님은 “오늘부터 부처님오신날까지 전하는 이 빛으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을 새기며 진정한 불제자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부산진구불교연합회(고문 혜총 스님)는 4월 16일 부산 서면 영광도서 앞 광장에서 봉축 점등행사를 개최했다. 혜총 스님은 “등불은 무명의 어둠을 밝히는 지혜와 자비의 실천”이라고 강조했으며, 행사 말미에 불교계 종사자 자녀에게 장학금도 전달했다.



부산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 스님)도 4월 16일 부산남부경찰서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며 경찰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지원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찰과 자비로 시대를 이겨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부산사상구경승위원회(실장 성문 스님)도 같은 날 사상경찰서 1층 로비에서 봉축 점등식을 열고 사상구민의 평안과 안전을 기원했다. 성문 스님은 “사상경찰서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경찰서 내에 법당이 있는 곳”이라며 “이 자리가 희망이 다시 꽃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부산해운대구불교연합회(회장 목종 스님)는 4월 11일 해운대 구남로에서 봉축 점등식을 열었다. 목종 스님은 “오늘 밝힌 봉축탑이 해운대 주민과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위로의 빛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불교환경연대, 생태교육 지평 넓히다

해운대관광고와 녹색학교 협약
플라스틱 사용 감축 등에 동참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 스님)가 해운대관광고(교장 박경흠)와 ‘녹색학교 협약식’을 체결하며 지역 내 생태교육 네트워크의 지평을 넓혔다. 이번 협약은 불교계를 넘어 비종립 사립학교와의 첫 공식 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식은 4월 11일 부산 해운대관광고 3층 아람뜰에서 진행됐다.〈사진〉 행사에는 안도 스님과 박경흠 교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교직원, 학생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운대관광고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플라스틱 사용 감축,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빈 그릇 운동’,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 등 녹색학교 실천 항목에 동참하게 된다. 나아가 환경교육 활동, 생태 명상, 청소년 기후행동 프로젝트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안도 스님은 인사말에서 “환경문제는 인류가 직면한 재난이자 전 지구적 화두”라며 “인간이 만든 재앙은 인간이 해결해야 한다. 자연과 생명을 향한 불교의 자비 정신을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경흠 교장은 “학생들이 환경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일상에서 지속 가능한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과 함께하는 생태교육의 좋은 본보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창립한 부산불교환경연대는 금정중, 해동중 등 불교계 종립학교를 중심으로 녹색학교 사업을 펼쳐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월정사, 화엄선사·명상문화원 개원

4월 12일, 개원법회 봉행
명상 힐링 프로그램 다양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가 원주 지역 포교를 책임질 포교당과 명상문화원을 개원했다.

월정사는 4월 12일 화엄선사 대웅전에서 ‘원주포교당 화엄선사·명상문화원 개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성불원 주지 현각 스님, 구룡사 회주 적천 스님을 비롯해 원강수 원주시장, 조용기 원주시의회 의장 등 700여 명이 동참했다.

정념 스님은 법문에서 “화엄선사와 명상문화원은 분별심을 내려놓고 긍정의 자세로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게 하는 도량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현각 스님은 치사를 통해 “바른 생각이 없으면 길을 잃는다. 화엄선사가 바른 생각과 바른 길을 여는 도량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화엄선사와 함께 개원한 명상문화원은 2층 규모로 카페와 명상 공간으로 구성됐다. ‘엠사이트(Meditation·Silence·Insight·Truth·Enjoyment) 힐링 플랫폼’을 표방하는 명상문화원에서는 화엄선 명상, 싱잉볼 소리 명상, 선 요가, 문화사 강의, 단청 그리기 치유, 자연 운동 치유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명상문화원 개원을 축하하며 참석 대중이 테이프 컷팅을 하고 있다.

양양불교사암聯, 봉축점등식 봉행

4월 11일, 600여 대중 동참

양양불교사암연합회(회장 득우 스님)가 4월 11일 낙산사 대형주차장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법회’를 봉행하고 양양군민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했다.〈사진〉

점등법회에는 양양불교사암련회장 득우 스님(진전사 주지), 낙산사 주지 일념 스님, 낙산사 부주지 법인 스님을 비롯한 사암연합회 회원 스님들과 박동수 양양군 부군수, 이종석 양양군의회 의장 등 6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득우 스님은 “우리가 밝히는 연등에 담긴 염원이 부처님께 닿아, 모든 고통이 소멸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화합의 부처님오신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낙산사 주지 일념 스님은 “오늘 밝히는 등불이 어지러운 사회를 비추는 지혜와 희망의 기운을 전해주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고운사 등에 기금

4월 12일, 운람사 · 대곡사 등 순례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송재린)이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찰을 찾아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부산포교사단은 4월 12일 사찰순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와 운람사, 대곡사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고 복구 기금을 전달했다.〈사진〉 화마로 소실된 고운사에는 300만원, 운람사에 200만원을 각각 전달하며 회복과 재건을 응원했다.

송재린 단장은 “사찰 순례는 단순한 방문이 아닌 불자 간 연대와 나눔의 실천”이라며 “특히 이번 순례는 산불 피해 아픔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여정이었다”고 밝혔다.



기금을 전달받은 고운사와 운람사 측은 “따뜻한 정성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신속한 복구와 정상화를 통해 도량의 기능을 회복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국불교선교종, 세계평화 기원 수륙대재

4월 6일, 경주 감포 바다서

사단법인 한국불교선교종(총무원장 범각 스님)이 4월 6일 경북 경주시 감포읍 바닷가에서 ‘국태민안과 세계평화 기원 수륙대재’를 봉행했다.〈사진〉

수륙대재에는 종정 경보 혜만 대종사, 총무원장 범각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들과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법고무로 시작된 수륙대재에서는 수륙고혼을 달래는 살풀이와 지전무가 이어졌고, 극락무와 장엄염불로 마무리됐다. 총무원장 범각 스님은 법문을 통해 “전쟁과 재난으로 세계 곳곳이 죽음과 고통에 휩싸이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불자들은 자비심과 연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륙대재는 유주무주 고혼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함과 동시에 살아있는 우리들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는 귀한 의식”이라며 “불교정신의 회복과 실천을 통해 이 땅에 다시금 희망이 피어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적인선사탑, 곡성 지역 첫 국보로 '우뚝'

태안사 · 국가유산청 기념식
각초 스님 "지역 위상 높여"
"통일신라 대표 승탑" 평가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태안사 적인선사탑 국보 승격 기념식에서 태안사 주지 각초 스님이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에게 국보지정서를 전달받고 있다.

전남 곡성의 대표 불교문화유산인 태안사 적인선사탑이 국보로 승격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곡성 태안사(주지 각초 스님)는 4월 15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적인선사탑 국보 승격 기념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곡성 지역 첫 국보 지정을 축하하고, 불교문화유산의 위상을 고양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과 부주지 우석 스님, 향일암 주지 연규 스님을 비롯한 화엄사 본말사 주지스님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주순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 조상래 곡성군수, 권향엽·신장식 국회의원, 강덕구 군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국보 '태안사 적인선사탑'은 통일신라 고승 적인 혜철 선사의 사리를 봉안한 승탑으로, 861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높이 3.17m의 팔각원당형 석조탑으로 기단에서 상륜부까지 거의 완전한 상태로 보존돼 있다. 특히 지붕 모양을 형상화한 옥개석과 처마 곡선의 조형미, 섬세한 문양 조각은 통일신라 조각기법의 절제미를 보여준다.

이날 기념식에서 태안사 주지 각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적인 혜철 선사 조륜청정탑의 국보 승격은 모두의 염원이 모인 소중한 결실"이라며 "이번 승격을 계기로 남북 화합과 국민통합을 기원하며, 유산 보존과 향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기념사에서 "통일신라 대표 승탑으로는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탑과 태안사 적인선사탑이 있다. 이 중 태안사 적인선사탑은 상층부까지 완전하게 보존된 매우 희귀한 형태로, 조형성과 역사성 모두에서 국보로서 손색이 없다"고 평가하며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지역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불교 및 지역단체장의 축하도 이어졌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축사를 통해 "이번 국보 지정은 태안사가 전통불교문화를 온전히 간직한 문화도량임을 알리는 희소식"이라며 "각초 스님의 정진으로 사찰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거점 도량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조상래 곡성군수도 축사를 통해 "곡성군의 첫 국보 탄생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적인선사탑을 널리 알리고 보존과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최 청장은 각초 스님에게 국보 지정서를 전달했으며, 태안사에서는 국보 승격에 기여한 안선호 교수와 김기표 교수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울산 태화강, 부처님 광명으로 밝힌다

4월 25~27일 태화강연등축제
봉축법요식, 음악회 등 '다채'
27일 연등행렬로 축제 대미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울산 태화강연등축제가 울산광역시불교종단연합회(회장 혜원 스님) 주최로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 둔치 일원에서 열린다. '야광명(夜光明)'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체험형 불교문화축제로 진행된다.

4월 25일 개막식에는 태화영산회의 '태화사 부처님' 이운행렬 재현을 시작으로 봉축법요식과 봉축음악회가 진행된다. 봉축법요식에는 울산지역 스님들과 내외빈이 참석해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긴다. 이어 열리는 음악회에는 뉴진 스님(개그맨 윤성호)과 고정우, 나상도, 정해은 등이 출연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4월 26일에는 명상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오후 3시 '붓다어게인' 명상 콘서트에는 인디 뮤지션과 명상음악가들이 출연하며, 오후 8시부터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달빛걷기대회가 열린다. 걷기 참가자에게는 행렬등이 제공되며, 태화강을 따라 장엄한 빛의 물결을 연출한다. 이어 포시크루가 출연하는 '힙한 불교, 힙한 울산' 퍼포먼스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4월 27일에는 오후 6시 30분 폐막식에 이어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제등행렬이 진행된다. 태화강을 출발한 행렬은 공업탑로터리를 지나 울산대공원 동문까지 이어진다.

이와 함께 축제 기간 동안 현장에는 아로마·소리·시·선 등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을 비롯해 불교 굿즈 플리마켓, 중소기업 우수상품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혜원 스님은 "빛과 명상, 그리고 밤이라는 세 요소를 결합한 '야광명'은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시민 일상 속에서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징"이라며 "울산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대화합의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052-266-3318

성낙두 경남지사장

"진각 국사 자비·화합 정신 계승"

진각국사 탄신 847주년 다례
4월 10일 전남 화순문화원서

고려 제2대 국사이자 화순을 대표하는 선지식 진각 국사 혜심(眞覺國師 慧諶, 1178~1234) 스님의 탄신 847주년을 맞아 추모 다례재가 봉행됐다.

(사)진각국사선양회(대표 대현 스님)는 4월 10일 전남 화순문화원 강당에서 '제20회 진각 국사 탄신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행사에는 선양회 대표 대현 스님을 비롯해 이호범 화순군 부군수, 류영길 화순군의회 부의장, 임지락 전남도의원, 임영택 화순문화원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대현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진각국사는 고려 무신 정권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백성을 위한 수행과 포교에 헌신하신 선지식"이라며 "진각국사의 숭고한 수행정신과 소통, 화합의 가르침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음을 치유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를 대신해 축사를 전한 이호범 부군수는 "화순에서 태어나신 진각 국사 혜심 스님은 고려 국사로서 왕에게 혜안을 제시하고, 분열된 불교계를 화합시켜 고려의 부흥에 기여한 위대한 스승이자, 화순의 자랑스러운 인물"이라며 "이번 다례재가 진각 국사의 포용과 자비의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임탁진 사무국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다례재는 단순한 의례가 아닌,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새기고 실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일상 속 작은 수행이야말로 진각 국사의 가르침을 잇는 길이며, 이는 곧 불법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월인 스님 "세상 밝히는 군불자 되길"

승가종, 논산훈련소 수계법회
1600여 장병, 불자로 거듭나


승가종은 4월 5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장병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호국연무사 법당에서 열린 이날 수계법회는 승가종 종정 화산 월인 스님을 계사로 진행됐다.

월인 스님은 수계법문을 통해 "계율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라며 "스스로를 바르게 다스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수행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계식 이후 월인 스님과 복천암 주지 무착 스님은 호국연무사 주지 진오 스님에게 군포교 활동을 위한 금일봉을 전달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합천 해인사, 산청 산불피해 기금 전달

4월 10일 산청군청서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가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 지역 주민 돕기에 나섰다. 해인사는 4월 10일 산청군청 군수 접견실에서 성금 7000만 원과 백미 5톤을 산청군에 기탁하며,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사진〉

주지 혜일 스님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전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앞장서 연대의 손길을 건네주신 해인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서산 개심사, 제2회 개산 괘불예술제

개심사 개산 1371주년 맞아


서산 개심사(주지 혜산 스님)는 개산 1371주년을 맞아 4월 12일 경내에서 '제2회 개산 괘불예술제'를 개최했다.〈사진〉

증명법사로 참석한 우송 달하 스님은 법어를 통해 "관세음보살을 한 번만 불러도 마음이 정화된다. 호명 그 자체가 수행이며, 자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며 "개심사, 즉 '마음을 여는 도량'에서 괘불 앞에 선 모든 이가 스스로의 본성을 비춰보길 바란다"고 설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김해 동림선원 개원 7주년 기념법회

은암문화재단 5주년 겸해…장학금 전달도


김해 동림선원(주지 신공 스님)은 4월 12일 동림선원 3층 대법당에서 개원 7주년 및 (재)은암문화재단 설립 5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주지 신공 스님은 인사말에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도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서 (재)은암장학회는 지역 인재 6명에게 총 60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예산불교사암연합회 봉축 점등식

4월 11일 예산군청서


예산불교사암연합회(회장 효성 스님)가 4월 11일 예산군청 본관 입구에서 점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예산불교사암연합회장 효성 스님(향천사 주지)을 비롯해 최재구 예산군수, 윤승구 예산경찰서장, 강승규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도신 스님은 축사를 통해 "자비는 미움과 갈등을 녹이고, 연등은 어둠을 걷어내는 희망의 빛"이라며 "이 연등의 행렬이 예산을 넘어 사바세계를 밝히는 인연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설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정읍사암연합회 봉축 점등식

4월 11일 연지아트홀서


정읍불교사암연합회(회장 대원 스님, 내장사 주지)는 4월 11일 정읍 연지아트홀 광장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정읍불교사암연합회장 대원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연등은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밝힌 이 등불이 이웃과 지역사회에 희망의 빛이 되길 바란다"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비와 평화가 충만한 정읍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원 스님은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35사단 봉축 점등식

4월 12일 수계법회도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4월 12일 육군 35사단 호국충경사에서 군장병 수계법회 및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점등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 동참한 35사단 장병들은 전계아사리 경우 스님, 교수아사리 대원 스님, 갈마아사리 진성 스님으로부터 삼귀의계와 신도오계를 수지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군 장병들이 수계와 점등의 공덕으로 건강한 병영생활과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혜의 등불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 봉축위원회, 봉축 점등식

4월 12일 전주역 분수대서


전북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화평·진성 스님)는 4월 12일 전주역 앞 마중길 분수대에서 봉축탑 점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공동봉축위원장 진성 스님(태고종 전북종무원장)은 점등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국민 모두가 마음속 등불을 밝혀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발원한다"고 밝혔다. 공동봉축위원장 화평 스님(금산사 주지)은 봉축사를 통해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자비로 보듬으며, 상생을 실천하는 수행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보성사암연합회, 연등문화축제

4월 14일 봉갑사서


보성불교사암연합회(회장 각안 스님)는 4월 13일 보성 봉갑사 앞마당에서 '보성군민 화합한마당 연등문화축제'를 봉행했다.〈사진〉 송광사 주지 무자 스님은 법문에서 "보성군민과 함께 밝힌 연등의 작은 불빛이 모여 보름달처럼 세상을 환히 밝히기를 바란다"고 설했다.

보성불교사암연합회장 각안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3만 7000여 보성군민이 함께하는 이 자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로운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베트남 소신공양 '불멸 심장' 영구 봉안된다

베트남 불교승가협회 결의안 발표
1963년 소신공양 틱꽝득 스님 사리
은행금고 보관 후 20년 만에 공개
베트남 국립사원에 영구 봉안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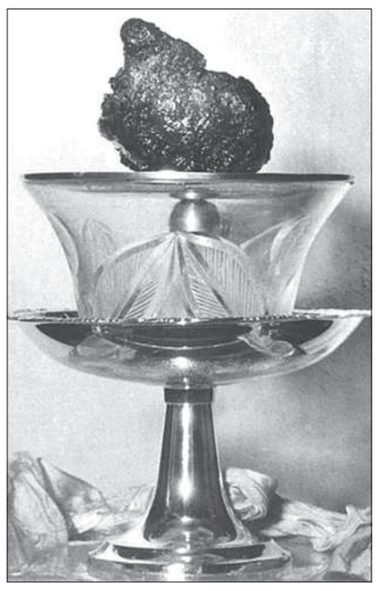
박영빈 객원기자

근현대 베트남 불교계의 위인이자, 소신공양으로 알려진 틱꽝득 스님의 심장사리가 호치민 국립 불교사원에 영구히 봉안된다. 지난 4월 4일 베트남 불교를 대표하는 베트남 불교승가(VBS)의 상임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현지의 '지악 응오 온라인', '베트남 뉴스' 등의 주요언론들이 대서특필했다.

틱꽝득 스님은 불교를 박해하던 남베트남 응오딘지엠 정권에서 박해를 멈추고, 정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박애와 자비를 베풀 것을 요구하며 1963년 6월 11일 호치민(당시 사이공) 거리에서 소신공양을 감행했다. 스님은 입적하는 순간까지 결가부좌를 풀지 않았고 해당 사건은 당시 베트남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끝내 남베트남 정부가 몰락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받는다. 소신공양 당시 틱광득 스님의 세수는 67세, 법랍 47세였다.

이후 스님의 법체는 다시 예를 갖춰 다비됐다. 사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오직 심장만이 불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불멸의 심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심장사리는 여러 차례 훼손 위기에서 벗어나 91년부터는 호치민의 국립은행 금고에 보관되고 있다.

4월 4일 오전 호치민에 소재한 국립불교사원의 종정실에서 진행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베트남 불교승가의 종정인 틱트리꽝 스님은 올해 호치민에서 열리는 'UN 베삭축제'에서 인도로부터 이운해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함께 틱꽝득 스님의 심장사리를 대중에게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베트남 국립은행에 보관중인 틱꽝득 스님의 심장사리. 시진출처=지악 응오 온라인

틱트리꽝 스님은 "UN이 지정한 부처님의 탄생, 성도, 열반을 기념하는 베삭데이를 베트남에서 기념하는 축제를 여는 것은 베트남 불교계에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면서 "VBS는 불교계를 위하여 소신하신 보살, 틱꽝득 스님의 심장을 불사리와 함께 공개하고 이후 심장사리를 국립 불교사원에 영구히 봉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틱꽝득 스님의 입적 후, 당시 사리 수습에 참여했던 VBS 부집행의장 틱 지안토안 스님은 "안전상의 이유로 틱꽝득 스님의 심장이 은행금고에 보관되었고 20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스님이나 대중이 이를 친견하고 공경을 올리지 못했다"면서 "심지어 보관된 금고의 문을 열어본 적도 없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다.

VBS의 상임위원회는 틱트리꽝 스님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해당 안건에 대하여 5개의 사항을 덧붙였다. 이는 심장사리를 은행에서 반환받기 위한 절차와 국립 불교사원에 봉안하는 내용에 대한 부칙으로 이후 VBS 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태국·네팔, 불교로 이어진 외교 66년

성지 순례로 경제 협력 확대
정신 유대 넘어 경제 결합 '눈길'


MOU 체결 후 기념 촬영 중인 태국 패통탄 친나왓 총리 부부(좌)와 네팔 샤르마 올리 총리 부부(우). 사진출처=더 네이션

태국과 네팔이 불교 유산을 축으로 양국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4월 2일 태국 영자신문 '더 네이션'은 태국과 네팔의 MOU 체결 소식을 전했다.

양국은 무역, 투자, 농업 등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를 중심으로 한 불교 관광을 핵심 연결고리로 삼아 정신적·문화적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태국 패통탄 친나왓 총리가 외교 수립 66주년을 맞아 네팔 샤르마 올리 총리 내외를 공식 초청하며 이뤄졌다.

양국은 매년 수천 명의 태국 불자들이 룸비니를 순례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강력한 불교적 인연이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단단한 기반임을 재확인했다. 정상회담에서는 관광 분야 중에서도 불교 성지 순례를 중심으로 한 공동 상품 개발, 기반시설 개선, 안내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실질 논의가 이뤄졌다.

태국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네팔의 수력 발전과 풍부한 약초 자원은 태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불교적 연대를 넘어서 실질적 협력 관계로의 진전을 강조했다. 이에 네팔 샤르마 올리 총리는 "우리는 룸비니의 평화정신을 기반으로 아시아 불교 공동체 간 협력과 연대를 실현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농업, 보건, 교육, 무역, 투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총 여덟 건의 MOU를 체결했다. 특히 불교 관광과 의료 관광을 접목한 '웰니스 순례' 모델은 양국의 문화 자산과 경제 전략을 결합한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대영박물관 '고대 인도, 살아있는 전통'展

종교 상징 · 철학 · 시각 진화 한눈
부처 형상 담긴 '금제사리구' 눈길


비마란 금제사리구, 아프가니스탄, 기원전 1세기. 사진출처=대영박물관

영국 런던 대영박물관이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전통의 정수를 담은 유물 180여 점을 선보이는 특별 전시, '고대 인도: 살아있는 전통'을 개최한다. 5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열리는 대영박물관의 특별전 소식을 4월 4일 영국 '이스턴 아이'가 전했다.

이번 전시는 약 2000년에 걸친 종교 예술의 흐름을 따라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의 신성한 이미지와 상징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집중 조명한다. 전시의 출발점은 '고요하고 자비로운 부처의 얼굴, 자이나교에서 모든 집착을 버린 해탈한 스승의 형상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에서 비롯된다.

특히 세 종교의 유물은 고대 인도의 예술 중심지 마투라(Mathura)의 작업장에서 제작돼 종교 간 양식적 공통점이 드러난다. 조형 언어, 장식 요소, 신성에 접근하는 방식에서도 공통점이 뚜렷해 세 종교가 분리된 교리 너머에서 문화적으로 교류해왔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적 전통이 해상 무역과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로 확산됐고 그 과정에서 인도의 성상은 각 지역의 신앙, 양식과 융합되어 다채로운 형상으로 재해석됐다. 불상과 힌두 신들의 지역별 변용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문화적 혼종성과 전통의 유연함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신자들로 구성된 자문단이 참여했으며 전시해설과 유물의 배치, 접근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박물관 측은 종교적 예절을 존중해 유물을 다룰 때 신발과 양말을 벗는 등 신중한 태도로 준비에 임했다.

전시에는 대영박물관이 보유한 방대한 남아시아 컬렉션뿐만 아니라 국내외 여러 기관과 커뮤니티에서 대여한 유물이 함께 공개된다. 모든 전시품은 출처와 맥락을 함께 밝히며, 소장 과정과 의미, 박물관의 해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전시의 대표작 중 하나인 '아르다나리쉬바라(Ardhanarishvara)'는 남성 신 시바와 여성 신 파르바티가 하나의 존재로 융합된 형상을 담은 회화다. 이 형상은 성별 이분법을 넘어선 존재의 통합성과 균형, 우주의 조화를 상징하며 불교적 중도 사상과도 통하는 철학적 깊이를 지닌다. 이와 함께 다섯 개의 머리를 지닌 뱀 신 나가(Naga)를 묘사한 17세기 명판은 오늘날까지도 살아 있는 민속적 신성성의 전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불교의 초기 표현은 부처님을 발자국이나 보리수 등 상징물로 나타냈으나, 시간이 흐르며 점차 인간 형상으로 구체화됐다. 약 1세기경 제작된 '비마란 금제사리구(Bimaran casket)'는 금속으로 된 부처 형상의 가장 오래된 사례 중 하나로 불교 이미지의 전환기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또 서기 8세기경 중국에서 제작된 부처의 비단 수채화는 불교가 문화적·예술적으로 국경을 넘어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다.

니콜라스 컬리넌 대영박물관장은 "'고대 인도: 살아있는 전통'은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의 신성한 이미지는 여전히 약 20억 명의 삶 속에 살아 있으며, 이는 단지 사원의 조각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제단, 스마트폰 배경화면, 거리 벽화, SNS 이미지 속에서도 신성함을 발산한다. 전시는 바로 그 '살아 있는 전통'을 오늘날의 맥락에서 다시 바라보는 기회"라고 전시 의미를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올 11월, 스페인서 만나는 불교

스페인 불교계, 11월 컨퍼런스
저명 테라와다 수행자 강연도


오는 11월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연례 불교 컨퍼런스.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스페인 불교계가 올 11월 마드리드에서 다섯 번째 연례 불교 컨퍼런스을 개최한다. 올해 컨퍼런스는 테라와다 전통의 다양한 수행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지난 4월 2일 국제불교 온라인 매체인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해당 소식에 대해 보도했다.

올해 개최지로 정해진 아리야 타라 안거 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마드리드에서 연례 불교 컨퍼런스를 개최함을 기쁘게 전한다"며 "특히 올해 컨퍼런스에서는 테라와다 불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전했다. 아리야 타라 안거센터의 주지 마리아 돌마 스님은 "이번 행사는 특히 네팔 여성교육에 힘써온 비스타레 재단의 후원으로 모든 참석자들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컨퍼런스에서는 스페인 위파사나 명상 협회 이사인 제롬 라르메르와 테라와다 삼림 불교 공동체 공동이사인 후안 마누엘 세라노 등 스페인의 저명한 테라와다 불교수행자들의 발표와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1982년 태국에서 붓다다사 스님에게 위파사나를 배운 라르메르는 '위파사나 명상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라르메르는 인도, 미얀마, 네팔, 태국의 수도원에서 수년간 생활한 후 1995년부터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위파사나 명상을 가르쳐 왔다. 2007년부터는 스페인 전역에 명상그룹을 만들고 조직하는 스페인 위파사나 명상 협회를 설립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일섭 스님 열반 50주기, 후학 佛母들 뭉쳤다

불교미술일섭문도회, '불모들의 향연' 문도전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서
118명 작가, 120여 점 선봬
일섭 스님 '제존집회도' 전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금용 일섭 스님(1900~1975)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금호 약효 스님, 보응 문성 스님의 전통을 계승한 한국 근대 불교미술 중흥의 주역이다. 일섭 스님의 화맥(畵脈)을 이은 후배 불모(佛母)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사)불교미술일섭문도회(이사장 전연호)는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제5회 불교미술일섭문도전 '불모들의 향연'을 개최한다.

일섭 스님 열반 50주기를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스님의 화맥을 계승한 후배 작가 118명이 참여해 1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회에서는 일섭 스님이 조성한 '제존집회도(諸尊集會圖)'가 전시돼 눈길을 끈다. 현재 순천 송광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제존집회도'는 일섭 스님이 1951년에 제작한 불화다. 이 불화의 특징은 범종교적 존상 구성에 있다. 도상에는 부처님과 보살, 팔부중 등 불교의 존상과 함께 관우, 성모마리아, 예수, 마호메트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 서양화, 판화기법까지 도상에 도입해 예술적 가치가 높은 불화로 평가받는다.

수안 스님, 허길량, 전연호 등 한국 불교미술을 이끄는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이번 전시의 관람 포인트다. 수안 스님은 '새벽별과 빈 발우(100.0×65.0cm, 지본, 채색)'을 통해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 발심 출가해 새벽별을 보고 깨닫고 빈 발우로 마을을 돌며 전법했던 부처님의 정신을 전한다.


근대불교미술 중흥을 이끈 불모 일섭 스님이 1951년 조성한 '제존집회도'. 부처님과 팔부중을 비롯해 관우, 성모마리아, 예수, 마호메트 등 각 종교의 성인들이 도상에 담겼다.

국가무형유산 불화장 이수자이자 대구시무형유산 단청장인 전연호 작가는 '천수관음도(159.0×113.0cm, 면본, 채색, 금니, 금박)'을 선보인다. 11면 관음보살과 관세음보살 42수주(四十二手呪)까지 표현한 이 작품은 검은 바탕에 금니와 금박에 채색을 더해 화려함을 강조했다.

국가무형유산 목조각장 송헌 전기만 작가도 작품을 출품한다. 청년기 때부터 목조 불상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전 작가는 50대에 이른 1970년대 스승 석정 스님을 만나 조선 후기 불교조각을 체계적으로 연구·구현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통 도상에 기반한 '목조지장보살좌상(79.0×64.0×94.0cm, 은행나무에 개금)'을 출품한다.

전연호 불교미술일섭문도회 이사장은 "불교미술을 계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회원들의 작품은 후학들에게 남길 또 하나의 발자취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전시회가 모든 불교미술인들에게 자긍심을 북돋우고 불교미술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불교미술일섭문도회는 조선 후기 대표 화승인 금호 약효 스님의 화맥을 이은 일섭 스님의 제자들로 이뤄진 우리나라 최대 불교미술단체로, 현역작가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 중 23명이 국가 및 시도무형유산으로 인정됐으며, 많은 회원들이 국가유산 수리기능자·기술자로 활동 중이다.

불교중앙博 '정토신앙' 2025인문학강좌 연다

5월 22일~6월 19일 매주 목요일

아미타불과 같은 부처나 미륵보살과 같은 보살들이 거주하고 있는 청정한 세계인 정토(淨土)로 나아가고자 하는 '정토신앙'의 면면을 조명하는 인문학강좌가 열린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 스님)은 "불교 및 인문학 전반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지식 제공과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불교중앙박물관 인문학강좌'를 시행한다"고 4월 15일 밝혔다.

'정토신앙: 치유와 평화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5월 22일부터 6월 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다.

강좌는 답사를 포함 총 5회의 강의로 구성됐다. 첫번째 강의로는 미탄 스님(동국대 불교학부 강사)이 '아미타 정토신앙의 수용과 전개'를 주제로 정토사상의 전래 및 전파과정 등을 조명한다. 제2강을 맡은 박은경 교수(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는 '정토 신앙과 불화'를 주제로 정토신앙이 전래된 이후 불화의 특징과 의미를 전한다.

제3강은 배재호 교수(용인대 문화유산학과)가 '정토신앙과 불상'을 주제로 불상의 등장과 변화과정에 대해 강의하며, 제4강은 이강근 소장(모란미술관 부설 모란미술연구소)이 '정토신앙과 사찰'을 주제로 정토신앙을 바탕으로 한 한국 사찰을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 제5강은 답사로 심주완 불교중앙박물관 종무관이 강사로 나선다.

수강 신청은 4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전화와 이메일(flower_pig@buddhism.or.kr)로 하면 된다. 수강료는 불교중앙박물관회 회원 5만원, 비회원 7만원이다. 수강생은 80명으로 선착순 마감된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정토신앙은 아미타여래의 본원력을 믿고 의지해 극락정토로 나아가는 깨달음을 얻는 신앙"이라며 "이번 강좌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행복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정토신앙을 소개함으로써 고통과 불안을 덜어내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02-2011-1967

신중일 기자

禪筆로 그려낸 문인화를 만나다

이상배 작가, '청초고아' 개인전
4월 22~28일 문경문화원서
전통 문인화 작품 38점 전시

불자 문인화가가 선(禪)적 필치로 그려낸 문인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한국문인화계의 중진인 심천 이상배 작가는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문경문화원 전시장에서 개인전을 개최한다.

'청초고아(淸楚古雅, 화려하지 않으면서 맑고 깨끗한 옛스런 풍치가 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개인전에는 작가가 1년여 동안 그린 38점이 전시된다.

문인화는 전문적인 화가가 아닌 사대부들이 그리던 그림이다. 그래서 문인화는 기법에 얽매이거나 세부 묘사에 치중하지 않고 그리고자 하는 사물의 내적인 면을 표현하고자 한다. 즉, 사의(寫意)를 중시하며 기교보다는 천진함, 간결함을 강조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상배 문인화가의 작품 '영세불심'.

이상배 작가의 기저에는 불교사상이 내재돼 있다. 어릴 때부터 이어진 불연(佛緣)의 영향으로 작가는 사찰의 현판, 주련, 상량문의 글씨를 쓰고 매년 사찰 달력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 작품 곳곳에 선적 요소가 묻어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실제 이번 전시의 대표작인 '영세불심(永世佛心)'에서는 작가의 깊은 불심을 확인할 수 있다. 작가는 "넓은 연못에 맑게 피어난 연꽃을 통해 영원히 이어질 부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에 대해 소병돈 대한한시학회장은 "문인화의 미(美)는 함축과 여운의 미학으로 이는 노장의 무위주의와 불교의 선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현대 문인화가 중에는 이 같은 미학을 이상배 작가가 잘 드러낸다"면서 "이번 전시는 온고지신(溫故知新)·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으로 현대 문인화를 새롭게 구현하려는 작가의 노력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심천 이상배 작가는 충남 청양 출신으로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하고, 아천 김영철 선생에게 사사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3회, 입선 2회, 대한민국현대서예문인화대전 대상, 특선, 대한민국문인화대전 특선 2회 등을 수상했다.

현재 문경시 지음재에 거주하며 한국문인화협회 부이사장, 아묵동인회 회장, 아시안캘리그라피협회 마스터·이사, 면암서화협회 이사, 문경불교문화연구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신중일 기자

동국대 작가들이 그려낸 '부처님 세계'

불일미술관 '필동그래피'展
이상록 등 동국대 동문 5인
서양화, 불화로 부처님 그려

동국대에서 서양화와 불교미술을 전공한 작가들이 자신만의 개성으로 부처님 세상을 그려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주지 진경 스님)는 4월 12일부터 4월 27일까지 경내 불일미술관에서 그룹초대전 'Pildong(筆同)graphy(이하 필동그래피)'를 개최한다.

필동은 작가들의 모교인 동국대가 소재한 곳으로 전시 참여 작가 이상록·유지선·신윤영·송금희·조민경은 모두 동국대에서 서양화와 불교미술을 전공했다. 각기 다른 전공의 작가들이 같은 붓(필동)을 들고 '판화'라는 기법으로 사제 인연을 맺고 부처님 세계를 그려 나간다는 의미도 전시 제목에 담겼다.

이상록 작가는 동국대에서 학생들에게 30년 동안 판화 수업을 지도했다. 판화작업으로 이미 일가를 이룬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미공개 동판 불화 8점을 최초로 선보인다. 유지선 작가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작업을 활발히 이어 가고 있다.


이상록 작가의 작품 'When that day comes'.

신윤영 작가는 전통 불화를 바탕으로 서양의 유화 기법을 접목한 독특한 작품세계를 펼치고 있으며, 동대부속가람고등학교 미술교사인 송금희 작가는 연잎, 연꽃, 불상을 소재로 한 작품을 대중에게 선보인다.

조민경 작가는 불교 도상에 이미지, 상징을 더하는 독특한 작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신중일 기자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및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종회소집 공고

삼보에 귀의하옵고 대한불교원효종은 1963년 7월 10일 원효대사 사상을 펴기 위하여 창립되었고 1963년 12월 6일 비법인사단 불교단체로 등록하였습니다.

1989년부터 이어온 분열을 종식하기 위하여 많은 세월을 인고한 결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비합 1의 선고 결정에 의해 종정 추대 및 총무원장 선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후보를 위한 중앙종회에서 종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결과 추대위원회를 구성, **2025년 4월 24일까지 종정을 추대합니다.**

아울러 2025년 4월 24일부터 4월 30일 17시까지 총무원장 입후보 신청을 받습니다.

종정 및 총무원장 선출 종회를 2025년 5월 1일 오후 2시 망월사서 개최하기에 이에 종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7일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총무원장 **일륜(김두환)**
종 회 의 장 **용일(김순석)**

문의 : 임시사무국장 박태우 010-5590-0009

세시간 염불도 거뜬 !

하던 내 체력! 이제는 30분 염불에도 무리가 오니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구나! .... 천만에!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마이크와 2m 멀리서 세시간 힘빠진 작은 염불 소리에도 장엄하고 신명 넘치는 소리가 법당과 사찰을 휘감는 특수염불마이크를 지금 소개합니다.

현장 테스트시 광고 내용과 추호라도 다르면 누구망신?!

마이크 : 이태리 성악전문 수입품(Schoeps Martin) **(마이크소리 테스트비용 한잔!)**

본품은 주문 및 방문판매만 함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마이크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신청하시면 신청들을 모아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귀 법당시설 마이크와 본사 견본 마이크 양손 비교시 장난감 수준차이 반드시 확인!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frac{1}{3}$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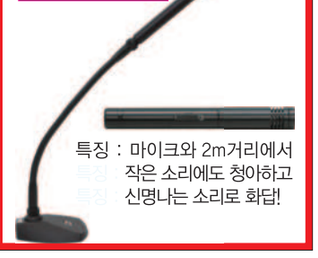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16~4/22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꽃비 오니 봄날이다	동은	조계종출판사
2	초역 부처의 말	코이케	포레스트북스
3	33관음 컬러링북	정기란	담앤북스
4	눈부신 하루를 시작하는 108 필사 명상	법상	조계종출판사
5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	정토
6	매일매일 채식밥상	홍승	담앤북스
7	진우스님의 금강경 강설	진우	김영사
8	우리는 왜 스님이 되었을까	인해, 명오	민족사
9	불교성전	불교성전편찬위원회	조계종출판사
10	동자승 컬러링100	용정운	조계종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진짜 나를 찾아라(맑고향기롭게30주년기념) 미공개강연록*양장	법정	샘터사
2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삼국유사	일연	보물창고
3	크리스천과 함께 읽는 금강경(양장)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4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목경찬	민족사
5	니까야로 읽는 금강경	이중표 역해	불광출판사
6	일상에서의 호흡명상 숨(빨리어 호흡관법경 강의)	래리 로젠버그/미산	한언
7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8	지장경을 읽는 즐거움	정현스님 지음	민족사
9	어싱: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10	불멸(3) 아무래도 아무렇지않은	이각	지혜의눈

"저는 셰프가 아니라 수행자입니다"



정관 스님 나의 음식

정관 스님 · 후남 셀만 지음
베로니크 회거 사진 / 양혜영 옮김
월북 / 2만4800원

사찰음식 명장 정관 스님의 첫 에세이

스위스 작가가 3년간 담아낸 일상과 레시피

"사찰음식은 '인생'이란 수행길 돕는 음식"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쌀은 그저 먹거리가 아니라 인연과 공덕의 매개체이며 수행의 원천"이라는 정관 스님이 공양미로 정성껏 밥을 짓는다. ©Véronique Hoegger 사진 제공=월북출판사



봄의 밝고 따뜻한 기운을 품은 나물과 지난해 가을에 말린 묵은 나물로 만든 초파일 비빔밥. ©Véronique Hoegger 사진 제공=월북출판사

"스님께 수행의 마음으로 요리에 임하는 방식을 배웠다. 정관 스님은 내게 영원한 선생님이자 요리의 어머니다." -국내 유일 미쉐린 3스타 식당(2025) '밍글스' 강민구 셰프

세계적인 셰프들이 '스승'으로 모시는 사찰음식 명장 정관 스님의 일상과 레시피를 담은 첫 책 〈정관 스님 나의 음식〉이 출간됐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셰프의 테이블' 출연 이후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스님은 "이름을 남기는 걸 원치 않는다"며 수많은 출간 제안을 고사해 왔다. 그런 스님의 마음을 돌린 이는 스위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작가 후남 셀만. 1997년부터 스위스의 주요 일간지에 한국 문화 관련 글을 기고해 온 그는 2017년 백양사 천진암으로 찾아가 스님을 취재하기 시작했다. 이후 스위스 출판사와 협업해 3년에 걸쳐 스님과 함께 글을 써 출간했고, 최근 번역을 마치고 한국 독자들을 만났다. 책은 출간 일주일 만에 7000부 이상 팔렸다.

1부 '정관 스님 이야기'는 후남 셀만 작가가 담아낸 정관 스님의 일상 이야기다. 천진암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선원 앞 탱자나무에서 열매를 거둬 탱자청을 만들고, 김장철이면 갖가지 김치를 담그는 스님의 모습이 사진과 함께 펼쳐진다.

이어진 인터뷰에서는 열일곱 살의 출가 이야기와 행자 시절 수행담, 사찰음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 등을 들을 수 있다. 특히 스님의 대표 음식이라 할 '표고버섯 조청 조림'에 얽힌 일화에 눈길이 머문다. 출가한 딸이 안타까워 사찰로 찾아와 '풀만 먹고 살 수가 있느냐'고 묻는 아버지에게 스님은 표고버섯 조청 조림을 만들어 드렸고, 그제야 "마음 놓고 간다"며 집으로 돌아간 아버지는 일주일 후 자는 듯 숨을 거두었다. 조림 음식에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것처럼, 수행에도 뭉근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 없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

책의 백미라 할 2부 '사찰음식 이야기'는 스님이 정리한 58개의 사찰음식 레시피를 소개하는 장이다. 전통을 따르면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식재료를 탐구하고 음식을 만드는 정관 스님의 노하우가 아낌없이 공개된다. 요리의 가장 기본이라 할 밥 짓는 법부터 두부 만드는 법, 장 담그는 법, 갖가지 장아찌와 청 만드는 법, 양념 갈무리하는 법까지 세세하게 안내한다.

"많은 사람이 제게 레시피를 물어봅니다. 하지만 저는 레시피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제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특별히 음식을 잘해서라거나, 숨겨둔 비결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기 때문일 겁니다. 이 책에 정리한 레시피를 법처럼 여기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보고 탐구해 보길 권합니다."

3부 '사계절 레시피'에서는 계절별 제철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을 소개한다. 각 계절에 가장 영양이 가득한 채소가 무엇인지, 식재료 고유의 맛과 풍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스님만의 노하우가 가득하다.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는 사진은 스위스 작가 베로니크 회거의 작품. 그는 천진암에서 정관 스님과 세 계절을 함께 생활하며 천진암과 스님의 일상을 앵글에 담았다.

정관 스님은 "사찰음식은 수행자가 내면의 고요한 평화를 찾고 깨달음에 이르도록 돕는 지혜의 음식이자, 인생이라는 수행길을 가는 누구에게나 더 좋은 삶을 살도록 돕는 음식"이라 정의하며 "여러분이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조율해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이라는 바람을 밝혔다.

새로 나온 책



승려시집 12권

승려시인회 엮음
차의세계 / 1만5천원

승려시인회(회장 진관 스님)가 '선차(禪茶)'를 주제로 꾸린 12번째 〈승려시집〉을 출간했다.

성우·청화·법산·대우·월강·혜자·진관·명안·무원·남륜·혜륜·현중·해성·지우·자흥·오심·선묘·범상·로담·도해·도명 스님과 지난해 등단한 공일 스님까지 22명 시인의 작품 201편이 담겼다. '선차'를 주제로 쓴 시도 각 한 편 이상 포함됐다. 승려시인회장 진관 스님은 "이번 선차 특집을 계기로 신라 무상 선사의 선다일여(禪茶一如) 다법이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승려시인회는 1971년 무산 오현 스님을 회장으로 창립했다. 1993년 〈승려시집〉 5권 '피안으로 가는 수레들'을 끝으로 활동을 멈췄다가, 진관 스님의 노력으로 2014년 6집을 발간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현재 시인으로 등단한 스님 37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칼의 사랑

송강 스님 지음
도서출판 도반
2만5천원

신문 연재와 방송을 통해 불교를 널리 알리고 있는 송강 스님(서울 개화사 주지)의 '영상 화두' 세 번째 책이다. '영상 화두'는 짧은 사진과 글로도 화두를 들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스님이 창안한 글 형식으로, 일상의 대화와 페이스북 등에 게재한 단상을 사진과 함께 담았다.

스님은 책 제목을 〈칼의 사랑〉으로 정한 이유를 "불교에서는 번뇌로부터의 속박을 끊는 도구를 금강보검 또는 반야보검이라 하는데, 이는 깨달음의 지혜를 상징한다"며 "단, 이 지혜의 칼은 큰 자비심의 발로에 의해서만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범어사불교전통강원과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한 송강 스님은 BBS불교방송과 BTN불교TV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불교신문에 '백문백답'과 '벽암록 맛보기' 등을 연재해 책으로 출간했다.



비베카난다의 명상

스와미 비베카난다 지음
김재민 옮김
지혜의나무
1만7천원

"스와미 비베카난다의 글은 분명 누구의 소개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 글들 자체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발산합니다." -마하트마 간디

인도 수행자이자 라마크리슈나의 제자, 스와미 비베카난다(1863~1902)의 명상에 대한 가르침을 그의 전집에서 일부 발췌해 두 부분으로 나눠 묶은 책이다.

첫 번째 '요가의 명상'에서는 집중의 중요성과 집중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그는 명상이 세 단계, 즉 다라나-디야나-사마디의 세 단계로 진행되며 세 단계 수행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궁극적으로 참나에 대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두 번째 '베단타의 명상'에서는 "온 우주는 하나이고, 내 안에 있는 참나는 궁극적 실재인 신과 동일하다"는 베단타 사상을 설명한다.



사찰 편백나무 맞춤가구 전문점

스님 건강, '편백가구'로 지킨다

편백(히노끼)나무 효능

편백나무는 항균효과가 뛰어나 세균번식에
가장 취약한 목욕 욕조를 비롯하여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침대 등 가구소재로 주로 사용된다.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데 이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편백나무는 일반나무보다 5.5배 가량 피톤치드가 많아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된다.

편백 온열 그래핀보료

신체 기(氣, Energy)를 충전하고 균형을 바로 잡는 초장파 에너지

건강하고 오래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
지친 몸과 스트레스를 수면과 함께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 피로 회복
- 근육 결림 해결
- 혈액 순환 개선
- 신경통, 근육통 완화
- 만성 피로 해소



편백침대





숙면이 보약
편백 숯침대



FINE TERRA



규조토 비누
'FINE TERRA'
절찬 판매
판촉용 대량구매시
70% 할인
향긋함과 함께~
기다려지는 세안~~
알파토 규조토 soap
민감성 피부에 도움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 4 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윤회는 불교인가, 아닌가?



윤회와해탈
이중표 지음
불광출판사 / 1만7천원

윤회와 해탈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
"윤회는 신앙의 문제…논쟁할 사안 아니다"
진정한 해탈에 이르는 길 제시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윤회는 있는가, 없는가?" "윤회는 불교인가, 아닌가?"

윤회가 '없다'고 하기에는 경전에 전하는 업(業)과 윤회에 관한 가르침이 생생하고, '있다'고 하기엔 무아(無我) 사상과의 충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 무아는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개념인데, 윤회가 있다면 무엇이 주체가 되어 윤회하는 것이냐는 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간 불교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여겨졌던 윤회를 둘러싼 논란에 이중표 전남대 명예교수〈사진〉가 답했다. 그는 최근 출간한 〈윤회와 해탈〉에서 "윤회는 '신(神)'과 '천국'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신앙의 문제"라고 정의하고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믿지 않으면 될 일이지 논쟁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의 답처럼 이 책은 '윤회는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대신 '불교는 윤회를 인정하는가, 아닌가'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한다.

"많은 사람들이 윤회설을 불교의 핵심 사상으로 알고 있고, 윤회설을 석가모니 붓다가 직접 가르쳤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윤회설은 붓다의 열반 후 오랜 시간을 거쳐서 아비달마불교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윤회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윤회설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저자는 책에서 윤회설이 생겨난 인도의 사상적 배경부터 윤회설이 불교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과정을 살피고, 경전을 바탕으로 윤회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과 해탈에 이르는 올바른 방법을 찾는다.

1장 '인도의 윤회사상'에서 저자는 〈상윳따니까야〉 등 초기경전을 예로 들면 "붓다가 윤회를 이야기한 것은 윤회설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윤회라는 생각 자체가 연기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사견(邪見)이므로, 연기법을 정견(正見)으로 삼아 사견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붓다가 직접 말하지 않았음에도 윤회설은 어떻게 불교의 핵심 사상이 되었을까? 저자는 "붓다가 깨달은 12연기를 삼세양중인과설(三世兩重因果說)로 해석한 아비달마불교에 기인한다"며 "아비달마불교는 윤회와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불교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붓다는 윤회한다고 가르치지 않았다'면 죽으면 그만이라는 것일까? 이에 대해 저자는 "생사는 중생들이 자아라는 망상을 고집할 때 나타나는 착각"이라며 "따라서 아상(我相)을 버리면 생사 윤회는 사라질 뿐, 죽어서 윤회할 자아도 없고 죽으면 그만인 자아도 없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여러 인연에 의해 살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불교의 연기설이며 무아설"이라고 설명한다.

'무아'의 개념도 짚었다. 붓다가 가르친 무아는 삶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삶 속에 존재한다고 믿는 허망한 생각, 즉 망상을 버리라는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또 '무아가 아니면 유아'라는 모순된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중도(中道)이며, 중도에서 연기하는 삶의 실상을 보아야 무아의 참뜻을 알 수 있다고 당부한다.

책에서는 '붓다가 말한 윤회'만 나열하지는 않는다. 윤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해탈'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진정한 해탈이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해탈에 이르는 수행법으로 '9차제정(九次第定)'을 제시한다. 9차제정은 중생들의 세간인 욕계, 색계, 무색계의 실상을 깨달아 세간에 대한 욕탐(欲貪)을 버리고 단계적으로 해탈에 이르는 수행법이다. 저자는 "불교의 해탈과 열반은 9차제정을 통해 삼행(三行)을 소멸해 8해탈을 성취함으로써 이뤄진다"고 강조한다.

이중표 교수는 호남불교문화연구소장, 범한철학회장, 불교학연구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불교 신행 단체인 '붓다나라'를 설립해 포교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인간 붓다〉 〈정선 디가 니까야〉 〈담마빠다〉 〈근본불교〉 〈현대와 불교사상〉 등이 있다.

학계 역량 결집한 한국 불교사 개설서



한국불교사:고대
불교사학회 엮음
한울아카데미 / 3만9천원

3부작 완간…불교사학회 첫 성과
44명 필진–62개 주제 담아낸 通史

불교사학회(회장 조명제)가 한국 불교사 통사(通史) 출간을 발원하고 추진해 온 '한국 불교사 개설서' 3부작이 마무리됐다.

불교사학회는 2023년 11월 〈한국 불교사: 고려〉, 지난해 6월 〈한국 불교사: 조선·근대〉에 이어 최근 〈한국 불교사: 고대〉를 출간함으로써 개설서 3권을 완간했다. 조명제 불교사학회장은 "44명의 필진이 모여 전체 62개 주제에 이르는 방대한 영역을 아우르며 한국불교 통사를 제시한 것은 학계에서 처음으로 이룬 성과"라 자평했다.

'한국 불교사 개설서'는 동아시아 불교사의 흐름을 읽어내려는 학제적 경향을 반영해 '시기별 불교사의 흐름과 불교계의 동향', '사상과 문화', '사회와 불교'라는 세 가지 주제로 큰 틀을 잡고, 나머지 글을 보론으로 묶는 체제를 택했다. 이로써 인물의 사상 체계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불교학'과는 다른 '불교사학'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또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논문 형식 대신 주제별 서술 방식을 택했다.

〈한국 불교사: 고대〉의 1부 '고대 불교사의 동향'에서는 그간 지리적·사료적 한계로 연구가 어려웠던 고구려 불교사의 흐름과 문화, 백제의 불교 수용과 한성·웅진·사비 시기의 불교와 사원, 신라의 불교 전래와 중고기의 시작, 불교와 토착 신앙과의 관계, 신라 중대 전제 왕권과 불교의 관계, 신라 하대 역사적 전환기의 사상 등을 다뤘다. 2부 '고대의 불교 사상과 신앙'에서는 불교와 대립하던 토착종교가 불교에 수용되는 과정, 원효와 의상, 동아시아 유식사상의 형성과 한국 유식사상의 전개, 정토신앙과 미륵신앙의 확산과 대중화 등을 살핀다.

3부 '고대 문화의 불교'에서는 고대 불상을 비롯해 석조미술, 사원 등을 사진과 배치도 등을 곁들여 설명한다. 보론에서는 고대 승관제도와 승정기구의 양상과 특징, 사리신앙의 기원과 사리장엄 사례, 문두루법으로 알려진 밀교의 시기별 양상과 학승의 활동, 발해 불교와 승려들의 활동을 조명한다.

여수령 기자

美 학자가 본 한국 불교미술



한국불교와 그 미술
존 카터 코벨 지음
김유경 편역
눈빛 / 3만3천원

〈한국불교와 그 미술〉은 미국 출신 미술사가 존 카터 코벨(Jon Carter Covell, 1910~1996)의 논문과 칼럼 115편을 모은 '코벨의 한국문화·미술사' 시리즈 두 번째 책이다. 한국불교미술사를 편년체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고려불화 △대장경과 인쇄술 △한국불교와 정치사 △한국불교의 선과 교 △불교와 무속 △관세음보살 △미륵신앙 등 저자가 다양한 주제로 쓴 글을 가려 모았다.

코벨은 "오늘날 한국의 국보 가운데 8할이 직접적인 불교 관련 미술품이거나 불교에 고취된 것에서 생겨난 것들이다. 그 엄청난 비중만 보아도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얼마나 깊이 있게 불교가 한국문화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짐작케 한다"고 말한다.

책의 가장 큰 주제인 '고려불화'는 미술사학자로서 코벨이 자신있게 분석한 분야다. 그는 1979년 일본에서 열린 '고려불화 특별전'을 통해 90여 점의 불화를 접한 것을 계기로, 모두 16편의 논문과 칼럼을 썼다.

고려불화를 '한국 회화의 정점'이라고 평가한 그는 "고려불화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화 자체가 중세시대 불교의 헌신을 말해주는 상징이자 법력 그 자체이며, 아름다움을 그에 부수되어 생겨난 것으로 알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코벨의 글을 우리말로 번역해 온 김유경 편역자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불교까지, 그 역사에서 만들어진 예술품에 대한 코벨의 분석은 깊은 철학과 사회사적인 통찰이 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특히 설악산 신흥사의 역사적 기원을 추적한 글이나 고려 홍법국사 부도탑 분석은 그의 불교미술 연구의 깊이를 잘 드러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책을 엮으며 직지사, 용주사, 송광사, 신흥사 등을 직접 방문해 글에 언급된 내용을 재확인하고 사진을 모았다. 코벨이 글을 쓴 시점이 40여 년 전이기에 오늘날 변화된 환경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한편, '코벨의 한국문화·미술사' 시리즈는 앞으로 도자기와 다도, 민화, 무속, 회화 등 6~7편이 더 출간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봉행

서각사 (참선 염불선원)
복장 점안 및 개원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만물이 소생하고 생동하는 꽃피는 계절을 맞이하여 불자님들께 도손 모아 합장 인사올립니다.
산승은 (사)한국불교약사회 총재 (사)한국효문화실천회
회장 대연각사(아미선원) 회주 진원 불일 승려입니다.
산승은 시절 인연따라 충남 부여군 규암면 수북정 앞 백마강이 유유히 흐르는 도심속에
새롭게 탄생하는 부처님의 전법 전당이 되어질 서각사(참선 염불선원)을
복장 점안 및 개원법회 알리고자 초청장을 전해 드립니다.
산승은 3년간의 불사 끝에 여러 대덕 큰스님들을 증명 법사로 모시고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미륵존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약사보살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포대화상 복장 점안 및 개원식 법회를 봉행 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많은 동참하시어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으시고 만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일시: 불기2569년 양력 4월25일 복장 ♠

❖ 본 행사 불기2569년 양력 4월26일 토요일 오전 ❖
■ 1부: 8시~9시 식전행사 (축하공연)
■ 2부: 9시~11시 점인 및 불공 천도법회
■ 3부: 11시~12시 증명법사 대한불교 조계종 암도 큰스님 법문

충남 부여군 규암면 수북로65 하성빌딩(3층) 서각사(참선 염불선원)
☎문의 : 041)835-3934, 010-7174-1711 서각사(참선 염불선) 선원장 진원 불일 합장
자비후원 : 농협 463143-51-009534 대연각사(아미선원)

♠주최: (사)한국불교약사회 총재 (사)한국효문화실천회 회장 ♠주관: 대연각사(아미선원) ♠후원: BTN 불교방송 특집방송 유튜브 방송 불일TV선명상 호국불교방송 세계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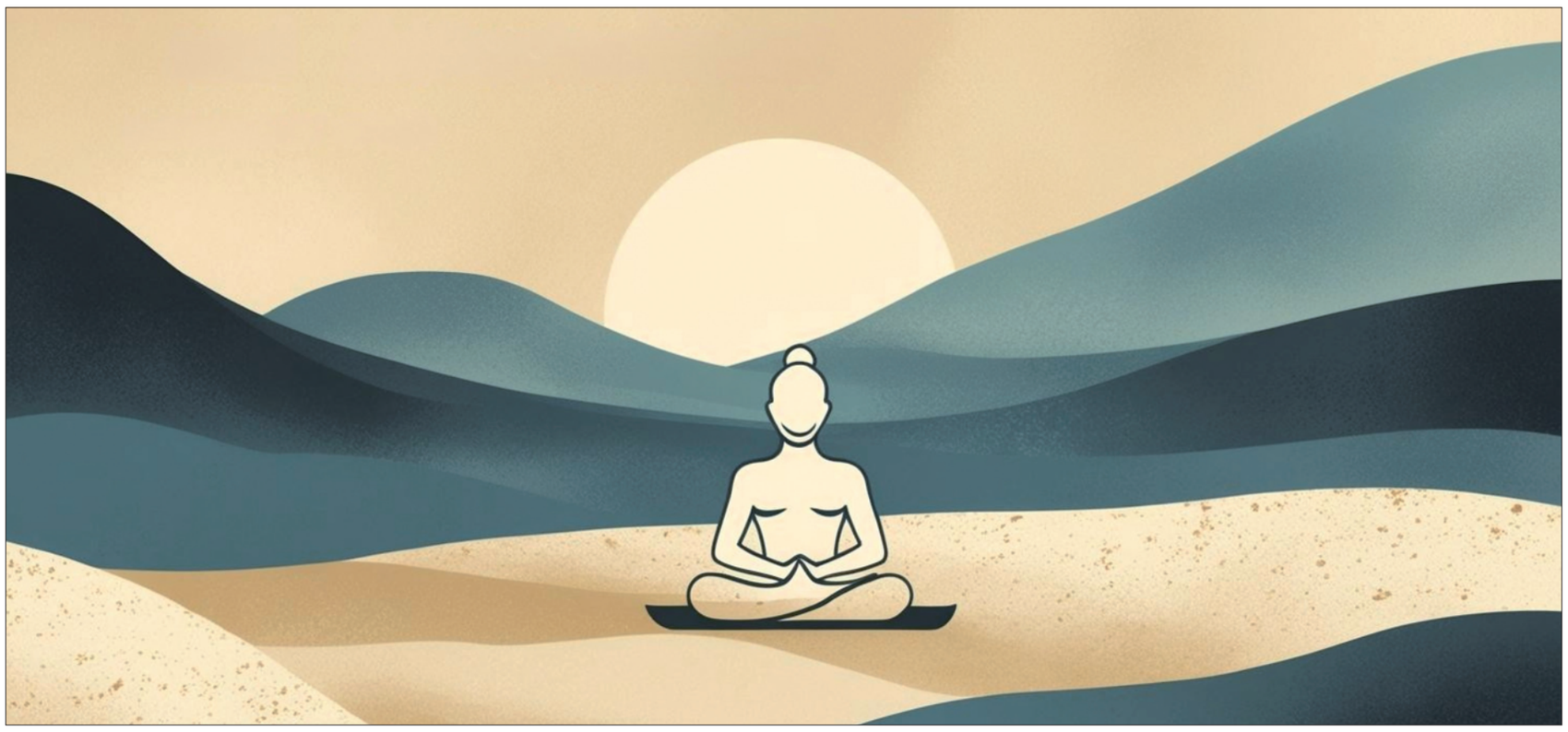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⑯ 화두를 놓지 말라



▶한줄 요약
간화선 수행은 번뇌 망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로, 우리의 분별된 마음을 통제하고 본래의 자성을 발견하게 합니다. 화두 하나에 집중하여 다른 모든 생각을 멈추고, 인연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간화선, 번뇌 망상 벗어나는 강력한 도구"

"
화두에 집중해 모든 생각 멈추고
인연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마음의 자유와 평화 얻을 수 있어
화두를 선택해 생활서 화두 들길
"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오늘의 명상]
"화두(話頭)를 놓지 말라."
화두에는 공(空)의 도리와 인과법(因果法)의 모든 진리가 들어 있나니
이를 알고 화두를 들면 괴로움의 원인과 집착이 끊어짐으로
일상에서도 화두를 절대 놓지 않아야 할지라.

화두(話頭)란 말 이전의 뜻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칙(古則)이라고도 하는데 석가세존과 선종(禪宗)의 역대 조사스님들이 말씀하신 1700여 가지의 격외도리(格外道理)로서 공안(公案) 즉, 누구든 해결하는 방안이라는 뜻입니다.

격외도리(格外道理)란 사람들의 지식이나 생각, 행동에서는 완전한 것을 얻기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벗어난 근본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노력하며 나름의 성공만으로는 고통과 괴로움, 슬픔과 번뇌 망상을 절대로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나 감정을 일으키면 동시에 생로병사(生老病死)가 반드시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생각도, 엄청나게 큰 즐거움과 기쁨의 감정을 느낀다 하더라도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 여로역여전(如露亦如電), 즉 꿈과 환과 물거품과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번개와 같으니, 끊임없는 윤회만 있을 뿐입니다.

생각이나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본래 태초에는 누구나 부처의 성품인 생사(生死)가 없는 무분별심(無分別心)의 상태였으나, 무명(無明)으로 인한 욕심이 생기면서부터 두 가지 마음인 분별심으로 말미암아 생멸(生滅)과 득실(得失)과, 고저(高低) 장단(長短), 빈부귀천(貧富貴賤), 고락(苦樂)과 삼세(三世-과거·현재·미래)의 시간과 이곳 저곳의 공간이 생기고, 희로애락(喜怒哀樂)이 반복되는 인과(因果)가 생기면서, 갈등(葛藤)의 윤회를 면치 못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인 분별심(分別心)의 인과(因果)가 쌓이고 쌓여서 업장(業障)과 업식(業識)으로 뭉쳐진 가짜 마음이 생기고, 본의 아니게 나라는 아상(我相)을 스스로 만들게 됨으로써 악순환의 수레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성취한다 하더라도 생로병사(生老病死)와 성주괴공(成住壞空)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이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분별된 마음으로 인해 육도(六道)의 윤회(輪廻)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를 생각하면 다른 하나가 꼬리를 물고 생각하게 되는 분별심으로 말미암아 생사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방법은 단 하나, 분별된 생각을 끊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업장과 업식으로 금강석처럼 굳어진 분별심을 단박에 끊는 방법은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생각으로 다른 생각을 덮어버리는 것을 화두라고 하는데, 이 화두에는 다른 생각이나 감정을 모두 배제한 상태에서 오로지 화두 한 가지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화두 하나만을 절대 놓지 않고 잡고 있으면 다른 여타의 잡념이나 감정이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일단은 가만히 정좌(靜坐, 마음을 비우고 앉음)한 상태에서 계속적인 정진을 통해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단계인 행주좌와(行住坐臥, 걷거나 섰거나 앉거나 누움)와 어묵동정(語默動精,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음)에서도 화두를 놓치지 않게 하는 최고의 단계를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간화선은 바로 이러한 화두 수행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실천법입니다. 간화선 수행은 번뇌 망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로, 우리의 분별된 마음을 통제하고 본래의 자성을 발견하게 합니다. 화두 하나에 집중하여 다른 모든 생각을 멈추고, 인연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결심을 다져서 노력하고 배워 나간다면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엄청난 발전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화두 하나를 빨리 선택하여 생활 속에서도 꾸준히 화두를 놓지 않고 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오늘의 명상]
이 모양 저 모양 모두가 그 모양
모양 모양 인연 따라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모양 붙어 있는 정(情) 떼 내면 만사가 해결인데
모양 없는 이놈의 정(有情)은 떠날 줄을 모르네.

누구나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은 모두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양은 변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니, 제법무상(諸法無常)의 이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머무르지 않고 변하므로, 결국 공(空)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다고 믿는 모든 것은 폭포의 물과 같습니다. 폭포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듯 보이지만, 떨어지는 물은 이미 흘러가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같은 물로 착각합니다. 이는 우리의 업식이 투영되어 실재처럼 보이는 허망한 모양입니다.

문제는 이 모양에 정(情)을 붙여 희로애락으로 끊임없이 마음을 흔든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집착하다 보면, 변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의 본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통에 빠지곤 합니다. 정은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괴로움을 동시에 품고 있으며, 생로병사의 과정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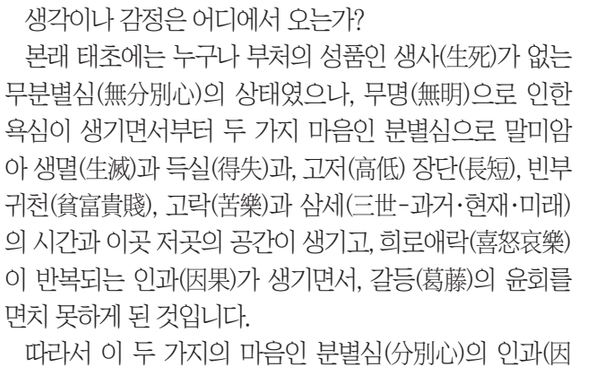
쉘패스 명상은 이러한 감정을 다루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쉘패스 명상은 떠오르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에 스스로 휘말리지 않도록 돕는 실천입니다. 마음의 업식을 녹이고 고요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감정이 떠오를 때 이를 집착 없이 관찰하고 흘려보내는 훈련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명상의 실천은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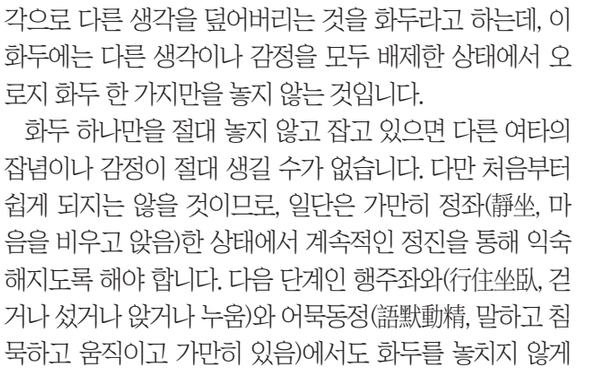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실체 없는 모양에 불과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감정은 슬픔과 괴로움의 감정과 맞닿아 있으니,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생로병사란 변하는 과정의 시간을 말하며, 결국 모두가 변하여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이를 실체 없는 공이라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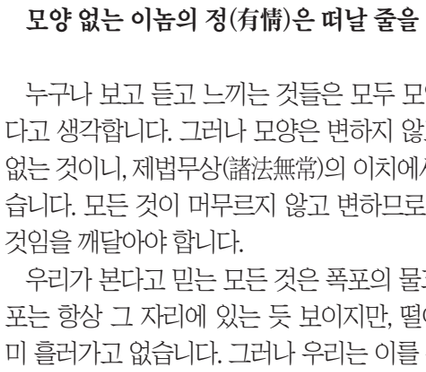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실체 없는 모양에 집착하여 고락의 감정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과 집착을 가만히 바라보고 흘려보낼 때, 고락의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를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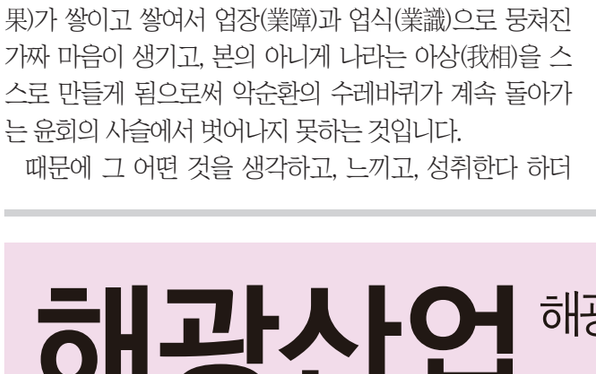
진정한 평화는 정(情)으로부터의 해방에 있습니다. 변하는 모양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의 업식을 녹이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고락의 수레바퀴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마음으로 정진하며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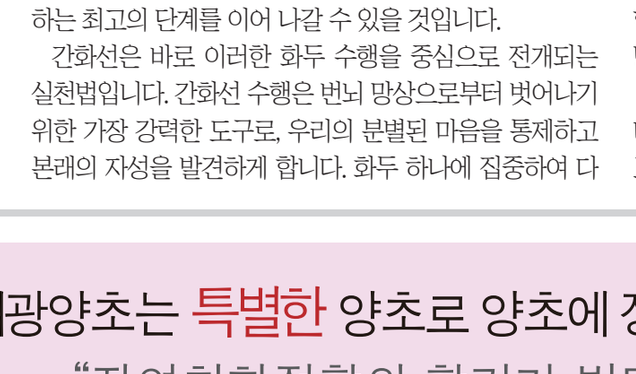
해광산업
해광양초는 특별한 양초로 양초에 정성과 향을 담습니다
"자연친화적향의 향기가 법당에 스며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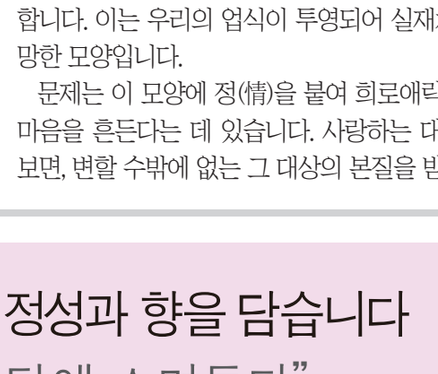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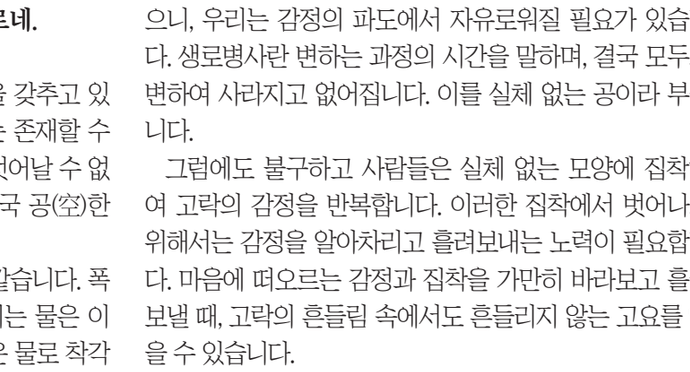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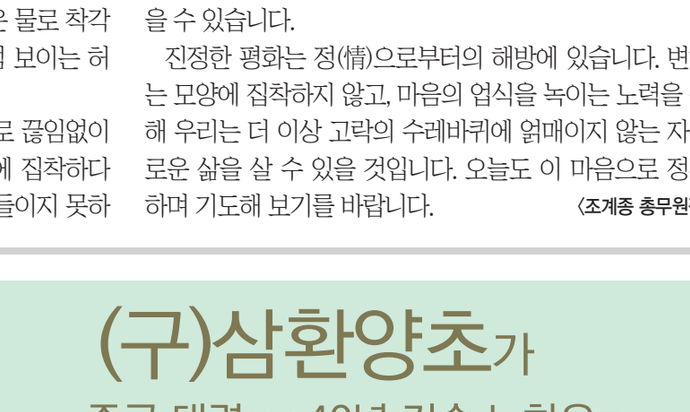


해광산업 주문전화번호 031-333-0242, 010-5848-0189

(구)삼환양초가
중국 대련에서 40년 기술 노하우를
현지 공장에 전수하여 관리 생산한
최고급 중국산 대련양초를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WWW.SHCANDLE.COM



*유통 마진 없이 소비자 여러분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삼환양초 주문전화번호
031-337-0243, 010-2308-0189

장애인의날 특집

불자 시각장애인 양만석 씨

“보이지 않아도 함께 燈 켜면 세상 밝힐 수 있죠”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타타타’라는 노래 아세요? ‘산다는건 좋은 거지. 수지맞는 장사잖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나는 이 가사가 참 좋아요. 인생을 어쩜 이렇게 잘 묘사했나 싶죠. 우리집엔 시력 이상이 있는 가족이 줄줄이에요. 어릴 적엔 저주받은 운명 같아 고통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시각장애인들의 처우와 복지를 위해 한평생 일하는 동력이 됐죠.”

시각장애인 양만석(81세, 印明) 씨는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에서 흘러나온 노래 ‘타타타’의 가사가 인생을 관통하는 문장처럼 들렸다”고 말했다. 태어났을 때부터 시력이 거의 없었던 그는 세상을 ‘보는’ 대신 ‘느끼는’ 법을 배워야 했다. 삶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절망보단 누구보다 뜨겁게 살아냈다. 조금은 특별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고 삶 자체에서 행복을 느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널리 전하며 많은 시각장애인들의 길잡이가 됐다.



서울 종로 조계사 인근 치료소에서 만난 양만석 씨가 점자책 교정을 보고 있다. 후배 시각장애인들이 마음의 눈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업무 중 틈틈이 하는 점자책 교정은 그의 주요 일과 중 하나다.

선천적 시각 장애로 벽에 부딪혀도
배움의 길 포기 않고 27년 교사생활
제자 아픔 함께 짊어지고 편견 싸워

신심 · 실천 밑바탕 자비정신 신념으로
80년대부터 점자 경전 제작 보급 나서
“어둠 속에서 빛 보는 법 알려주고 파”

양만석 씨는 1944년 부산 영도에서 태어났다. 열아홉에 시각장애인이 된 그의 아버지는 울산지역 복술협회 맹인들을 이끌고 3.1만세운동에 앞장서다 주동자로 몰리게 됐고, 형사들의 눈을 피해 영도까지 숨어들었다. 일제의 폭력과 착취 속에서도 눈을 감고 자유를 외쳤던 아버지 아래서 양만석 씨는 정의와 책임의 가치를 일찍이 배웠다. 이는 훗날 그가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삶을 바치는 원동력이 됐다.

그에게 시각장애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가족의 운명이었다. 시각장애 아이가 일곱이 태어났다. 소위 말하는 ‘줄봉사 집안’이다. 남매들은 어린시절부터 시각장애를 안고 살아가며 많은 벽에 부딪혔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상심한 가운데서도 어린 자녀들을 나란히 앉혀놓고 천자문을 가르쳤다. 그가 특수학교인 부산맹아학교와 서울맹학교를 거쳐 방송통신대에서 행정학을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는 배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며 시각장애인의 교육 가능성과 역량을 스스로 증명해냈다.

자신만의 배움에서 멈추지 않았다. 2007년 3월 퇴직까지 27년 동안 서울맹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시각장애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에게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었다. 삶의 용기를 심고 자립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었다. 그 열정은 교실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제자들의 아픔을 함께 짊어졌고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웠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 정비와 직업권 보호, 치료 개선을 위한 운동에 앞장섰고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자립기반 마련에 힘썼다.

양만석 씨의 이런 삶은 불자로서의 신심과 실천이 밑바탕이 됐다.



지난해 2월 동국대 전 이사장 법산 스님, 연화원 장애인 불자들과 함께 떠난 인도순례. 기원정사에서 〈점자 금강경〉을 손으로 읽어 내려가며 독송했다.



서울맹학교에서 받은 장기근속상은 양만석 씨의 자부심 중 하나다. 27년간 재직하며 제자들에게 특수 교육뿐 아니라 불교를 알리는 일에도 앞장섰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연기에 따라 이뤄진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나니 매사 의문을 가지거나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여기 이렇게 존재함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연히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불교의 자비정신은 삶의 신념이 됐지요.”

그에게 불교는 신앙을 넘어 삶의 철학이었다. 법당에서 기도하던 손은 현실을 바꾸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는 다른 시각장애인들이 자신처럼 불교에 귀의해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발원하며 1980년대 후반부터 점자 경전 제작과 보급에 힘써왔다. 시각장애인도 부처님 말씀을 직접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단지 문화유산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을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전하고 싶었다. 뜻을 함께하는 스님과 불자들이 점점 늘었고 그 결과 혜광시각장애인불자회를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기본 불교 교리의 모음집인 〈불교성전〉 7권과 〈천수경〉 〈금강경〉 〈화엄경〉 〈우마경〉 등의 점자 경전을 보급할 수 있었다.



종로의 개인 치료소에서 안마를 하고 있는 양만석 씨. 그는 시각장애인 자립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제자들에게 ‘빛을 보는 법’을 전수하고 있다.

그는 “본격적으로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30대부터였지만 당시 점자 경전으로 접할 수 있는 불교서적이 전무해 언제나 안타까웠다”면서 “자연스럽게 나 자신의 공부는 물론 포교를 위해서 점자 경전 보급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신행생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불교계와 연대해 장애인 권익 보호와 치유 활동에 적극 나섰다. 혜광시각장애인불자회와 원심회 등에서 점자 지도 봉사를 펼쳤고 교육이 부족한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안마, 침술 등의 의료 강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도로 활동했다. 시각장애를 가진 도반들이 처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것이다.

이타행은 비단 시각장애인들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맹아학교에서 안마, 침술, 지압 등의 교육을 받은 그는 66년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의 도움으로 무료로 배운 기술을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고 발원했다. 동료, 제자들과 함께 세심한 손끝 감각과 침만을 가지고 전국 각지를 돌며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고 40년 넘게 봉사를 이었다.

물론 언제나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사회의 무관심, 제도의 한계, 그리고 같은 장애인들 사이의 이견까지. 때론 동료들의 냉소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 더 넓고 연대의 가능성을 찾았다.

퇴직 후 종로에서 개인 치료소를 운영하며 정부로부터 장애인 활동 사업을 지원받아 시각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함께 이끌어 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인의 영리를 넘어 제자와 후배들에게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다.

“함께 등을 켜야 어두운 곳을 더욱 밝힐 수 있다”는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남을 도울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본인에게 주어진 행복이라고 말한다.

“어둠 속에서 켜놓은 불등(佛燈)이 오늘도 누군가의 길을 비추고 있다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겠죠.”



최선일의 佛母列傳 시즌2 ❹ 응원(應元 · 應圓) 스님



▶한줄 요약
응원 스님은 1570년 전후에 태어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친 후, 김제 금산사 중건을 지훈 스님, 수문 스님 등과 주도한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갖춘 조각승이다.

임진왜란에 소실된 금산사 일으켜 세운 佛母





응원 스님이 만든 순천 송광사 감로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24년, 사진 왼쪽)과 송광사 응진전 목조석가여래좌상.(1624년, 사진 오른쪽)





응원 스님이 수화승으로 참여한 구례 화엄사 목조노사나불좌상(1635년, 사진 왼쪽)과 청헌 스님이 수화승으로 참여한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1635년, 사진 오른쪽)의 모습.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으로 파괴된 사찰을 중건하면서 사찰에 주도적으로 불상을 제작한 조각승은 현진(玄眞)·원오(元悟·圓悟)·수연(守衍)·법령(法靈)·응원(應元) 스님 등 20여 명에 이른다. 이 조각승들이 어느 사찰에 거주했는지 관련 문헌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고 불상을 조성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정할 뿐이다.

이 가운데 응원 스님은 〈금산사사적기(金山寺事蹟記)〉에 "주지인 장로 지훈(智訓)이 일을 계승하여 꾸리고, 대사 천택(天澤), 용면(龍眠)대사 응원(應元) 등이 법고를 두드려 대중을 모으고 불사에 힘을 쏟았다(寺中住持長老智訓幹蠱大士天澤龍眠大士應元等擊皷集衆)"와 "선조 30년에 왜구가 육지로 쳐들어와 마음대로 날뛰며 백성들이 살해하였다. 사찰과 불상 그리고 나머지 기물(器物)들이 한꺼번에 모조리 불에 타버렸다. 산승(山僧) 지훈(智訓), 덕행(德行), 석준(釋俊), 수문(守文), 천택(天澤), 응원(應元), 학연(學蓮), 태전(太顚), 운근(雲根), 심윤(心允), 경일(敬日), 문익(文益), 보환(寶還), 인언(印彦), 지수(智守), 천주(天珠) 등이 함께 형제처럼 서로 도와 이 일을 마음 속에 새기고 부지런히 힘써 (불탄 절을) 복구하고 일을 처리하였다(大明萬歷二十五年丁酉之秋 我宣祖大王三十年倭寇陸梁民物虔劉(殺害也) 寺與像設餘殘器物一時燒盡山之人智訓德行釋俊守文天澤應元學蓮太顚雲根心允敬日文益寶還印彦智守天珠等率籲兄弟壎篪相應念玆在玆庀工藏事)"는 기록을 통해 김제 금산사에 거주한 스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600년부터 1635년까지 김제 금산사 중건을 주도한 석준(釋俊)·응원(應元)·태전(太顚) 스님 등은 17세기 전반에 불상 제작을 주도한 조각승들이다.

조각승 응원 스님은 1600년부터 수문 스님, 지훈 스님과 금산사 중건을 주도하고, 1613년 11월에 경주 백운암 목조보살좌상(전주 관음사에 봉안됐다가 현 위치로 이운)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불교조각계에 이름을 드러냈다. 또한 1614년 2월에 각심(覺心) 스님, 인균(印均) 스님과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아미타여래,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제작한 후, 4월 논산 쌍계사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에 각수(刻手)로 참여하고, 7월 부여 오덕사 〈예념미타도량참법(禮念彌陀道場懺法)〉 간행에 시주자로 동참하였다.

응원 스님은 1615년에 태전(太顚)과 김제 금산사 독성상(獨聖像)을 만들고, 1622년 3월에 옥명(玉明) 스님, 현진 스님, 수연(修衍) 스님, 승일 스님 등과 의왕 청계사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간행에 시주를 했다.

그해 5월에는 광해군의 왕비인 장열왕후가 발원한 자수사(慈壽寺)와 인수사(仁壽寺)에 현진·응원·수연·법령(法玲)·청허(淸虛)·인균·승일 스님 등이 비로자나불(2존), 석가여래(3존), 노사나여래(2존), 미타여래(2존), 관음보살(1존), 대세지보살(1존) 등 11존의 불상과 5점의 불화를 조성했다. 현재 비로자나불은 국립중앙박물관, 석가여래좌상은 서울 칠보사와 안동 선찰사에 봉안되어 있다.

응원 스님은 수화승으로 1624년에 순천 송광사 광원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송광사 응진전 목조석가여래삼존상과 소조나한상 등을 조성하고, 1628년에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을 제작하였다. 또한 응원 스님은 1634년 3월부터 1635년 8월까지 청헌(淸憲) 스님과 함께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국보)을 만들었는데, 본존인 비로자나불과 석가불은 청헌 스님을 도와 부화승으로, 좌협시인 목조노사나불좌상은 수화승으로 조성했다.

이런 문헌을 바탕으로 응원 스님은 1570년 전후에 태어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친 후, 김제 금산사 중건을 지훈 스님, 수문 스님 등과 주도하고, 1610년대와 1620년대 각민 스님이나 현진 스님 등이 주도한 불상 제작에 부화승으로 참여하다가 1620년대 중반에 수화승으로 명산대찰 전각에 불상을 제작한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갖춘 조각승이다. 또한 1630년대 중반 왕실에서 발원한 구례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을 청헌 스님과 조성했다.

호남 중심으로 활동했던 조각승
송광사, 화엄사 등서 불상 조성
수문 스님 등과 금산사 불사 주도
사찰 불교경전 간행 시주로 참여

응원 스님의 계보는 응원(1613~1635, 이하 활동 연대)→인균(印均·仁均, 1614~1662)·석삼(釋森·釋參, 1623~1640)·회감(懷鑑·懷鑒, 1633~1666)→천신(天信, 1654~1670)→ 색난(色難·色蘭, 1662~1730)·충옥(忠玉·冲玉, 1668~1705) 등으로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조각승 계보이다.

응원 스님이 수화승으로 만든 순천 송광사 감로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높이 49㎝의 중소형 불상으로, 1624년 9월 조계산 광원암에서 고한(高閑)·심정(心淨)·사순(思舜)·인균·석삼·종해(宗海)·성종(性宗)·천효(天曉)·봉익(鳳翼) 스님이 제작했고, 송광사 응진전 목조석가여래좌상과 소조나한상도 함께 조성했다.

감로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타원형의 단아한 상호와 안정된 신체비례를 가지고 있다. 좁고 높은 타원형의 머리에는 동일한 크기의 굵직한 나발(螺髮)을 촘촘히 부착하였으며, 육계(肉髻)가 불분명하고, 정상계주(頂上髻珠)와 중앙계주(中央髻珠)를 표현했다. 이목구비는 크고 뚜렷한 편으로, 두툼한 눈두덩에 작게 내리뜬 눈, 곡선의 눈썹은 콧대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코는 오뚝하며, 도톰한 입술이 미소를 머금고 있다. 목에는 자연스러운 삼도(三道)가 새겨져 있다.

오른손은 가슴 높이로 치켜들고 엄지와 중지의 끝을 맞대고, 왼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올리고 있다. 착의 형식은 오른쪽 어깨를 대의가 완전히 덮고, 가슴 왼쪽에 수직과 좁은 V자형 주름이 접혀 있으며, 왼쪽 측면 어깨에서 팔꿈치로 흘러내린 대의 자락이 넓게 펼쳐져 늘어져 있다. 하반신에 걸친 대의자락은 좌우로 자연스러운 옷주름이 펼쳐지고, 옷자락 끝이 대좌로 흘러내려 물결 모양을 이룬다. 가슴을 덮은 승각기는 수평으로 단순하게 접혀 있다.

또한 1635년에 조성한 구례 화엄사 대웅전에 봉안된 불상은 대좌를 포함해 총 3m가 넘는 대형불상으로,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싼 지권인(智拳印)의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을 중심으로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한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과 상품중생인(上品中生印)을 취한 노사나불(盧舍那佛)로 이루어진 삼신불이다.

이 삼신불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화엄사를 재건(1630~1636)하면서 대웅전에 봉안하기 위해 1634년부터 1635년까지 조성한 것이다. 당시 팔도도총섭(八道都摠攝)을 역임한 벽암각성(碧巖覺性, 1575~1660) 스님의 주관 아래 선조의 여덟 번째 아들 의창군 등 다수의 왕실 상궁 등 1,320명이 시주자로 참여한 대형 불사이다.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17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조각승이 만든 대작(大作)으로, 조각으로 유일하게 삼신불(비로자나불-노사나불-석가모니불)을 제작하였다는 측면에서 불교조각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다.

응원 스님이 수화승으로 만든 목조노사나불좌상은 청헌 스님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목조석가여래좌상과 달리 화려한 보관(寶冠)을 쓴 보살형이다. 볼살이 많아 각진 얼굴에 가늘게 뜬 눈이나 두툼한 눈두덩, 대의자락의 처리 등에서 1624년 제작한 송광사 감로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유사하면서 더 간략하고 단순하게 처리했다.

응원 스님은 제자인 인균 스님과 임진왜란 중에 소실된 김제 금산사, 구례 화엄사, 순천 송광사 등의 주요 전각에 불상을 제작한 것을 보면, 조선 후기 불교계를 대표하는 고승(高僧)인 부휴선수(浮休善修, 1543~1615)의 문도(門徒)에 속한 스님으로 보인다.

〈(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 · csi34@hanmail.net〉

중국 운강석굴,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5월16일 출발~5월20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일정 : 5월16일~5월25일
▶ 동참금 : 349만원

부탄, 네팔 성지순례 8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
아름다운 부탄과 네팔 카트만두 불교성지 순례입니다.
출발일 : 9월13일~20일(6박8일)
■일정 : 인천-카트만두-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 동참금 : 문의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정토마을 능행스님과 함께 떠나는 수미산 기도 순례
- 전 일정을 불교방송 BTN이 촬영해서 방영 예정입니다.
출발일정 : 5월29일~6월13일 (16일간)

▶ 동참금 : 590만원

중앙아시아 4개국 완전일주 13일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일정 : 6월03일~6월15일(11박13일)
▶ 동참금 : 629만원

티베트 순례 7일
라싸-갼체-시가체-삼예 등 주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출발일정 : 6월28일~7월04일(7일간)
▶ 동참금 : 299만원

인도 라다크 헤미스 축제 8일
델리-라다크(레)-알치-라마유루-레-헤미스-판공호수-레-델리
출발일정 : 7월01일~7월08일(8일간)
▶ 동참금 : 369만원

백두산, 고구려유적, 삼사 순례
(화엄사-수월정사-천년고찰 광우사)
출발일정 : 7월01일~7월05일(5일간)
인천-연길(화엄사,수월정사)-백두산 천지-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등)-요양(광우사)-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28호 | 15 | 전면광고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말과 생각이 끊어지면 어느 곳엔들 통하지 않으리.



부처님 말씀 읽기 - 《신심명》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경기도
- 부지 : 700평
- 건평 : 150평 외
- 산 밑 차량진입, 주차가능
- 매가 : 25억

- 위치 : 부산시
- 면적 : 700평, 전통사찰
- 법당 : 30평, 요사60평
- 매가 : 35억
- 산 밑, 주차가능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매도, 매수,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인곡1길33-12
- 대지 310평 / 법당 20평 산신각 / 요사, 별채 50평
- 가액 : 2억2천
- 수도 가스난방

010-2369-3382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 1000만원 (절충가능)

010-5436-5801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 67평 동불 삼존불
- 보증금 : 5000/월세 : 180만원
- 시설물 : 2500만원 상당
-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300m
-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남녀화장실

010-3102-5102

사 찰 안 내

★전통사찰, 요사채불사 진행중★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전통사찰 선법사)
- 평 수 : 1,700평(법당, 산신각, 요사채, 화장실, 주차장 등)
- 가 액 : 상담 후 결정

보물 981호 마애약사불좌상

010-3340-2654

제주 (땅) 안내

- 전답 : 약 3천평 평당 50만원
- 팬션, 주택, 농장, 노후투자 확실 (도로접근최고)일주도로70m거리
- 현재 : 밀감 및 조경수 식재 300m 안에 (바닷가, 목욕탕, 마트, 면사무소, 우체국, 병원, 한의원, 소방서, 초 · 중학교) 주인직접전화

010-2104-2040

포교원 건물(급)안내

- 위치 : 강원 원주시 학성동
- 면적 : 82평 실평(3층 건물)
- 대로변 주차 가능
- 매가 : 4억8천만원
- 통화 안 될때는 문자·문의

010-2708-697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7m
- 즉시 법회 가능. 땅값만 받습니다.
- 매매가 : 8000만원
- 전월세 가능 : 보 4000 / 월세 40
- 청정 기도도량 입니다

010-2807-0509

포교당 안내

- 위치 : 철원군 동성읍
- 도로변 70평 1층 주택
- 현 보증금 500/월세 20
- 가액 : 1000만원

010-9267-255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82
- 230평
- 가액 : 2억3000만원(가격절충)
- 종교부지 / 주차 5대
- 법당 20평 산신각 요사채 등

010-9389-7457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선암다리 5분, 김해공항 15분 동김해ic서 5분 거리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6898-9114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사 찰 안 내

- 전통사찰매매(고려말 창건) 귀한문화재 2점 보유(경남)
- 종교부지 2천평, 풍광최고, 관광지 대형버스진입, 군설치 전망대접 신도관리 잘할 분, 가격은 인연따라
- 봉화토굴 : 건평 38평 4천5백만원
- 영천토굴 : 건평 40평 4천3백만원
- 합천암자 : 2억원 최고급 시설
- 청도사찰 : 건물6동 6억원 전통양식 대웅전, 사신각 등
- 대구사찰 : 12억 땅 7백평 신도 일천명, 대웅전 등등
- 팔공산암자 : 2억원 호조건
- 고령사찰 : 2억원 건평 170평

053-745-9999, 010-2512-7777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 제1지점 054)282-9601 / 제2지점 054)282-9602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3천(대출 2억 1300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사천시 새고개2길 47 (삼천포)
- 대지 : 265평 (법당20평 정동향)
- 요사 : 30평 (방3, 화장실2, 정남향) 3평(황토 찜질방 1동)
- 특징 : 대형e마트 도보3분 위치 30대주차, 마당까지 진입
- 가액 : 2억3천(地價만 계산했음)

010-8868-7017

사찰(토지) 급 안내

- 위치 : 강원 원주시 문막 IC에서 10분거리
- 토지 : 616평, 2차선 도로 접, 30M 산기슭
- 가격 : 2억 6천만원

- 위치 : 강원 원주시 귀래면, 자동차 전용도로 2분 거리
- 토지 : 7,570평 · 버스 차량 진입
- 가격 : 11억

010-2708-6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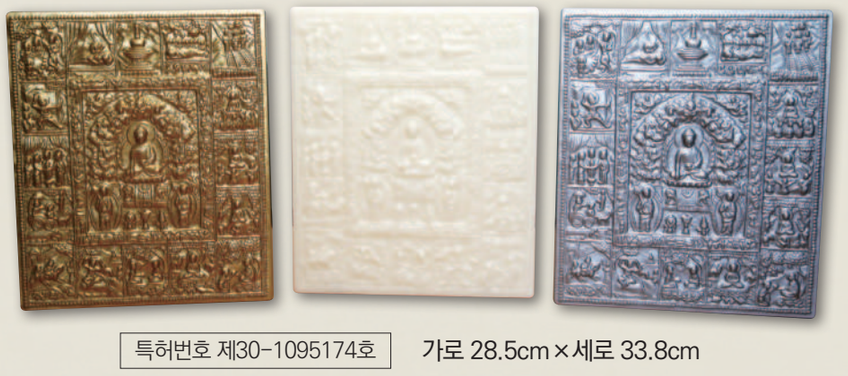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釋迦世尊 一代 聖相圖

석 가 세 존 일 대 성 상 도

티베트 순례 중 부처님 일대기 성상도를 수집하여 소장하던 중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이를 본 떠 만든 소장용 제품을 보급합니다.



도솔내의상/수하탄생상
태자수련상/사문유관상
태자결혼상/유성출가상
삭발백의상/초기수도상
설산수도상/선하조욕상
마왕유혹상/수하항마상
녹야전법상/진신사리탑

특허번호 제30-1095174호 가로 28.5cm × 세로 33.8cm

"총판, 판매원 모집. 특히 스님·교계기자·법사 환영"

주식회사 성 월 대표전화 02-765-1248 / 010-7773-1248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

생활 안내

1528호 | 16 | 전면광고

여러 악한 종류에 무리들이 많지 않게 하며
모든 악이 다하고 스러져서 스스로 사람을
여의게 하며 모든 악한 생각들은 생각함이 없게 하며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 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사찰전문 건축공사

1. 사찰 지붕공사(칼라 강판 · 판넬)
2. 일반주택, 빌라, 상가 (기와/슬레트, 슬라브) 지붕공사
3. 요사채 창고 등 신축 및 수리
4. 전기판넬, 보일러 등 난방 공사
5. 전기배선, 조명 공사
6. 진입로, 옹벽, 기타 토목공사

*공사관련 모든 사항 상담 가능

대성 010-3817-8075
개발 010-3824-0846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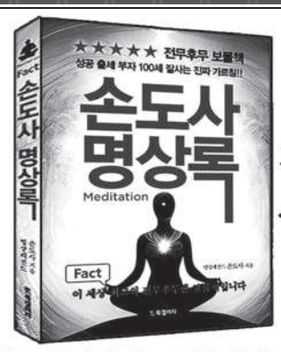
010-2168-2800

사찰행사(불교의식)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 나비무, 전통살풀이
정성껏 해드립니다

연암당 스님
010-6219-4757

손도사 유튜브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요

공양주 구합니다

60대, 70대
건강한 분 가능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정포로115

월하 스님
010-9807-0456

사찰홍보에 도움을 드립니다

YouTube,음반,출판,행장 등
제작,관리,감수 등

dalrma2025naver.com
다르마기획

010-8048-2145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서울 근교 사찰 운영 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010-8285-8090

절에 함께 계실 행자님, 처사님, 스님 구합니다

부산 만덕동
만덕사 금정원

010-3840-4355

무보시 법문 공고 (깨달음 법문)

법회시에 무상 법문해 드립니다.(보시금 없음)
법회시에 스님의 법문이 필요하시면
법보시해 드리겠습니다.

법문의 주제는 주지스님(또는 주관인)과 상담 결정가능

1. 철학박사(원광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2. 일반법회, 대학강의, 교도소 등 법문 다수다회
3. 노인장애인사회복지기관운영 등
4. 종단 : 무관 / 세수 : 73
5. 법문 일정과 주제는 상담 후 결정

※자세한 사항은 전화 상담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락처 : 010-3394-0108
(문자 부탁드립니다)

공양주 급구함

수행하며
오래 계실분

경북 예천 용화사

010-6529-2005

사찰 및 재단법인 추모공원 대표 및 주지 하실분 찾습니다

땅 만평 정도, 관광사찰
납골 현 600기정도

부전스님 구합니다 010-2078-9595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태아령 유산낙태, 남 · 여 구별법(예방법), 산소 무덤 물찬곳, 송사 재판, 암, 자궁암, 유방암
- 이혼수, 부도 • 배우자가 일찍 죽는 상 • 귀신 붙은 상 • 자살상, 중풍, 뇌졸중 상, 자식이 일찍 죽는 상 • 조상기도특수비법 작명, 아기이름, 개명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구성학
- 스님, 법사, 무당, 일반인, 특별책임 개인지도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육임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속도성 보장

익명성 지피(知被:감추는 상대의 비밀 · 고민사 판단됨-생년월일시 불필요함)

검증 30년의 신뢰! 분실 파손 재실행 영구사용!

1. 상대(방문 전화)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이든 실시간으로 미리, 또는 즉시 판단됩니다.
2.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방문, 내방, 전화이든, 지난 또는 다가올 당시의 연월일시든, 상대 속마음, 용건, 사안의 대소, 가부 호악 진퇴 희비 및 감추는 비밀사까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상대가(전화포함)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익 될 人 인지, 피해줄 人 인지, 손해나게 할 人 인지, 무력 人 (지위고하세력 막론, 해당사안 위주) 인지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여러 내용이 즉시 나타납니다.

- 왜 왔는가?
- 상대의 신뢰심(진위고집불성등) 여부
- 주요상담성취 안좌방위 및 회의 안건 반대자 여부
- 교섭 전후난이 상대진위 여부
- 소송 승패(구속 불구속) 여부
- 주식 이익종목 선택 및매도 매입 시기
- 상대 충성배신 여부
- 남여 성력(性力) 및 선호 태위 여부
- 주요 공사책임자 선정 및 무사고 개시 일시여부
- 깃발 착복색 선택 당선 승진 취직시 험사 여부
- 생업가정흥쇠여부
- 남녀 독신 고독 생사별자 여부
- 부부 동시 색정 1남2녀 1녀2남 삼각관계 여부
- 사안의 대소규모 여부
- (상대 현재실정)
- (상대구체 사안)
- (상대적확성)
- 상대 계획 도모사 측정 여부
- 전화 친견 상담용
- 면접사 여부
- 모망사 여부
- 구재사 여부



50일간 특별할인가격 90만원(업데이트 완성)
카드 3개월 결제 – 결제 즉시 소지 휴대폰에 실행파일 전송



50일간 특별할인가격 200만원(완결판) 교환 30만원
육임 USB 프로그램 – 인터넷 없이 영구 사용
02-567-3850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육임쇼핑)

- 귀신침해 부정 침범 산소탈(묘지속水蛇)여부 및 해소 방편
- 수법(천도 시식기도) 효과 유무
- 효과기도 분류
- 이혼 승패(유리 불리 여부) 운세 명암 지점 여부
- 임대 임차 이해친소 가옥 사옥 이전 길방여부
- 상대 신분(대통령, 장관급, 차관, 고위급, 지방관서장, 사계실력인, 우고인) 여부
- 목적 성취기도 일시 지정
- 금융재 금액 대소여부
- 선출직 성격 실적 사전 판단
- 뇌물 증여 가납 효과 여부
- 질병치유 여부
- 가출 귀가사 여부
- 혼인사(용모 가문 시기)
- 연년세세 1년 월별 신수
- 친화 구해 자녀 여부
- 혼인 부부 성격-궁합 여부 등등
- 우고사 해소되는 방문(전화) 시간 명시
- 무성(無聲:헛소리)에 불과한 방문(전화)시간 명시
- 임신사 여부
- 출산 길일 길시 선택 지정

위 육임 프로그램과 육임Ai와 육임 각 활용서 극대 효능을 위한 저, 효사 개별 직접 방문 전국 순회 일정입니다.
서울지역 월요일 14시 대전지역 화요일 14시 전주지역 수요일 14시 광주지역 목요일 14시 부산지역 금요일 14시 대구지역 토요일 14시 강원지역 일요일 14시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증업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⑧ 박물관 2 – 아름다움의 속성

불상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모더니스트라고 할지 포스트 모더니스트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작가 이상(李箱)의 '날개'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맥락은 전혀 다르지만, 박물관에 모셔진 부처님들을 뵐 때마다 왠지 이 문장이 계속 생각나고는 한다.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계신 여러 부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불교미술 연구자 이주형은 한 40대 백인 여성이 미국 박물관에 전시된 530년경 제작된 불상을 응시하는 사진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진다.

이 여인은 그 너머로 또 무엇을 볼 수 있을까?… 그녀는 불교를, 붓다라는 동양의 성인을, 혹은 신을 이 상에서 느끼고자 할지 모른다.…막연히 '마음의 평정', '숭고함'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불교라는 종교의 범주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그녀는 이 상을 신앙의 태도로 보지 않는다.('미학·예술학 연구' 25, p.90)

말 그대로이다. 사진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그녀는 자신 삶(미국의 중년 백인 여성)의 궤적상 아주 잘 알기는 어려운 대상물 앞에 서 있다. 그리고 그 대상물은 동양의 수억 명이 믿고 따르는 숭고한 인물, 즉 성인(聖人)의 상(像), 불상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맥락이 없이 미국 한복판의 박물관에 박제돼 있을 뿐이다. 불상을 치장하는 연화좌도 산개도 닫집도 없이 말이다. 그녀는 그 불상을 보면서 별생각이 없을지도, 아니면 이주형의 말대로 어떤 숭고함을 느낄 수도 있다. 그것이 불교를 믿는 사람이 느끼는 숭고함이랑은 아주 다를 수도 혹은 비슷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불상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감상자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일까? 불상 자체가 성스럽지 않다는 질문에 대해 오늘의 산책을 해볼까 한다.

본래 미학에서 미적 속성이 미적 대상(주로 예술품)에 속하는지 감상자의 심상(心想)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미의 객관주의-주관주의 논쟁이 이를 잘 보여준다.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철학자일수록 미란 객관적인 것으로 심상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리스인들이 비율과 비례가 보여주는 아름다움에 얼마나 열광했는지, 혹은 아름다움 자체는 자연에 귀속되는 것인데 그것을 재현한다고 만든 예술에 대해서 얼마나 경멸했는지를 본다면 잘 알 수 있다. 반면 중세 암흑시대, 신에 의해 모든 것이 제약당하던 우울한 시기를 넘어 르네상스, 인본주의, 낭만주의와 같은 말이 등장했을 때, 인간 심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적 체험은 있는 그대로 긍정되기 시작했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말한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렇다고 생각할 뿐이다."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사진출처=국가유산청

콤플렉스로 미륵불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
어느 날 필요한 '실용적 보살'임을 깨달아
박물관 부처님도 본인 일대사인연 수행 중

다시 불상으로 돌아와 보자. 많은 불교미술 책에는 어떤 특정 불상이 아름다운 이유에 대해서 별의별 설명을 다 늘어놓는다. 어떤 불상은 그 당시로서 최신의 조각양식을 보여줌으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고, 어떤 불상은 유행을 쫓지 않고 투박한 민중적 요소를 가졌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며, 또 어떤 불상은 인체의 비례미를 잘 표현해서, 또 어떤 불상은 인체의 비례미를 파격적으로 해체해서 등등. 그냥 읽어 내려갈 때는 그래, 그렇군하고 지나가지만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서 불상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아리송해지는 것이다. 아름다움이란 형용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일까?

나는 항상 머리가 큰 것이 콤플렉스였는데 대학시절 불교유적답사를 하러 논산 관촉사에 갔다가 그 유명한 '가분수 대마왕'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을 만나게 됐다. 불교미술교과서에 따르면 이 부처님은 황금비례를 무시한 파괴미, 민중적 심상의 메시아를 표현한 대중성을 가져 아름다운 작품으로 평가된다. 그날 같이 답사 간 동기들이 대두 둘을 보고 놀리는데 넌더리가 났다. 나는 팔등신의 비례미, 대중 속에는 도저히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외모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내 대두는 그것과는 달리 아름답지 못한 외모였고 그것이 싫었다. 혹 미학교과서에는 그것조차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 대한 고난과 역경의 드라마로서 아름다움이라 할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이 석조미륵보살상은 전혀 아름답지 않게 나의 심상 속에 결정화됐다. 그런데 경전과 논서를 헤집는 불교학자의 삶 속에서 미륵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이름 아닌가? 내가 주로 보는 문헌들은 〈법화경〉과 그 주변의 주석서들인데, 〈법화경〉은 미륵보살의 질문으로 시작되는 경전이다. 즉 모든 〈법화경〉 책은 첫 장(章)부터 미륵, 그리고 미륵, 또 미륵을 적어놓고 있다. 미륵이란 두 글자를 볼 때마다 나는 석조미륵보살상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괴로웠다. 미륵이라는 두 글자는 나의 대두를 연상시키는 번민이었다. 그리고 괴로움을 극복하는 숭고미 같은 건 찾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사찰 불교대학에서 〈법화경〉 강의를 하는 첫날 자조적으로 석조미륵보살상을 화면에 띄워놓고는 〈법화경〉을 시작하는 미륵보살도 대두고 〈법화경〉 강의를 하는 나도 대두니 나만치 〈법화경〉을 잘 설명할 사람도 없다고, 앞으로 한 학기 잘 들으시라고 한 적이 있다. 이 말을 하면서도 사실 수치스러웠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 그런데 학생들에게 연신 박수가 터지는 것이 아닌가? 내가 미륵보살을 닮은 대두라 환희심이 난다고까지 한 보살님도 계셨다. 그때 알았다. 아 나에게 이 석조미륵보살상은 실용미임을 깨달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유산급 예술품은 7~8할이 불교예술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조선 500년에서 이승만의 불교재산불용 등 그동안 끊임없이 약탈당해 온 사찰의 예술품들은 외부 박물관에서 그 맥락이 없이 그저 전시실에 내던져져 있다. 박물관에서야 내던져져 있다는 표현에 분개하겠지만 그들이 성상(聖像)을 위치시키면서 작법을 지었겠나, 불공을 드렸겠나 생각해본다면 불자가 된 입장에서는 부처님들을 자신들의 전시계획에 따라 이리 던졌다, 요리 던졌다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나는 이도 좋다고 생각한다. 40대의 미국 백인 여성이 부처님의 상호를 박물관이 아니면 언제 보겠는가? 그 인연으로 그녀는 반드시 다음 생에 성불할 것이다. 〈법화경〉의 소선성불이 이 내용이다. 박물관의 부처님은 너무나 실용적이게도 본인의 일대사인연을 수행하고 계신 것이다. 마치 내가 불경스럽게도 가분수라고 싫어한 미륵보살이 어느 날 나에게 꼭 필요한, 실용적인 보살님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동국대 박사〉

참회 수기 받기 위한 점찰
지장사상 신라 전래 이어져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⑯ 지장사상의 전래

지장사상이 거대한 격류처럼 물밀듯 신라로 들어온 것은 〈삼국유사〉 등을 살펴볼 때 원광 법사의 '점찰보(占察寶)'가 효시인 것으로 보입니다. 점찰사상 또한 지장사상의 한 부류로서, 신라에 처음 전래된 것은 '점찰보'라는 경제공동체 형태였습니다.

이 같은 지장사상의 유입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모든 사상의 전래는 당시 정치·사회·문화·경제 등 시대 상황에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붓다의 설법도 여러 상황 속에서 당시 민중들의 근기를 고려해 이뤄졌음을 우리는 경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화엄경〉 〈열반경〉 〈법화경〉 등이 설해졌을 것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지장사상의 도래와 함께 유통된 삼계교 소의경전 〈지장십륜경〉과 〈금강삼매경〉은 어떤 시대 상황에서 민중들에게 전해졌을까? 이는 〈삼국유사〉 권제4, 제5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광서학조(條)'에는 삼계교 신도인 특진소우가 가서갑에 점찰보를 뒀다고 기록돼 있으며, 천인이 내려와 몽중수기를 준 '자장정율조'는 〈속고승전〉의 삼계교 소속 승려인 '승옹전'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의상전교전'에 소개되는 지엄 화상의 〈화엄오십요문답〉 내에 삼계교 교조 신행 선사가 주창한 '8종불법'이 확인됩니다. '진표전간조'에는 진표 율사가 지장보살에게 정계를 받고, 미륵보살에게 〈점찰경〉 2권과 증과(證果), 간자(簡子) 189개를 받았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는 모악산 금산사, 속리산 법주사, 금강산 발연사의 창건설화이기도 합니다. 특히 '진표전간조'에는 〈점찰경〉의 행법에 사용되는 '간자(簡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싣고 있어 흥미를 더합니다. 꿈에서 미륵보살로 부터의 계시를 받는 부분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두 간자는 나의 수지골(手指骨, 손가락 뼈)이다. 이것은 시각(始覺)과 본각(本覺)을 비유한 것으로서, 구자(九者)는 법이(法爾)이고, 팔자(八子)는 새로이 훈성(熏成)한 불종자(佛種子)이다. 이것에 의하여 과보가 무엇인지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너는 현세의 육신을 버리고 대국왕의 몸을 받아서 나중에는 도솔천에 태어날 것이다."

이처럼 〈삼국유사〉 권제4, 제5에는 유독 지장보살과 연관된 이야기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국유사〉 권제3 '탑상(塔像)', 제4 '대산오만진신(臺山五萬眞身)'에는 오방을 나눠 각 방위의 색깔과 또 그에 해당하는 보살과 그에 맞는 경전을 독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적색(방)인 남대 남면에 지장방을 두고, 원상의 지장보살과 붉은 바탕에 8대 보살을 수위로 한 1만 지장보살상을 봉안하고, 복전승 다섯 명이 낮에는 〈지장경〉과 〈금강반야경〉 밤에는 점찰예참을 (염송하되, 이름을) 금강사(金剛社)로 해라."

여기서 〈지장경〉은 〈지장십륜경〉 등이고, 점찰예참 경전은 〈점찰선악업보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장사상이 원광 법사에 의해 신라에 처음으로 전래된 것을 맞지만, '낮에는 〈지장경〉 〈금강반야경〉을 봉독하고, 밤에는 점찰예참을 행'함은 삼계교도의 예참행법에 가깝습니다. 이는 참회, 예불, 발원, 회향을 기본요소로 하는 육시(六時)의 예참법입니다.

지장보살에게 지극하게 참회하는 '지장 예참'의 성행, 즉 점찰법이 크게 유행한 당나라 초기에는 〈점찰경〉에 의해 참회를 행한 것이 전해집니다. 참회가 잘 돼 그쳐도 좋을지, 아니면 더욱 분발해 진정한 참회 수기를 얻을 때 까지 계속해야 할지를 지장보살에게 묻는 형식이었습니다. 이 같은 점찰법에 의한 지장사상은 〈지장십륜경〉보다도 먼저 신라에 전해졌으며 이는 역사서 〈삼국유사〉 곳곳에 상세하게 기록돼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장 예참 행법의 전수는 신라 승려 숭제의 제자인 진표에게서 결정적인 행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효 스님과 진표 율사가 중국에 입당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도 높이 평가 받고 있는 것은 지장신앙을 통해 민중의 평안을 바랐던 원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송림사 주지〉



장보배의 24번의 계절 ⑧ 곡우 _ 선암사로 향하는 길

▶한줄 요약
곡우는 입춘으로 시작해 우수, 경칩, 춘분, 청명에 이어 봄을 상징하는 여섯 절기 중 가장 말미를 맡는다. 봄을 마감하는 동시에 입하로 시작되는 여름의 문을 여는 때, 그 문을 여는 키워드는 바로 비(雨)다.



봄 마감 후 여름 기다리는 시절, 생명 비가 손짓한다

유유자적 달려가던 버스는 마침내 느리게 걷기 시작한다.

4월이 되면, 호수에 맑은 물이 일렁이고 그 곁을 따라 분홍 벚꽃이 수십 리 가득 피어난 날이라면. 그런 곳에서라면 달리던 버스도 제 속도를 줄이고 느린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다.

봄이면 그런 일도 더러 일어나곤 하는 것. 밤길었던 겨울을 지나 빛으로 온 이 계절은 마침내 생명의 비마저 손짓해 부른다. 6번째 계절, '곡우'의 시작이다.


선암사로 향하는 길은 아름답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선암사 가는 길 옆 야생 차밭 위로 오색 연등이 이어졌다.

선암사 가는 길

순천으로 향하는 기차 안. 문득 사람들의 탄성에 고개를 들어보니 눈 앞에 펼쳐진 것은 저 멀리 섬진강을 따라 끝없이 이어진 벚꽃길이었다.

이곳은 남쪽의 땅, 봄은 늘 이곳에서 먼저 시작되어 매일매일 더 높은 곳을 향해 전진하지 않던가. 전년보다 꽃 소식이 늦다 하지만, 발빠르게 피어난 봄의 전령은 여전히 담대하고 화려하게 제 모습을 뽐내고 있었다.

홀린 듯 시선을 빼앗긴 채 도착한 곳은 순천역. 그리고 오늘의 목적지는 바로 선암사다. 오래전 법정 스님이 사랑하신 매화가 있고, 뭇 문인들이 찬미하며 신선들조차 아꼈다는 천년의 고찰. 뚜벅이 여행자가 그곳을 찾기 위해선 순천역에서 선암사로 향하는 유일한 노선인 1번 버스를 타야 한다.

순천만에서부터 도심까지 장대하게 흐르는 동천, 그 곁을 따라 벚꽃 흐드러진 뚝방길을 넘어 웃장, 아랫장의 국밥 내음 가득한 시장 풍경까지. 버스는 1시간에 걸쳐 순천의 진짜 얼굴과 두루두루 인사하며 힘차게 달린다.

꽃을 따라서

운이 좋은 날이었다. 도심을 떠나 외곽을 달리던 버스는 저 멀리 상사호(上沙湖)와 분홍구름 같은 벚꽃 군락지가 보이자 천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노란 산수유, 향기 그윽한 매화, 진분홍 꽃봉오리가 고슬고슬 매달린 박태기나무와 철쭉까지. 조붓한 길을 따라 세상의 모든 꽃이 손을 내미는 그때, 버스는 마치 어린아이가 첫 걸음을 떼듯 자분자분 걸으며 그곳을 만끽하기 시작했다. 달린다는 말보다 걷는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느리게, 느리게.

열린 창문 너머로 손을 뻗으면 꽃도 바람도 모두 손에 쥘 것만 같은 시간. 가차 없는 봄이 버스 안으로 밀려오던 길. 그 여정의 끝에 선암사가 있다.

선암사를 찾은 것은 어느새 '곡우(穀雨)'가 코앞으로 다가온 덕분이다. 꽃도, 길도, 계절도 흐르고 흘러 모이는 곳. 한 편의 드라마를 본 듯한 순천의 고운 풍경은 여기 선암사에서 새로운 절기와 함께 대미를 장식할 것이다.

곡우와 차(茶)

곡우는 입춘으로 시작해 우수, 경칩, 춘분, 청명에 이어 봄을 상징하는 여섯 절기 중 가장 말미를 맡는다. 봄을 마감하는 동시에 입하로 시작되는 여름의 문을 여는 때. 그리고 그 문을 여는 키워드는 바로 비(雨)다.

백곡을 여물게 하고 나무에 물을 오르게 한다는 봄비의 시간. 예로부터 '곡우물 마시기'라는 풍습에 따라 산다래나무와 자작나무, 박달나무의 수액을 채취했던 것도 바로 이즈음이라고. 곡식을 키우는 비가 내린다고 하지만 아직 논과 밭은 싹을 틔우기 전. 대신 이 절기의 풋풋한 생명력과 순수를 상징하는 존재는 따로 있다. 바로 '차(茶)'다.

통일신라 시대부터 곡우에는 약수제를 지내고, 조정의 제관이 지리산 신령에게 다래차를 올리며 태평성대와 그해의 풍년을 기원했다고 전해진다.

한국의 다성(茶聖)으로 평가받는 초의 선사는 자신이 쓴 '동다송(東茶頌)'에서 중국의 햇차 따는 시기에 대해 "곡우 5일 전이 가장 좋고, 5일 뒤가 다음으로 좋으며, 그 5일 뒤가 그 다음으로 좋다"고 기록했다. 흔히 차 중에 최상품으로 치는 우전차 또한 곡우 전에 채취하여 이름을 우전차(雨前茶)라 하는 것이다. 또 봄에 딴 첫 찻잎이라는 뜻에서 첫물차라 부르기도 한다.

인류와 함께한 차의 역사, 더불어 우리 민족의 차 문화 또한 이 절기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 가장 오랜 뿌리에 우리의 산사가 있다.


선암사 승선교 용머리는 불경한 것을 제압하고 불법 세계를 지킨다는 설이 전한다.


선암사 차밭은 인위적인 손길을 거두고 제 기운대로 자란 야생 그 자체다.

차(茶)의 시간

지난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이라는 명칭으로 한국의 7개 사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선암사도 당시 등재된 사찰 중 하나다.

그때 한국의 산사를 소개하는 설명문에는 '승가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한 울력을 수행의 한 부분으로 여겨 오늘날까지도 차밭과 채소밭을 경영한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고찰들의 차 재배가 불가분의 일상이었음을 설명한다.

통일신라 시대, 도선국사가 창건한 선암사. 태고총림의 기풍과 함께 지켜온 수많은 보물과 문화재, 수백 년을 살아온 꽃과 나무들. 이곳은 사찰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생명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과 함께 성지가 되어버린, 선암사의 야생 차밭이 있다.

과거 도선 국사가 지금의 선암사 일주문 주변에 처음 차를 심고, 대각 국사가 칠전선원 뒤로 차밭을 일군 뒤 선암사는 한국불교의 다례 문화를 상징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도 선암사를 둘러싼 저 조계산, 그리고 일주문 앞에는 흐르는 계곡물을 해자처럼 두른 신비로운 차 숲이 펼쳐져 있다.

만약 일반적인 대규모 다원에서 볼 수 있는 잘 다듬어진 차나무의 모습에 익숙하다면, 선암사 차밭은 무심코 지나칠지도 모를 일이다. 이곳의 차나무는 인위적인 손길을 거두고 제 기운대로 가지를 뻗으며 자라난 야생 그 자체이기 때문.

차의 맛과 향은 뿌리에서 비롯된다 했던가. 외래종 차나무가 얕은 뿌리로 인해 잦은 병충해로 쓰러지고, 하여 더 많은 비료와 농약 살포로 끝내 토양까지 병들게 하는 것. 이는 근 천 년 전 이 땅에 심어진 산사의 차나무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다.

뿌리 깊은 나무

선암사를 비롯해 이 땅에 토착화된 산사의 야생 차나무는 그 뿌리가 1m가 넘도록 단단히 자리한다. 그렇게 뿌리 내린 차나무는 설령 불에 타더라도 반드시 다시 새잎을 낸다는 것이다.

거름을 주고 키워 두고두고 잎을 생산하거나, 곡우 전에 부러 찻잎을 따 별도의 우전차를 만드는 대신, 선암사는 절기에 맞춰 단 한 번의 제다(製茶)를 마친다.

같은 규모의 차밭에 비해 수확량은 1/10밖에 되지 않지만, 이런 방법을 고수하는 것은 불가가 자연을 대하는 겸허와 자비의 실천이리라. 한 잔의 차에서 선을 구하고, 그 정수 안에서 삶을 일치시키려 했던 다선일여(茶禪一如) 사상은 지금도 고고히 흐른다.

선암사를 향하는 길은 아름답다. 저 유명한 선암사 승선교의 용머리는 모든 사악하고 불경한 것을 제압하고, 불법의 세계를 지킨다고 했던가. 그 불패의 비호 안에서 향기 어린 찻잎도, 깨달음을 향한 간절한 바람도 조용히 자라난다.

여름이 오기 전 가장 먼저 딴 찻잎은 부처님 전에 오르고, 선암사 가는 길은 차향으로 가득하리라.

〈작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독시 석결명죽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 루 자 죽 염 125g 45,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82,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50,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대행 스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등을 켜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한국 불교 자체가 기복으로 전락된 지도 무척 오래됐습니다. 여러분은 정신계와 물질계가 동시에 움죽거려 생각하면서 뛰고, 뛰면서 생각해야 하는 이 지금 현시대를 똑똑히 보시면서 행하십시오. 기복으로 전락이 된 것뿐만 아니라 너무 구태의연하게 변함도 없고 발전도 없고, 차라리 예전 삼천 년 전에 하던 그 식으로만 해도 좋을 텐데, 이조 말엽 때에 그 탄압에 못 이겨서 모두 방편상 세워 놓고 가져오는 것들을 가지고 공부들을 하면서 이런 첨단의 시대에도 그대로 지금까지 개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더 참답게 이것을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진화돼서 창조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자재권을 가지고 있으며, 해탈권을 가지고 있고 부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100%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릴까 봐 지금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합니다.

부처님은 하나인 것입니다. 왜 하나냐고요? 부처님이 찰나에 나투시면서 응해 주시는 그 응신이 바로 풀 한 포기에도 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보시를 달라고 한다면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도 자동적으로 응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만 분이 성불을 했고 열반계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지 둘이 아닙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도 어느 몸이 내 몸이 아닌 게 없이 나투시고, 어느 마음도 내 마음 아닌 게 없이 나투시고, 어느 자리도 내 자리 아닌 게 없이 나투시고, 어느 모습 하나도 내 모습 아닌 게 없느니라 하신 까닭에, 부처님이라는 그 이름은 어느 것이 될 때에 부처님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아버지다 어머니다 하고 이렇게 이름이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부처님의 마음은 아촉도 되고 아미타도 되고 관세음도 되고 지장도 되고 칠성도 되고 산신도 되고 용신도 되고 약사도 되고 지신도 되고 신중도 되고, 모든 게, 아니 되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 전력 하나로 여러 용도를 다 쓰듯이….



그림 · 최주현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한 분을 모셔 놓은 것도 우리 모르는 중생들을 위해서 해 놓은 방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방편으로 모셔 놓은 그 자체를 알고 보면 그게 실체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요, 내 형상이요 바로 내 마음이요 내 생명이요 둘이 아닌 까닭에 그대롭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모습으로 움죽거리지마는, 우리의 마음이 한마음으로 조성이 된 이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들이 다 거기에 포함돼서 나고 든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우리 공부하는 데는 한 분만 모셔 놔도 족하다는 것은 그래야 우리가 마음을 한데 모아서 헛갈리지 않고 잘 공부할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방생입니다. 방생은 예전에 물이 오르고 다시 내려올 때에 고기들 또는 지렁이, 미꾸라지 또는 남생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모두 그냥 산에 떨어지거나 길에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런 예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님네들이 물 바깥에 흘어진 그 생명들을 위해서 이만한 그릇에다 물을 담아 가지고 거기다 주워 담아서 물에다 넣어 줬다 이겁니다. 그것이 유래가 돼서 이렇게 방생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대가 발전이 되는 이 시점에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서 마음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생이라는 거는 물 바깥에 난 것만 방생이 아닙니다. 물을 잃고 바깥에 나선 것을 바로 물에 넣어 주는 것이 방생이요,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방을 얻지 못하고 거리로 나앉은 것도 도와주면 방생이요, 먹지 못해서 굶어서 비실비실하는 것도 도와주면 방생이요, 취직을 못 하고 식구가 다 굶을 정도로 됐을 때에 취직을 시켜 주는 것도 방생이요, 어려울 때에 무주상 보시로써 도와주는 것도 방생입니다. 또는 부모가 없이 자라는 애들 한테 보시를 하는 것도 방생이요, 어느 거 하나 방생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잘 노는 고기들을 잡아다가 잡는 데 죽이고, 잡아다 놓는 데 죽이고, 또 방생해서 물에 갖다 넣는 데 죽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마는 8·15 해방 되기 전의 얘깁니다. 탄광으로 붙들려 가고, 모두 징용으로 붙들려 가고, 정신대로 붙들려 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붙들려 갔습니다. 붙들려 가서 8·15 해방이 되니까 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네 집들을 찾으러 산지사방으로 흐트러져서 그냥 그 차 꼭대기에도 타고 오고, 위도 타고 또 어디 타지 못하고 걸어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무수히 죽어갔습니다.

그와 같이 고기도 자기 놀던 집이 있습니다. 미꾸라지는 미꾸라지대로 진흙물이 자기 집이요 또는 어떠한 고기라도 물에 넣어 주면 몇십 리라도 자기 놀던 데로 갑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 집 찾아가듯. 그러다가 중간쯤 가서 죽고 중간도 못 가서 죽고 이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거 놀부 짓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방생은 그래서 지금 고기들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생은 폐지해야 됩니다.

셋째 천도재, 제사 이런 걸 말하겠습니다. 천도라는 것은, 우리가 육의 부모의 조상이나, 법의 부모의 조상이나 조상은 크고 작을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왜 똑같으냐. 자식이 물에 빠지면 부모는 자기가 물에 빠져 죽더라도 그 자식을 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지 않는 마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죠? 그건 부정 못 하죠?

그런데 한 가정에서만이 그런 것이고, 이 법의 부모는 전체의 부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작든 크든 그 아리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조건 없는 마음, 이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상은 다 한자립니다. 여러분이 '한자리가 아니야.' 하면은 한자리가 아니게 됩니다. 이 생각이라는 게 아주 기구하고 운명적이고 묘한 것이고 광대한 것입니다, 이 생각 하나가. 생각 하나가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냥 부도가 나게 하고, 생각 하나가 모두 망하게 하느냐, 회사를 일으키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생각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찰떡을 뚱그렇게 하나 해서 놓고 초, 향, 물 이렇게 놓고 지내는 것에 불평불만이 없었습니까? 그렇게 지내는 그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공양'이라고 하죠. '떡공양' 합니다. 떡공양 하면은 그 떡 하나로 인해서 일체 만물만생이 다 먹고도 남음이 있다 이겁니다, 되남는다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수박을 죄 먹고 그 씨를 되심어서 또 수박이 나면, 수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바라지 않는 마음, 조건 없는 사랑을 하세요

☞ 19면에서 계속

박을 되먹고 또 씨가 남고 이러듯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두의 떡공양입니다, 그래서.

공양, 전체가 다 먹을 수 있다. 원자가 입자가 되고 분자가 돼서 수효가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어도, 다 통신이 되고 전달이 되고 이렇게 같이같이 어울려서 돌아가면서 원자가 됐다 입자가 됐다 분자가 됐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리가 그렇게 많아도 다 통신이 돼서 내려 먹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이 마음들도 '부처님 공양한 그릇' 하면, 공양, 이 공양 한 그릇 할 때에 벌써 공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향! 누구가 덜 먹고 더 먹고 이런 게 없이 이 전부 허공이 다, 전체가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나물, 국 뭐, 이런 거는 사람이 살던 습관에 의해서 부모를 위한다고 그렇게 전부 차려 놓습니다. 그러면 그 차려 놓은 것만 영령이 보지 그 외의 것은 보지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식들이 차려 놓은 요거를 요렇게 차리고 요렇게 차렸다는 마음이 있는데 자기가 차린 거 자기가 모르겠습니까? 그 마음을 본다 이겁니다, 조상이. 그 마음을 보고 그 차려 놓은 것이 얼마만 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허공 전체가 내 것 아님이 없이 그 떡 하나로써 해 놓는다면, 떡공양을 해 놓는다면 이 전체 돌아가는 그 광대무변한 법을 조상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쉬운 게 없어집니다, 내 것 아님이 없기 때문에.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고, 내 것 아님이 없고, 모두가 내 아픔 아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사랑, 의리, 도의, 질서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역력하게 부처님과 한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려 놓고선 오히려 여러분의 작은 마음에서 정성을 한다고 또 때로는 네가 더 댔느니 내가 더 댔느니 또는 너는 마음에도 없는 거 했느니 말았느니 하고 서로 말다툼을 해 가면서, 그 음식도 돈을 더 댔느니 덜 댔느니 하면서 차립니다, 그나마도.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길러 준 은혜, 낳아 준 은혜 또는 모든 은혜를 생각해서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덕 향을 올려라. 이 마음은 밝은 마음으로서 지혜롭게 마음을 아주 선명하고 광대하게 내어서, 그것은 향입니다. 마음을 내어서 이 떡공양을 올릴 때 모두가 부처님 한자리로 올려질 때에 모두가 통신이 되고 하달이 되고 그래서 모두가 다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내 거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거나 안 보이는 거나, 생각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모두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무명이 저절로 벗겨진다 이 소립니다. 돌아가신 부모들도 무명이 저절로, 얽히고설키고 묶여있던 무명이 그냥 벗겨진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한자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마디를 마저 해야죠. 사람이 죽으면 인과로 인해서 뭉쳐져 있는 그 업식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속에 든 중생들이 다 그렇게 한다면 어느 사이에 그 공덕을 받아서 자연적으로 그 무명이, 묶였던 무명이 바로 무너지면서 풀어지면서 이것은 자유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이거 지내고 또 저거 지내고….

이것이 목탁으로 두들기고 염불만 해서 천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을 많이 차려 놓는다고 해서 영령들이 다 먹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살아생전에 살아오던 습 때문에, 그 습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떠나질 못하고 그냥 뱅뱅 돌고 돌면서 아는 집으로 돌고 떠나질 못하고, 반찬이나 국이나 이런 거 해 놓는 것만, 그 냄새나 맡으려고 하고, 이렇게 오히려 자손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이 개선해야 한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천도재도 그렇지마는 제사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둘이 아니기에 항상 제사도 집에서 지낼 때에 그렇게 향, 초, 다기물, 물은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밝게, 초는 밝은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밝은 마음으로써 아주 발전적인 마음을 내는 게 향입니다, 마음의 향. 그런 데다가 바로 떡공양을 하면서 제사를 올리면서, 세 번 절하고 네 번째 가서 '이 모든 일체 부처님 자리에 한자리 하게 하는 것도 주인공밖에 없어.'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으면은 그대로입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부모님이 승천을 했다고 해서 안 지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 기리는 마음이니깐 말입니다. "천도재를 지냈는데 왜 제사는 지내?" 이러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언제나, 언제든지, 부모한테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지수화풍에도 그 감사한 은혜가 있고, 국민의 은혜, 일체 만물의 은혜, 하다못해 이 돌의 은혜, 모든 식물의 은혜, 이 은혜가 아니 되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포함해서 모두 한마음에 그저 둥글리는 마음으로써 한생각으로 둥글려 놓고 참 참다운 생각을 한 번 한다면, 그거는 삼만 번을 절하는 거보다 낫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침착하게 개선해 나가고 마음으로써 발전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없이 타개할 수 있고 물리가 터지게 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끔 하는 것이 모두 좋은 일이며, 스님네들이나 여러분이 다 그러합니다. 스님네들은 부처님의 대리로서, 여러분이 볼 때는 방편으로 대리 역할이요, 진실로서는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뜻과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이치를, 진리를 그대로 우리는 받아서 행해야 될 것입니다.

또 넷째, 예수재 등을 하고들 있습니다. 예수재를 얼른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요 다음에 목돈을 쓰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를 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치를 한 돈을 은행원들이 예치를 해서 통장에다가 딱 넣어 주고 그러면 됐지, 그 돈을 부숴뜨려서 음식을 만들고 닷새 엿새 이레까지 두들기고 온통 해 봤자 오히려 그 예치한 사람들의 손해란 말입니다. 예치를 한 돈에서 부숴으니까. 그러니까 예금을 찾아갈 때에 외려 예금한 돈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냉철하게 말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외려 줄어든다 이겁니다. 줄어도 아주 많이 줄어들죠. 왜냐?

그렇게 부숴뜨리죠, '인제는 이렇게 해 줬으니까 내 거다.' 이러고 쓰죠? 아, 이러니 공덕이 하나나 될 게 뭐 있습니까? 요 다음에 나올 때에 예금통장커녕 아무것도 가져 나올 게 없어져. 부숴뜨려 놓은 뒤에도 그 돈이 바로 내 절에 들어온 거니까 내 거다,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 버리는 수가 많거든요. 그러니 쓸 데다가 써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공덕이 안 된다 이겁니다. 해주는 사람과 해 달라는 사람과 같이 맞아야 불이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런데 예수재를 올릴 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은행에다가 올리게 되면 상부에까지 지시가 갑니다, 이 돈 문제가, 즉 자재천에까지. 그래서 경리과에서, 경리과에까지 하달이 됩니다. 그래서 경리과에서 이 사람이 아무 때 연분에 이렇게 했는데, 아무 때 연분에 나갈 때는 이 통장을 찾아 가지고 나간다는 기록까지도 다 예치가 된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는 것을 우리가 전부 알고, 이 세상에 만물만생이 전부 우주간 법계에 다 전달이 돼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건 없어요. 절대적입니다.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을 때에 돈대로 물건 사지 내가 물건 사고 싶다고 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철칙입니다. 그러니 예수재라는 게 두들겨서만 되는 게 아니고, 마음씨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스님네들 피곤하지 또 예금한 거 부숴지지 또는 아무렇게나 써서 온통 공덕이 되질 않아서 남이 정작 찾아 가지고 나갈 땐 맨손 들고 나가게 한다면 그 업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다면 구렁이 밖에 더 되겠습니까? 수없이 모습을 갈아서 바꿔서 무명을 쓰고 나오는데 말입니다. 허! 이 도리를 안다면은 참 무서운 도리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것이 그대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주 그대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아주 좋습니다.

다섯 번째, 초파일 등입니다. 하하하. 이 초파일 등, 전자에 보면 말입니다, 갖은 사찰에 돈 많이 내는 사람은 큰 등, 돈 적게 내는 사람은 작은 등, 얼마짜리 얼마짜리 얼마짜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다 똑같듯이, 이것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등은 누구나가 다 똑같이 달아야 합니다, 똑같으니까. 그러나 불을 켜는 사람에 의해서 이거는 철두철명하고 에누리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백만 원을 했으면 백만 원의 물건을 가져갈 거고 만 원을 냈으면 만 원짜리 물건을 가져갈 거고, 그건 자기네들 자유지, 자기네들이 어떠한 애고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자유스럽게 할 뿐이지, 왜 스님네들이 걱정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스님네들은 남이 얼마만큼 아픈지 얼마나, 어떠한 용도인지 그것도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본인은 너무 잘 알거든요. 내가 애고가 이런 것이 있다, 병고에 이렇게 휘달린다, 내가 취직을 못 하고 놀아서 가정이 아주 살기가 어렵다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가왔을 때에 자기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자기 거짓이 없이, 자기가 쓰레기가 많아 치울 것이 몇 트럭이라면은 몇 트럭 값을 있으면 내야 하고, 몇 트럭 치울 거라도 내가 몇 트럭 치울 금액을 줄 수가 없을 때, 어려워서 줄 수가 없을 때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등을 켜야 되지 않을까요? 다만 얼마라도 내고 말입니다.

그러니만큼 이거는 등도 똑같아야 하고, 정성은 정성대로 여러분의 차원대로 정성을 지극하게 해서 하시는 게 바로 사월 초파일날 등입니다. 마음의 밝음! 그래서 마음의 등이라는 것은 아무리 소낙비가 쏟아지지 않아 천하 없어도, 바람이 불어서 온통 나무가 쓰러지고 불이 다 꺼져도 마음의 불이라는 것은 꺼지질 않습니다. 이러한 등을 켜십시오. 이러한 등을 켜시는 것이, 우리에게 공덕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을 갖게 되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게 되고, 세세생생에 이 고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심사숙고하고 잘 들어서 그대로 행하시면 이 시대에서 아주 빠지지 않는 삶을 누릴 거고, 빠지지 않는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꺼지지 않는 마음의 등을 켜십시오.
이러한 등을 켜시는 것이 우리에게 공덕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보람을 갖게 되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게 되고,
세세생생 고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3년 5월 16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강소연의
수행 다이어리

⑧ 분리와 전환

사마타 수행이 준 선물 '무'〈無〉

사마타 수행이 준 가장 큰 선물은 '무(無)'에 대한 눈뜸이다. 평생 '있는 것〔有〕'만 보고, '없는 것〔無〕'은 보지 못했다. 사마타 수행을 통해 의식이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비로소 허공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즉, 물고기가 물을 모르고 몸이 공기를 몰랐던 셈이다. 건물·전신주·집·사람·자동차·동물 등 있는 것만 보았지, 그것이 '허공'이라는 바탕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은 몰랐다.

분리

흑백사진을 인화하기 전, 필름에는 허공이 까맣게 드러나고 피사체가 하얗게 보인다. 필름은 바탕과 물체의 실루엣을 반대로 보여준다. 의식이 (작은) '나'로부터 분리되어 (크나큰) '바탕'으로 전환되면, (마치 필름에서처럼) 바탕(또는 허공)의 존재를 확연하게 인식하게 된다.

사마타 수행으로 일순 '의식과 무의식'의 작용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면, 마치 천근이 빠져나간 듯한 가벼움을 느낀다. 하늘을 훨훨 난다. 24시간 365일 평생을 괴롭히던 의식과 무의식에서 잠시 벗어나 인생 처음 진정한 휴식을 맛본다. "아~ 살 것 같다!" 기존에는 내 눈높이로만 세상을 보았는데, 이제는 나를 벗어난 객관적인 관찰자 시점이 확보된다. 그렇게 되니 타인의 의도가 훤히 꿰뚫어 보이기도 하고, 나도 그저 남처럼 군중 속의 한 인물로 보인다. 그리고 내 의식의 경계선 밖에 있던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게 된다.

더 이상 '나의 인생' '나의 과거' '나의 고통'이 아니라, 그냥 남의 일처럼 맹숭맹숭해진다. 갑자기 꿈에서 깬 듯, 취기에서 벗어난 듯, 울음이 뚝 그친 듯, 그렇게 한순간에 집착이 떨어져 나가고 의미가 없어진다. "이제 뭘 하지? 시골로 가나? 자연인이 되나? 서원(誓願)을 세우나?" 항상 너무나 바빴는데, 이제 딱히 할 게 없네! 생존적 허덕임이 멈춘다.

'무(無)'에 대한 눈뜸

하지만 그것도 잠시. 외출했던 의식은 이 몸이 제집인 양 다시 돌아온다. 하늘을 훨훨 날던 의식은 다시 감옥에 꽁꽁 갇힌다. 광활



의식이 작은 '나'로부터 분리되고, 크나큰 바탕 자리(허공)로의 전환이 일어난다. ©강소연

한 투명 의식과 잠시 하나가 되었다가 다시 시커먼 거적때기를 뒤집어쓴다. 내 몸과 마음(업식)에 다시 와서 찰떡처럼 붙어버린 의식. 이것(내 몸과 마음)이 예전에는 감옥인 줄 몰랐다가, 이제 감옥인 줄 알았을 때의 그 난감함이란! 모르고 갇혀 있을 때와 알고 갇혀 있을 때는 얘기가 다르다. 고질적인 업력은 다시 돌아가고…. 곤두박질친다. 휘둘리는 줄 '모르고' 휘둘릴 때보다, 휘둘리는 줄 '알고' 휘둘리는 것이 더 고약하다.

하지만 사마타 수행이 준 선물은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바탕자리(허공)로 의식을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없음(無)'에의 눈뜸. 이것만으로도 삶의 도피처가 생긴 것이다. 숨통이 트인 듯, 살 구멍이 뚫린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 '있다(有)와 없다(無)', 'In and Out(들어가고 나가기)'을 무한 반복하게 된다. 고통이 오면 바탕자리로 의식적 전환을 하여 잠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냉탕(바탕자리)과 온탕(업식자리)'을 오가며 끓탕과 해방을 반복한다.

그 이유는 '유有'라는 덩어리 개념에서 '무無'라는 덩어리 개념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덩어리 대(vs.) 덩어리'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정의 힘이 약할 때는 하릴없이 업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무(無)의 이미지'로 전환하지 않고, 지금 '현재'에서 몸의 '무상성(無常性)과 공성(空性)'을 보는 방법은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서 가능하다.

'덩어리'로 볼 것인가, '분해'해서 볼 것인가

사마타의 대상은 이미지 또는 개념인데, 이는 모두 덩어리로 인식된다. 반면, 위빠사나의 대상은 '유동성'이다. 즉, 형성되고 움직이고 변화하는 대상의 속성과 그것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 요소들의 실체를 꿰뚫어 본다. 모든 것은 '변화 중에 있다'라는 제행무상(諸行無常) 또는 만물유전(萬物流轉, 만물은 흐르고 있다)의 진리이다. 즉, 한 장짜리 사진(still cut, 정지 사진)이 아니라, 움직이는 동영상(motion picture, 활동 사진)으로서의 실상이다.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 나와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점이 열리는데, 그것은 나와 세상을 더 이상 (덩어리가 아닌) 분해해서 보는 방법이다.

정리하면 먼저 사마타 수행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의식의) 분리를 통해 고요함〔定〕을 획득하고, 그 자리에서 발사되는 빤야〔慧, 통찰지〕를 통해 (덩어리로 보였던) 대상을 해체해 버리는 것이다. 연기(緣起)하는 모습을 통찰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공성(空性)이 드러난다. 이것이 붓다의 수행법(사마타+위빠사나, 정혜쌍수定慧雙修, 지관겸수止觀兼修)의 핵심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⑧ 임산부가 시기별로 챙겨 먹으면 좋은 영양제

임산부 영양제, 병원·약국 도움으로 신중한 결정을

어느날 20대 중반 남짓 되어 보이는 여성이 약국으로 들어와 은밀하게 말을 건넨다.

"여자 약사님은 없나요?"

"네. 약사라고는 달랑 저 하나입니다."

"임신테스트기 하나 주세요."

"아… 생리 예정일이 지나셨나요?"

"그건 왜요?"

"생리 예정일 전이면 감도가 좋은 빠른 테스트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생리 예정일이 지났다면 좀 더 확실히 결과를 알 수 있는 테스트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큰둥하게) 딱 예정일인데요?"

약국 안에서는 늘 당당한 필자이지만 이런 까칠한 손님과는 대화를 원활히 진행할 자신이 없다. 대화를 중단하고, 원하는 제품을 계산해 드린 뒤 그래도 가시는 뒷모습에 한마디 인사를 건네본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따스한 봄날, 이번 회차에서는 다름 아닌 임신 중 필요한 영양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우리가 임신을 확인하는 순간은 빨라도 임신 5주에서 8주 사이이다. 그래서 임신 극초기에는 영양제를 복용하려고 해도 딱히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임신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겠는가? 딱 하나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임신 준비부터 임신 중까지 꾸준히 먹는 것으로 알려진 엽산 정도가 있겠다.

엽산은 비타민B9의 별칭이며, 임신 초기 태아의 신경관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소이다. 그렇기에 엽산이 부족하면 조산이나 태아의 체중 미달, 성장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엽산이 결핍된 경우에는 태아의 척추와 신경관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 선천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습관적인 유산을 할 수도 있다.

가임기 여성이나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의 경우에는 하루 400㎍ 이상의 엽산을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임신 시에는 엽산의 필요량이 증가하므로 하루 600㎍ 이상의 엽산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만약 엽산 결핍으로 인하여 유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면 그 이상의 엽산을 섭취하는 것이 추천된다. 엽산 제품도 좋지만, 천연으로 섭취를 원하는 경우는 엽산이 다량 함유된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엽산이 많이 든 음식으로는 쑥갓, 메추리알, 시금치, 들깻잎 등이 있다.

임신 초기에는 입덧이 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른 영양제를 따로 권하지 않는다. 임신 중에 필요하다고 알려진 철분이나 칼슘, 오메가3 등은 임신 초기에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뿐더러, 모두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뜩이나 속이 불편한 임신 초반에는 복용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입덧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태아의 성장 단계에 맞춰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태아 · 임부 상태 따라 영양소 달라

평온한 상태 태교가 좋은 영양제

임신 중기로 넘어가서는 태아의 혈액생성이 활발해지고 산모의 혈액 필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철분제 복용을 추천한다. 산부인과에서 혈액검사를 통해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 철분제를 처방받기도 한다. 보통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철분제는 함량은 높지만 변비나 속쓰림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철분의 함량이 낮더라도 흡수율이 높고 부작용이 덜한 유기철분 제제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철분제 복용 시에는 항상 충분히 물을 마시고, 비타민C가 풍부한 음료나 과일을 함께 섭취한다면 철분의 흡수를 높일 수 있다.

임신 후반기에는 태아의 뼈와 치아의 형성을 돕기 위해 칼슘이 필요해진다. 하루 약 1000mg의 칼슘 섭취가 권장되며 우유, 치즈, 요거트 등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후반기에는 태아가 뱃속에서 커지면서 위나 장을 누르기 때문에 음식섭취량이 줄고 속이 다시 불편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칼슘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칼슘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다만 칼슘과 철분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다면 이 둘은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다.

임신 중 필요한 영양소를 하나 더 추천하자면 오메가3이다. 오메가3는 EPA와 DHA 성분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DHA 성분이 태아의 두뇌 발달과 시각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임산부는 오메가3를 고를 때 약사의 추천을 받아 DHA가 풍부한 오메가3를 고르는 것이 좋으며, 오메가3의 중금속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식물성 오메가3를 고르는 방법도 있다. 오메가3를 섭취하는 분 중 출산 시 출혈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고용량만 아니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너무 우려되면 한 달 전부터 중단하면 문제없다.

임신과 출산은 한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하는 굉장히 숭고한 과정이며, 부모 입장에서는 인생에 한두 번 겪을까 말까 하는 특별한 이벤트이다. 뱃속 태아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태아의 성장 시기와 임부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가 모두 다르니 이는 병원과 약국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결정할 일이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가 있다고 한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욕망과 집착이 소멸된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태교를 한다면 아이는 저절로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날 것이다.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안양시 시민인성함양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한마음부모교육

행복한 부모의 길
공감과 소통



신 청 안 내

수 강 료 : 무료
대 상 : 지혜로운 부모가 되고자 하는 누구나 (35명)
일 정 : 5월 1일 ~ 6월 19일 매주 목요일, 8주간
오전 10시 ~ 오후 1시
장 소 :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
신청방법 : hansi.org 또는 전화
전 화 : (031) 470-3200, 3196

신청QR코드

행복한 부모의 길-공감과 소통 교육은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또는 살아가려는 모든 분이 부모 이전의 자기자신을 수용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며 삶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전법 일기

오온이 공함을 알게 되니 "중생 위해 살겠다" 서원

처음 해리(Harry·가명)를 본 것은 주한미군 잡지에 조계종 국제포교사를 멋지게 소개한 기사에서였다. 40대 후반의 건장한 남성이 봉사를 한다기에 처음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미군부대가 주둔한 도시에 살고 있어 미군들의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미군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귀의시키려는 서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흔히들 세계 최고의 부자 국가인 미국의 국민이자 군인이라고 하면 우리보다 잘 살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미군 상당수가 자살을 한다고 한다. 이를 알게 된 해리는 불교의 살생을 금한다는 계율과 함께 자살도 살생이며 내생에 그 업보를 받을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미군부대 내에 직장을 잡고 부대 안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사실 해리는 삶의 꿈이 있었다. 해외지사에 수년간 근무하며 저축을 하고 있었고, 목표액이 만들어지면 귀국해 집을 장만하고 가정을 이루려 했다.

그런데 별안간 아버지가 속히 귀국을 종용했다.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져 때로는 아버지에게 물건을 들고 폭력을 휘둘러 위험한 지경도 있었다는 것이다. 어머니를 말리다 사고라도 날까 염려되니 아들이 귀국했으면 좋겠다는 전언이었다. 큰형은 이미 작고한 상황이고 다른 형제도 돌볼 상황이 안돼 결국 막내인 해리가 직장을 사직하고 귀국했다.

해외 근무시절에는 퇴근 후 회사 숙소에서 환산 스님의 참선 방송을 보고 실참하며 참선 수행을 하고 영어로 된 불교서적을 읽는 것이 커다란 기쁨이었다. 때로는 해변으로 포행을 하기도 하였다. 포행을 할 때는 언제나 〈반야심경〉을 염송했는데 어느 날 포행 중 별안간 벼락이라도 맞은 듯이 머리가 시원해지며 〈반야심경〉 내용이 눈앞에 펼쳐지며 이해가 됐다. "관자재보살님께서 행심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확연히 이해가 되니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해법을 알게 됐다. 이내 환희심이 일어났다. 더 이상 집착에서 오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다는 자신감과 힘이 생겼다.

해변을 포행하며 경험한 그 순간을 나누며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해 살리라 서원을 세웠다. 아버지는 병환이 악화돼 극락으로 가셨다. 평생 학자로 살면서 불법을 가르치신 아버님은 분명 아미타 부처님과 함께 극락에 계실 것이라 확신한다.

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점점 악화돼 가고 있지만 불쌍한 중생으로 보면 너무나 가여워 변을 사방에 묻혀도 가슴에서 눈물이 난다. 중생들이 너무나 가엽다. 어머니가 생존하고 계신 동안 집 근처에 주한 미군부대에 수많은 가여운 중생을 위해 전법을 하리라 서원한다.

나무 석가모니불.



조정희
국제포교사, 명상 전문 트레이너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⑮ 성철 스님의 오도송

본질 함께 봐야 깨달음의 눈 얻는다

청산은 여전히 흰 구름 속에 있네

황하가 서쪽으로 거슬러 올라 곤륜산 정상 오르니(黃河西流崑崙山)
해와 달은 빛을 잃고 땅은 꺼졌네(日月無光大地沈)
문득 한 번 웃고 머리를 돌리니(遽然一笑回首立)
청산은 여전히 흰 구름 속에 있네(靑山依舊白雲中)

성철(1912~1993) 스님은 동아시아 근현대불교사의 거성(巨星)이다. 팔공산 성전암에서 수행할 때는 철조망으로 암자를 둘러치고 10년을 두문불출하며, 투철하게 눕지 않고 장좌불와(長坐不臥) 정진래 수행의 전범을 보여 구도자의 표상이 되었다.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해인사를 참배했을 때 영접하지 않고 "산에 사는 중이 뭐 할라고 대통령을 만나노"라고 하였다. 권력에 아부하고 굴종하는 것은 출가 수행자의 본분이 아니라고 당당한 모습을 보인 일화는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선가의 귀감(龜鑑)이다.

한국 현대불교는 성철 스님에 의해서 국가와 일반 대중으로부터 현재와 같은 존중과 귀의의 종교적 위상을 회복하였다. 스님을 찾아오는 모든 신도에게 평등하게 돈 보따리와 계급장은 일주문에 걸어놓고 들어오라 하였다. 그리고 부처님께 3000배를 시켰다.

1981년 조계종 제6대 종정에 추대돼 취임식을 대신하여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의 법어를 내렸는데, '이 법어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문제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상세계는 눈으로 보면 그냥 "산은 산이다." 그런데 공(空)의 이치를 깨닫고 보면, "산은 산이 아니다." 현생계의 사물(色)은 실체가 없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인연화합으로 잠시 모습을 만들고 있는 허망한 환상(空)과 같은 것이다. 즉, 색즉시공(色卽是空)이다.

현상계와 본체계의 세계를 확실히 깨닫고 보면 "산은 역시 그대로 산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가 역시 진리의 세계이다. 현실의 세계를 볼 때 본질의 세계를 함께 봐야 변화하는 현실의 세계에 집착하지 않는 참된 지혜의 눈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성철 스님은 1·2구에서 "황하의 물이 서쪽으로 거슬러 올라 곤륜산 정상에 오르니"라고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언어도단이다. 현상계의 존재(有)를 부정하는 공(空, 본체계)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깨달음의 심경을 표현한 것이다.

중국은 서쪽이 높아 대체로 물이 동쪽으로 흐른다. 가장 높은 곤륜산은 서쪽에 있고, 여기에 황하의 발원지가 있다. 황하가 동쪽으로 흐르는 데서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겼다. "황하는 일만 번을 꺾어 흘러도 반드시 동쪽으로 흐른다"는 뜻이다.

원나라 고봉(高峰) 선사는 선의 요체를 밝힌 설법집인 〈선요〉에서 이런 깨달음의 경계를 "그 순간 온 우주가 부서져 산산조각이 나고, 땅 전체가 푹 꺼지는 걸 느꼈다"라고 하였는데, 성철 스님도 "해와 달은 빛을 잃고 땅은 꺼졌네"라고 하였다.

3구 "문득 한 번 웃고 머리를 돌리니"는 선가에서 어리석은 마음을 돌이켜서 머리를 돌리는 깨달음을 표현한 용어이다. '전심(轉心) 회수(回首)'이다. 4구 깨닫고 나니 "청산은 여전히 흰 구름 속에 있네"라고 했다. '촉목청산(觸目靑山)'이다. 깨달음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 일상생활과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청산'은 깨달음, '흰 구름'은 일상의 세계'를 상징한다.

성철 스님은 〈본지풍광〉 〈선문정로〉 〈한국불교의 법맥〉 등 걸출한 선서(禪書)를 남겨 선학과 참선 실수를 통한 오도(悟道)의 경계를 겸수한 우리 곁에 함께 했던 큰 바위 얼굴이다.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올해 봉축도 등을 만들고, 등을 단다

부처님오신날이 가까워지면 도심 곳곳이 알록달록한 연등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올해도 거리를 환히 밝힐 연등 제작에 수많은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찰에서, 회사에서, 집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연등에는 저마다 발원이 함께 스며있다.

조계종종무원조합도 바쁜 업무 속 짬을 내 연등 만들기에 나섰다. 종무원 300여 명은 4월 11일부터 점심시간을 이용해 부서별로 '1인 1연등'을 만들고 있다. 이들이 정성스레 만든 연등은 4월 25일 조계종 총무원 로비를 환하게 밝힐 예정이다.

전국 사찰과 불교단체들도 각자 자리에서 연등을 만들며 봉축을 준비하고 있다. 매년 독특한 장엄등으로 주목받는 한마음선원은 골조, 전기, 채색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팀을 꾸려 연등 제작에 매진하고 있다. 동국대 대학생 불자들도 교내 연등공방에서 학교 마스코트인 '아코등' 제작에 한창이다.

우리는 왜 해마다 연등 제작에 마음을 쏟을까. 하나하나 연잎을 꼬고, 풀을 바르고, 골조에 꽃잎을 붙이는 모든 과정이 수행이고 발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수행은 혼자보다 여럿이 함께할 때 더 깊은 울림을 준다. 함께 등을 붙이고, 서로의 손을 거드는 그 순간마다 마음은 밝아지고 자비심은 또렷해진다. 봉축은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다.

불교 경전에는 등불의 의미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빈자일등(貧者一燈)'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하루 한 푼 구걸로 살아가는 노파가 밤새 모은 돈으로 기름 한 방울을 사 부처님께 공양올리니, 그 등불은 부잣집 수많은 등보다 더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만큼 정성이 담긴 연등은 크기나 모양이 아니라 마음 깊이로 빛을 낸다는 뜻이다.

올해도 우리는 등을 만들고 달면서 나의 안녕과 가족의 평안, 이웃의 행복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마음을 모은다.

직접 해야 비로소 의미 있는 연등 만들기.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조금 더 뜻깊게 보내고 싶다면, 직접 등을 만들어보자.

오롯이 '나만의 봉축'을 위해. 또 세상 모두의 평안을 위해.



김내영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대비심 없는 공부는 작은 공부"

현불논단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봄이 찾아왔다. 황벽(?~856) 선사는 "추위가 한 차례 뼈에 사무치지 않는다면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 향기를 얻을 수 있으리오"라고 하였다. 매화는 봄에 제일 먼저 꽃을 피운다. 곧 추위(고난과 역경)를 견디고, 봄철이 온줄 알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철 들었다'는 말을 하는데, 바로 이 매화에 비유한다. 중국인도 매화를 좋아하지만, 스님들도 매화와 관련된 시가 많다.

하여튼 선사들은 자연(花·木·草)을 통해 깨닫는 인연이 되고, 오도송에 꽃이나 나무가 빠지지 않는다. 몇년 전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관련 논문을 썼다. 어른스님의 발걸음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느낀 점은 한 가지다. 중국의 깨달은 승려들에게 깨달음의 기연(機緣)이 되었던 소재가 꽃과 나무 등인데, 대행 스님의 행적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물론 깨달음이 아니라도 대행 스님은 무정물에 대한 진정한 대비심(大悲心=연민심)을 기본으로 삼았다.

대행 스님의 경우, 출가하기 이전부터 사람이든 동식물이든 중생에 대한 연민심이 스님의 삶 행간마다 드러나 있다. 대행 스님은 출가하기 전, '꺼내고 꺼내어도 줄지 않는 무량광장(無量光藏)을 생각했다. 곳간에 수많은 물건을 쌓아둔다는 것, 진리이든 재물이든 모든 것을 곳간에 두고 (중생에) 베풀어야겠다'는 무량광장 서원을 세웠다. 서원이란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보살 사상이다.

대행 스님, 대비심을 공부 기본 삼아
중생 이롭게 하는 利生 정신을 구현
속환사바 하시어 중생 제도해주시길

대행 스님은 무량광장의 서원을 세운 뒤에 출가한다. 그런데 대행 스님은 출가 전에도 하찮은 풀뿌리나 돌까지도 내면의 불성이 깃들어진 것처럼 느꼈고, 나무나 돌을 봐도 모두가 자신의 생명과 같아 함부로 하지 않았다. 이런 마음인지라 어린 시절에는 나무 한 가지 꺾지를 못했고, 배가 고파도 '내가 살기 위해 너를 꺾으면 금방 피가 날테지'하는 생각을 하였다. 이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스님이 출가 전 부산에서 군복 수선을 할 당시 한센병 환자가 들어온 일이 있었다. 환자는 피고름을 짜낸 옷을 누벼달라고 하였다. 대행 스님은 그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헌 옷은 촘촘히 기워주었다. 이때 대행 스님은 무량광의 창고, 한없이 베풀어도 줄지 않는 보살행을 서원했던 것이다.

이는 마치 불교교리에서 한량없이 성스러운 네 가지 마음이라고 하는 4무량심(四無量心)과 유사한다고 본다. 이후 대행 스님은 출가한 이래 홀로 정진하면서 뭇 중생들, 들짐승이나 날짐승들이 다 나의 벗이었다.

대행 스님이 출가 초기에는 누구에게든 "너도 이생(利生), 나도 이생이니 전부다 다 이생이다"라는 마음이었다. 중생에게 이롭도록 하는 이행(利行, 4섭법의 하나)의 정신으로 살았다. 이런 대행이었기에 스님은 눈물 마를 날이 없었다. 스님께서는 "대비심이 없는 공부는 작은 공부다. 자기의 편안만을 추구하지 말고, 모두가 함께 편안한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셨다.

아무래도 대행 스님께서 빨리 속환사바하지 못할 것 같다. 지옥 문턱에 서서 눈물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도 다시 오셔서 한마음선원을 더 빛내고, 중생을 위해 꼭 오시길 간절히 기원한다.

우리네 이기심의 끝은 어디까질까

세간과 출세간



최원형
환경생태작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선 게 어스름 녘이었는데도 정원수들이 앙상해졌다는 걸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다. 얼마나 가지치기를 심하게 했는지 줄기만 남기고 다 잘라버렸다는 표현이 오히려 적절할 정도였다. 겨우내 달고 있던 잎눈, 꽃눈은 결국 봄볕 아래 펼쳐보지도 못한 채 잘려 나갔다. 지난 겨울 습설로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꺾이며 차량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야기, 사람이 다칠 뻔했다는 이야기를 더러 접했던 터라 올봄 가지치기를 예상했었다. 그러나 습설이 가지치기 이유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나무가 우거지면 새들이 많이 와서 앉아 지저귀니 새소리가 시끄럽다, 새똥이 떨어지니 차량이 피해를 입는다, 나뭇가지를 모조리 자를 이유를 꼽자면 열 손가락이 부족할 지경이다.

올해 강전정(강한 가지치기)이 이뤄지면서 작년까지 못 보던 풍경이 펼쳐졌다. 앞 동 어느 아파트 실외기 뒤로 까치가 나뭇가지를 쟁여두기 시작했다. 아마도 둥지를 지어볼 요량인지 밖으로 삐져나온 나뭇가지만 봐도 양이 꽤 되겠다 싶었다. 뭔가 뜻한 대로 둥지 모양이 안 나온다 생각했는지 바로 위층 실외기 뒤에다 또 나뭇가지를 찔러 넣기 시작했다. 과연 그곳에다 까치가 알을 낳아 품고 새끼를 길러낼지 잘 모르겠다. 둥지를 지을 나뭇가지가 다 잘려 나가니 이제 까치는 인간의 시설물을 살피기 시작한 게 아닌가 짐작할 따름이다. 아마 실외기 주인은 이 사실을 폭염으로 달궈진 어느 날 알아차리고 실외기에 다시는 까치가 얼씬 못 하도록 조치할 것이다. 그리고는 새가 지긋지긋하다 생각할지도 모른다.

강한 가지치기, 나무 고사 주요 원인
잘린 부위로 빗물 스며들어 세균 침투
편리적 판단에 생명은 오늘도 위태로워

가지치기에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강전정은 나무를 살아있는 존재로 여긴다면 할 수 없는 처사라 생각한다. 나뭇가지는 다시 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잘라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는 무지를 증명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봄에 물이 오르고 광합성을 해야 하는데 잎눈 달린 나뭇가지 다 잘린 나무는 대체 어디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 잘린 부위로 빗물을 따라 세균이나 균류가 침투해서 나무가 썩을 수 있다. 겉으론 멀쩡해도 속으로 썩어 들어가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를 만드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아파트뿐 아니라 가로수도 비슷한 신세다. 가게 간판을 가린다, 낙엽이 귀찮다 등의 이유로 나뭇가지는 여지없이 잘려 나간다. 너무 무성해서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잘라달라는 민원도 제기된다고 한다. 나무가 잎을 무성하게 단 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은 대체 어떻게 형성된 걸까?

이렇게 다 잘라내 버리고 나니 키 큰 나무 아래에 있던 관목들이 도드라져 보인다. 관목들은 용케 살아남았으니 운 좋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만간 살충제가 퍼붓고 지나갈 것이다. 애벌레가 꼬이는 꼴 역시 봐 넘길 수 없을 테니까. 일 년 중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짝을 부르고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기르며 열심히 벌레를 물어다 먹이는 와중에 새는 애벌레 숫자를 조절하며 생태계 균형을 잡아준다. 새는 그야말로 자연 살충제인 셈인데 오히려 살충제 남용으로 새들이 먹이 찾는 일은 더욱 고달파질 것이다. 귀찮고 시끄럽고 징그럽다는 주관적 환상에 빠져 편견에 의지한 채 사는 동안, 뭇 생명은 절벽 아래로 속절없이 밀려나고 있다.

社 說

사찰림 관리,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최근 발생한 영남 지역 산불은 사찰과 사찰림이 산불에 매우 취약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불교환경연대 산하 녹색불교연구소가 4월 11일 개최한 '대형산불의 원인과 대책' 주제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불교계가 산림 정책과 사찰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을 이끌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하지만, 사찰림을 관리하는 정책기관들이 산림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필두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으로 연계돼 있어서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사찰림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16일 화엄사 주지 임명식 직후 이뤄진 환담에서 "최근 산림청장과 논의를 해보니, 유관단체별로 협조가 기민하게 이뤄져야 함을 알게 됐다"며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국가유산청 등과 불교계가 연계해 사찰림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찰림은 국토 면적의 0.7%, 산림면적의 1%인 6만 3000ha에 달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평가에 따르면 사찰림의 가치는 3조 100억원으로 추정된다. 사찰림에 대한 가치는 물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찰과 함께 형성된 자연유산으로서 가치와 식생, 생태계는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한다. 사찰림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조계사 담선대법회 성료에 부쳐

조계종 미래본부, 서울 조계사, 전국선원수좌회가 주최한 담선(談禪)대법회가 성료했다. 담선재(談禪齋)라고도 했던 담선법회는 불교가 융성했던 고려 초기부터 국가 주재로 3년에 한 번씩 봉행됐다. 〈고려사〉에 따르면 1155년(의종 9)보제사에서 '보제국담선재(普濟國談禪齋)'를 열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는 그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열렸던 담선법회의 계속이었다.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 간의 법석에는 백담사 기본선원장 영진 스님을 시작으로 석종사 조실 혜국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묵 스님, 백양사 수좌 일수 스님, 축서사 조실 무여 스님, 상원사 선원장 의정 스님, 해인사 방장 대원 스님 등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들이 법사로 나섰다. 법석에는 매회 1000여 명의 대중이 참석해 선사들이 전하는 법문을 경청했다.

7명의 선지식들이 펼친 법석은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을 종지로 하는 조계종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더불어 국가와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마음이 불편한 지금, 국민을 위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조계종은 이 같은 법회를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봉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견의경〉에 따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잠시라도 오롯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복은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크다"면서 법회의 공덕을 설하고 있다. 법이 바로 서 있는 법회는 불교 중흥을 이끄는 힘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탈종 및 제명 공고

- 종단명 : (사)대한불교금강종
- 사암명 : 대명암
- 주 지 : 정도 스님 (속명 : 김형구)
- 주 소 : 대전시 중구 선화로 22번기 25 미르마을A 105동 102호

상기 자와 사암은 본 종단 종헌 종법에 크게 위반된 행위를 하였음으로 탈종을 명한다.
또한 상기 자는 법산 스님의 문도에서 영구히 제명하는 바이다.
따라서 탈종 · 제명 공고일로부터 상기 자는 종단 및 법산 문도에서의 일체 법적 권한이 박탈됨을 천명하는 바이다.

불기 2569년(2025) 4월 11일

(사)대한불교금강종 총무원장 법산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4월 23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4월 23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지금 살아가는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불현듯 엄습한다면

『금강경』 공부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

출간 즉시 불교 베스트셀러 1위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

원영 지음 | 328쪽 | 18,000원
큰글자책 2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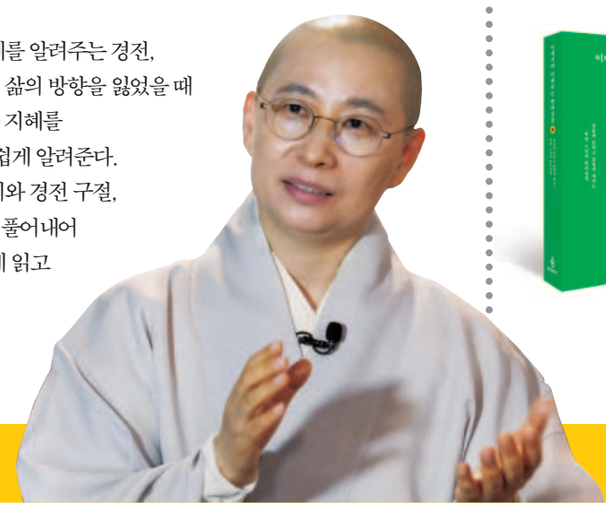
단숨에 읽히고 즐겁게 깨치는 원영 스님의 금강경



"드디어 나왔다!"

『금강경』이 어려웠던 이들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유쾌한 『금강경』 강의!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대자유'의 지혜를 알려주는 경전, 『금강경』! 번뇌와 고민, 두려움에 흔들려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마음의 중심을 잡게 해주는 『금강경』 속 지혜를 '불교 공부 일타강사' 원영 스님이 알기 쉽게 알려준다. 세상 쉬운 언어와 표현으로, 다양한 예시와 경전 구절, 그리고 스님의 경험담과 함께 친근하게 풀어내어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을 누구나 단숨에 읽고 즐겁게 깨칠 수 있을 것이다.



불교 공부 일타강사
원영 스님의
'이제서야 이해되는 시리즈'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352쪽 | 18,000원
큰글자책 29,000원

다양한 예시와 경전 구절, 그리고 스님의 경험담에 불교의 가르침을 녹여내어 단숨에 읽고 즐겁게 깨칠 수 있게 한 불교 입문서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

352쪽 | 18,000원
큰글자책 29,000원

'나'와 이 세상의 실상을 낱낱이 보여주고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는 법을 알려주는 『반야심경』 속 지혜를 다정하면서도 흥미진진하게 알려주는 해설서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이것이 천태불교의 핵심이다!

천태불교의 이론과 실천

인도불교를 중국불교로 최초로 정착시키고 토착화시킨 천태불교의 교학체계와 수행체계 전반을 서구 철학자의 안목으로 알기 쉽게 조명한 역작이다!

브룩 지포린 지음/정천구 옮김/520쪽/값 30,000원

불교철학 초심자들을 위한 안내서!

불교철학 길라잡이

2,500여년에 걸친 불교사상의 변천과 전래과정을 추적하여 불교철학의 주요 얼개를 오늘의 언어로 보여주는, 불교의 지적 전통에 관심 있는 독자들을 위해 개론서이다.

이규완 지음/276쪽/값 20,000원

인공지능시대,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

공심이의 비밀일기

자꾸만 AI에 기대는 아이의 모습에 어른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주인공 공심이와 함께 명상여행을 떠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김임천 글 · 그림/216쪽/값 16,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우리는 왜 스님이 되었을까

통도사 학장 인해 스님과
동학사 학장 명오 스님의 출가 이야기



글 인해, 명오 | 17,500원 | 296쪽

승려의 삶을 사는 내내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입은
옷이 불편하다거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부디 자신의 인연에 꼭 맞는 옷을 찾아
입으며 참된 나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다행히 여기에 내 옷이 있었다.

인해

스물 네 살의 청춘,
그 좋은 나이에 출가했다.
출가를 방해하는 여러 핑계를
나의 발심發心이 이겼다. 출가 생활은
감동의 도가니였다. 절은 상상 이상의
매력이 철철 넘치는 곳이었고, 스님들은
멋스러웠다. 자유와 행복, 출가의 백미이다.

명오

인해 통도사 승가대학 학장. 해인사 강원과 조계종립승가대학원을 졸업,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과정을 수료했다. 이어 동국대학교 선학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 초대 이사장, 동국대학교, 해인사, 수덕사, 동화사 승가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는 통도사 김해포교당 바라밀선원 주지를 맡고 있다. 저서는 《달마대사의 소실육문》,《우리말 법화경》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남종의 선사상 연구〉,〈혜능의 좌선관〉외 다수가 있다. 제31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하였다.

명오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 동학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서 선학과·영문학과(학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종교학과 석사, 은해사 조계종립승가대학원 수료,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역서《대승기신론열망소》로 제1회 반야학술상 저역상, 저서《붓다의 입멸 에피소드 연구》로 제19회 불교출판문화상에서 올해의 불서 10 선정 및 붓다북 학술상을 수상했다. 논문은〈초기불교 병인론과 대승불교 사경 공덕 및 심신치유에 관한 연구〉,〈초기불교와 대승불교《열반경》에 나타난 재가불자의 계율 사상 연구〉등 다수가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